

## 세월호 209일만에 수색 종료 이준석 선장 살인죄는 무죄



### “더 이상의 고통 안된다”

실종자 9인가족들 요청  
발견 가능성 희박·잠수 한계  
정부도 판단...향후 인양 논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9일.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9명에 대한 수중 수색이 종료됐다.

실종자 가족들은 “더 이상의 고통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수색중단을 요청했고, 정부 역시 “실종자 발견 가능성이 희박하고 무리한 수색은 또 다른 희생을 부를지도 모른다”며 수색 종료를 공식화했다. 이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향후 수습은 선체 인양 문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4·22·23면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대국민발표를 통해 “수색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이제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

성이 희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현장의 거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잠수 수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수색 중단이 정부 입장임을 전했다.

현재 세월호 실종자는 단원고 학생 4명(남한철·박영인·조은화·허다윤), 교사 2명(고창석·양승진), 일반 승객 3명(권재근·권혁규·이영숙) 등 9명이다.

수색 종료 선언은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간잠수사 등 전문가들은 세월호 침몰 후 시간이 많이 흘러 선체 내 격실의 붕괴 위험이 있는 데다,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해상 여건이 나빠져 수색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도 정부 발표 후, 진도실내체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색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지만 저희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고 의견

을 모았다”며 수색중단을 요청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다만, 수중수색 활동을 중단하더라도 정부가 9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 선체 인양 등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이 장관은 실종자 가족들에게 “아직 차가운 바다에 핏줄을 남겨둔 그분들의 가슴 절절한 용단에 죄인의 심정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실종자 수습을 위한 선체 인양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 같은날 ‘세월호 두 표정’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이 참사 발생 209일 만에 종료된 11일 오전,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이 수색중단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향후 인양계획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왼쪽). 한편,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사고 피의자 15명의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된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법원이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36년형을 선고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홍남

### 法 “퇴선명령 안한 증거없어”

유기치사·상혐의 36년 선고  
기관장만 ‘살인’인정 30년형  
나머지 피고 13명 5~20년형

사상 최악의 해상 사고로 기록된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68) 선장에 대해 법원이 살인이 아닌 유기치사·상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36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심이 모아졌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1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영 부장판사)는 세월호 선장 및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준석에 대해 유기치사·상, 업무과실선박매몰, 선원법,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6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씨에 구형한 살인 및 살인미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 선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장으로서는 법률상·계약상 승객들에 대해 구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내에 대기중이던 승객을 버리고 세월호를 탈출하여 유기한 점”을 들어 유기치사·상 혐의를 인정했지만, “당시 이씨가 승객에게 퇴선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VTS(해상관제센터)기록과 진술을 종합해 볼때 이준석과 김영호(2등 항해사) 등이 퇴선명령을 내렸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이들의 세부적인 진술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퇴선명령 지시를 했다는 진술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씨와 김영호, 강원식(1등항해사) 등이 퇴선명령에 대해 허위 진술하기로 모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퇴선 이후 이들이 모의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이씨와 함께 살인죄가 구형됐던 기관장 박기호는 당시 조리실 바닥에 쓰러져있던 조리부 승무원 2명을 구조하지 않은 혐의만을 인정해 살인죄를 적용, 징역 30년형을 나머지 피고인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5~20년형을 선고했다.

/공지영·김영훈기자 jyg@kyeongin.com

## 문학터널 재정절감 속도낸다

최소수입보장 → 비용보전  
보장 수익률 4%대 인하 등  
시·운영사와 동의안 마련

인천시의 문학터널(민자도로) 사업 재구조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문학터널 재정 절감 방안 동의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문학터널 재정 지원을 줄이고 고차 문학터널 운영사인 국민공제회 등과 사업 재구조화에 관해 협의해 왔으며 개략적인 협의 결과를 토대로 동의안을 마련했다.

동의안은 현재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의 재정 지원 방식을 비용보전(SCS)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용보전 방식은 터널 운영비보다 통행료 수입이 적을 경우, 그 차액만 지원해 주는 것이다.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재정 지원 방식도 올 4월 최소수입보장에서 비용보전으로 변경됐다.

동의안에는 문학터널 측에 보장해 주던 수익률을 4%대로 낮추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현재 시가 보장해주는 수익률의 절반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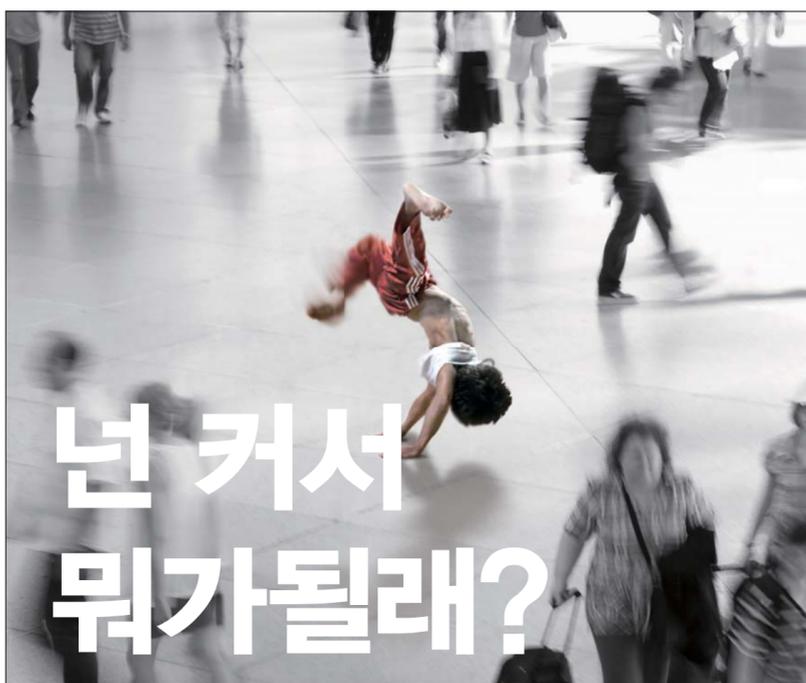
이 외에 문학터널측이 갖고 있는 통행료 조정권을 시가 확보하고, 지원금 지급 시기를 ‘연도별 지급’에서 ‘분기별 지급’으로 바꾸는 내용이 동의안에 있다.

이런 내용으로 사업 재구조화에 성공하면 문학터널에 들어가는 재정 지원금 규모가 매년 평균 5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시가 문학터널에 재정 지원을 해야 하는 기간은 2022년까지다. 이를 감안하면 향후 8년간 총 4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가 (문학터널 측에) 요구한 내용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동의안은 다음 달 중순 시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현준기자 upjh@kyeongin.com



# 넌 커서 뭐가 될래?

브레이크댄스로 각종 국제대회를 휩쓴 김기주 군  
어려운 동작을 연습하는 것보다  
어른들의 불편한 시선을 이겨내는 것이  
김군은 더 힘들었습니다.



모닝모바일 (Morning of owl)  
김기주 (만18세, 경기 수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경기도교육청이 응원합니다



## “증세없는 복지 한계 누리과정 정부 책임을”

### 시교육청 내년 예산 설명회

정치권·시민사회 공론화 제안  
무상급식 전부 삭감해도  
누리과정 감당불가 ‘선긋기’

누리과정·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인천시교육청이 ‘증세없는 복지 한계’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시교육청은 11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고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 보편적 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끝났다. 다만 전국 시·도교육청 재정위기를 계기로 ‘증세없는 복지 한계’에 대해 정

치권과 시민사회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교육재정 위기를 불러온 근본 원인을 누리과정 지원예산이라고 지목한 시교육청은 “대통령이 약속한 것은 중앙정부가, 교육감이 약속한 것은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다시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

에 필요한 2천696억원의 41.9%인 1천130억원만 편성했다. 어린이집은 3.5개월분, 유치원은 7개월분만 반영했다. 시교육청 김진철 대변인은 “누리과정 미편성분을 모두 예산안에 반영할 경우 전체 가용재원(4천476억원)의 60%를 차지하게 된다”면서 “이런 경우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비를 50% 줄여야 해서 사실상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을 연계시키려는 것과 관련, 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 385억원 전부를 삭감해도 누리과정을 감당하지는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시교육청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만나는 학교 현장을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를 유지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급식, 누리과정, 교육복지, 학교운영비는 아이들의 행복과 민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육 재정이 민생 재정’이란 방향을 잃지않기 위해 초등 무상급식을 유지하고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다음달 2일부터 시교육청이 제출한 총 2조7천43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김도현기자 kd69@kyeongin.com

# K팝 공연장, 경제성에 발목 잡히나

<고양 한류월드>

### 타당성보고서 결과 분석값 10이하... 낮은 수익률 예상 민간사업자 임대 만료이후 '애물단지 전략우려' 지적

고양 한류월드로의 유치가 결정된 케이팝(K-POP) 공연장의 경제성이 매우 낮아 민간사업자를 찾기가 쉽지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경기도의회 권철승(새정치·화성3)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분석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K-POP공연장의 B/C(경제성분석) 값은 두가지 안에 따라 최

대 0.64, 최하 0.47로 각각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값이 1이하이면 투자비용에 비해 수익이 적어 투자 효과가 없다는 의미로 보고서는 민간투자자가 참여하기에는 낮은 수익률이 예상된다고 결론냈다.

K-POP공연장 운영에 따른 전체 수익중 관람 수익과 광고 협찬, 명칭 사용권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63.7%를 차지하는데 이 3가지 수익 구조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도가 30년간의 무상 임대기간이 끝난 후 민간투자자로부터 공연장을 인수받고 나면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 애물단지 시설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 의원은 "임대기간 만료 이후에 도에 커다란 부담을 주는 시설이 될 수 있고, 그 전에 사업자가 (적자로 인해) 운영에서 손떨 우려도 있다"며 "도는 내방객 숫자계산 방식을 재검토해 추진하겠다는데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도가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

지 의심이 든다. 도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도의 경제성 분석에서는 B/C 값이 1이상 나왔다"며 "사업자가 운영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을 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POP공연장 건립사업은 오는 2017년까지 한류월드내 테마파크 부지에 2천775억원(국비 250억원 포함)을 들여 1만8천석 규모의 주공연장(5만9천889㎡), 1천100석의 보조공연장(3천351㎡) 등을 짓는 사업이다.

/김민욱·유은총기자 kmw@kyeongin.com



11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에 대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한경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임영수기자 ppys@kyeongin.com

# 경기도 장애인 복지 '최하위'

### 의료비 지급·교육수준 평균미만...고용률은 '바다' 도, 행감서 논란되자 "몰랐다... 파악후 조치" 해명

경기도 장애인 복지 수준이 올해 전국 최하위권으로 조사됐지만 정작 도는 이같은 실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한 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올해 전국 17개 광역단체의 장애인 복지 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도의 장애인 복지 수준은 부산·전남·경북과 더불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 성적이 저조해 민간부

문을 물론, 공공부문에서도 장애인 고용률이 전국 지자체중 바닥 수준이었다. 각종 복지서비스 지원 정도와 의료비·활동지원비 지급규모도 평균치를 넘지 못했다. 장애인에 대한 교육 수준 역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특수 교육 담당 교원수와 학습수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충분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지만, 정작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중 실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수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교육을 이수한후 진학을 하거나 취직을 하는 학생수도 최하위권이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되자 도는 "솔직히 잘 몰랐다. 파악해서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위 김광성(새정치·비례) 의원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도의 태도가 인일

하"고 비판했다.

한편 이승철(새·수원5) 의원은 도 공무원들의 지나친 외부강의(경인일보 10월21일자 1면 보도)에 우려를 표했고, 류재구(새정치·부천5) 의원은 도가 3년간 노숙인 관리를 위해 1명당 1천6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투입하고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김기정기자 kanggi@kyeongin.com



# 중증 응급환자 구명 '골든타임존' 시행

### 30개소 질환별 의료기관 운영

경기도는 공휴일·야간 등 의료취약시간에 중증 응급환자가 신속히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골든타임존'을 시행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골든타임(외상환자의 생존율과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기 시간)을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중증응급

환자의 28.8%는 최소한 한 번 이상 전원(병원간 이송)을 경험한다. 한 번 병원을 옮길 경우 4시간, 두 번 이상 이면 응급수술과 시술, 집중치료 등 최종 치료를 최고 14시간이나 지연시킨다.

도는 이같은 폐단을 줄이기 위해 도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묶어 응급실을 갖춘 의료기관 60곳 가운데 절반인 30개소를 질환별 당직의료기관으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대상 질환은 응급질환 중 중증에

해당해 빠른 수술과 시술이 필요하거나 의료수가 낮아 의료기관이 치료를 꺼리는 뇌실질출혈이나 장종창 등 11개 질환이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나 재난·응급의료상황실(02-6362-3455 또는 129)에 전화하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적합한 병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진기자 ikj@kyeongin.com

# GGGI 국제컨퍼런스 개최

### '창조경제·녹색성장 연계'... 19일 송도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는 오는 19일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쉐라톤 인천 호텔에서 '창조경제와 녹색성장의 연계'를 주제로 콘퍼런스를 연다. 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는 우리나라가 주도해 만든 첫 국제기구로, 현재 24개국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콘퍼런스 주요 의제는 ▲최첨단 녹색기술의 과제 진단과 해결 방안 ▲녹색금융 분야의 수요와 공급 부조화 현상 해결 방안 ▲녹색성장 분야 혁신적 투자 모델 모색 ▲녹색성

장과 창조경제의 시너지 극대화 방안 등이다. 저녁 세션에서는 운병세 외교부 장관이 환영사를, 라젠드라 파차우리 유엔 정무간기후변화위원회(IPCC) 의장이 기조연설을 한다.

이번 행사에는 수실로 발방 유도요노(GGGI 의장 내정자)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윤성규 환경부 장관, 메리 로빈슨(전 아일랜드 대통령) UN 기후변화 특보, 유정복 인천시장, 신야 수렌 오윤 몽골 환경부 장관, 루이 포송 세계물위원회 회장 등 국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행사 전날인 18일에는 수실로 발방 유도요노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GGGI 의장직 임명 연설을 시작으로 GGGI 총회가 열린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天地風水地理研究院  
등록번호:111-50-64162

**전국**  
**포지관리공사**

화장, 시초(복원), 이장, 자연장, 평장, 수목장, 조경, 석물, 기묘, 묘지감정, 수택

동수적 풍운자리 봐 드립니다

주택지, 방장, 편전, 가든, 모델, 콘도, 사옥, 병원, 요양원, 학원, 학교, 사찰터, 밭터, 축사장 등

문의: **011-757-7890**  
**02-778-0707**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인터넷 검색창에 **정치후원금** 을 쳐주세요  
문의전화 : 02-523-6483

## 희망의 정치 원하세요? 후원하세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서 기부

- 후원회 후원금 및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모두 가능
- 계좌이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휴대폰 결제 가능

**스마트청구서**(스마트폰 정치후원시스템)에서 기부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계좌로 **직접 이체**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후원이 모여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듭니다

**정치후원금 기부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기부시 초과액의 15%~25%를 세액공제)

공명선거 홍보대사  
MBC 이나연씨  
김소영

# 선체 인양 최소 1년 비용만 수천억 예상

격실 붕괴위험·겨울철 기상  
사고 우려 수중수색 마침표  
전문가 검토후 봄 인양 착수

세월호 참사 후 마지막 한명까지 찾아내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나 위험해진 수색여건 등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데 실종자 가족들도 동의하면서 수중수색 작업은 종료됐다. 정부는 본격적으로 선체 인양을 준비할 예정이다.

■ 실종자 수색 과정은=사고 발생 이후 꾸려진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해경·해군·소방대원·민간잠수사와 합동구조팀을 꾸리고 선체 및 해상 수색, 구조 작업에 나섰다. 강한 조류 등 외부적 환경은 물론, 정부의 혼선 등으로 구조 및 수색은 더디게 진행됐다.

침몰 시점부터 20여일간은 하루도 빠짐없이 시신이 발견되면서 4월 29일까지 수습된 시신은 200구가 넘었다. 하지만 수색이 장기화됨에 따라 선체 붕괴가 진행되면서 시신이 수습되지 않는 날이 차츰 늘어갔

다. 다이빙벨 투입 등도 이뤄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29일에는 295번째 희생자인 단원고 황지현 양이 발견되기도 했다.

■ 수색 중단 배경은=정부와 실종자 가족이 수색 중단에 합의한 것은 안전을 위협하는 수색여건이다. 또 수중 수색을 통한 실종자 발견 가능성이 희박해진 이유도 있다. 세월호 침몰 이후 7개월가량 지나면서 선체 내 격실은 붕괴위험이 있는 상태다.

게다가 겨울이 다가오면서 해상여건까지 나빠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물

론 실종자 가족들도 수색작업에서의 사고를 우려해 왔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수색중단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실종자 가족에게 전달하고, 동의를 얻어냈다.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 합의를 거쳐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도 수색종료의 요인중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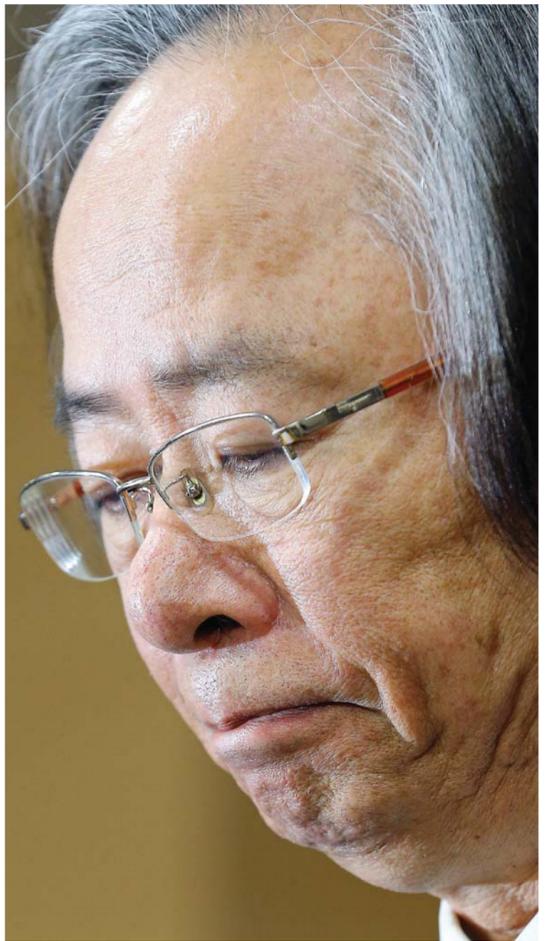
■ 선체 인양은?=수색이 종료됨에 따라 세월호 선체 인양이 최대 현안이 됐다. 실종자 가족들은 선체 인양 등을 통해 실종자를 찾아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세월호 인양을 위해서는 해역 여

건, 선체 상태 등 전문가 검토는 물론 국민과 실종자 가족의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하다. 이른 시일내에 인양에 대한 의견이 모일 경우 내년 봄 이후 본격적인 선체인양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월호가 국내에서 운항 중인 여객선 가운데 최대인 6천825t급이어서, 인양작업도 수색만큼이나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인양 기간만 최소 1년 이상이며, 비용도 수천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성·공지영·강영훈기자  
mrkim@kyeongin.com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눈시울이 붉어진 채 세월호 사고 현장 수색 종료를 발표한 뒤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백남

## 일반인대책위 “실종자 장례 중요한 시점” 수용

회에서 절차·지원방법 논의  
인천합동분향소 철거 검토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수색 종료 결정을 받아들이는 실종자 가족들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11일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 관계자

는 “함께 힘든 시간을 견뎌왔기에 짐작이 간다. 실종자 가족들이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리셨다”며 “실종자 장례와 선체 인양 작업이 매우 중요한 일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했다.

일반인 대책위는 이날 오후 10시께 임원회의를 열었다. 임원회의 주요 안건은 실종자 장례 절차와 지원 방

법, 일반인 희생자 인천정부합동분향소 철거 여부 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인 대책위 측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만약 대책위에서 (인천정부합동분향소) 철거 쪽으로 의견을 모으더라도 나머지 일반인 희생자 가족 분들의 의견을 여쭙보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찬반 투표

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인천정부합동분향소 철거 문제를 놓고 고민 중인 것은 인천시도 마찬가지다. 시는 정부에서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 지난 5월 18일부터 인천정부합동분향소와 대책위 사무실 등을 운영 중이다. 특별교부세는 이달 중순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이 열

악해 자체적으로 인천정부합동분향소 운영비를 마련하기 어렵다”며 “정부에 추가로 특별교부세를 요청한다고 해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몰라 난감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조만간 일반인 대책위와 인천정부합동분향소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고 싶다”고 했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는 인천, 경기, 서울, 제주 주민 43명과 시신 수색 작업에 나섰다 변을 당한 잠수부 2명 등 총 45명이다. 이 중 38명의 영정이 인천정부합동분향소에 안치되고 있다. /백석진기자 psj06@kyeongin.com

## 1주기 맞춰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건립

인천가족공원내 2층 규모  
14일 설계용역... 2월 착공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건립사업이 내년 4월 이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는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에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을 건립하고자 오는 14일 설계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90일이다. 시는 유가족 요청을 수용해 인천가족공원내 1천200㎡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400㎡ 규모의 추모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추모관 1층에는 추모실과 사무실, 2층에는 안치단과 제례실이 마련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추모관 건물 형태, 추모비, 주변 조경 등 밑그림을 그린다. 또 공사 기간과 비용을 산출하게 된다. 시는 내년 2월 추모관 건립공사를

시작해 참사 1주기를 맞는 내년 4월 이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용역비 약 5천만원을 우선 시비로 부담했다”며 “공사비는 안전행정부와 논의를 거쳐 추후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또 “내년 4월 이전 완공을 위해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라고 했다. /백석진기자 psj06@kyeongin.com



1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의 한 전통시장에서 인천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장을 보고 있다. /인천순복음교회 제공

## 인천순복음교회 안산 아픔 나뉨

교인 1200명 분향소 추모... 전통시장 장보기도

인천순복음교회 교인 1천200여명은 11일 경기도 안산에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안산시민, 전통시장 상인들과 만나 이들의 아픔을 함께했다.

교인들은 이날 오전 10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정부 합동분향소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실종자들에게 분향을 했다. 최근들어 한산했던 분향소에 모처럼 추모 행렬이 길게 이어졌다.

인천순복음교회 최성규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인들은 유가족을 만

나 위로를 건네기도 했다. 김제택(50·인천 남동구)씨는 “외아들을 잃은 한 유가족이 ‘시절이 지나면 잊혀져 갈 것이겠지만,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중교인으로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드렸다”고 말했다.

분향을 마친 교인들은 안산시내 전통시장 곳곳으로 흩어져 점심식사를 하고, 한 사람당 5만원어치의 장을 봤다. 경기 침체와 세월호 참사로 인해 활기를 잃은 안산 전통시장을 상인들을 돕기 위해서다. 박석

최성규 담임목사는 “성도들이 함께 나서 안산지역에 힘과 격려를 주자는 취지로 방문했다”며 “세월호 문제가 마무리되고, 지역이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순복음교회는 12일 전남 진도군에서 생소한 협쌀(20kg) 1천400포를 구입해 인천지역 홀몸노인,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등 소외계층 1천400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백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아름다운 인재의 생  
가천대학교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혁신의 새 바람이 분다!  
가천대학교 대학원

통합의 시너지로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대학원!  
끝없는 투자를 통해 늘어난 성장율 이뤄낸 대학원!  
더 큰 비전을 가졌다면 선택은 가천대학교 대학원입니다

## 2015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구분	대학원	모집학과(전공)	원서접수	문의
가천대학교 (성남)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	10.27(월)~11.26(수) 17시	(031) 750 - 5022
		E-MBA 과정	11.10(월)~12.05(금) 17시	(031) 750 - 5208
	경영대학원(아진)	석사과정: 경영학과(인사조직, 재무 및 회계세무, 마케팅, 중소기업경영, 고용 및 직업상담, 관광경영, 의료경영, 뷰티예술경영, 글로벌프랜차이즈, 세일즈매니지먼트, 금융컨설팅전공), 사회직업(인화과(사회직업전공))	11.10(월)~12.05(금) 17시	(031) 750 - 5026
		석사과정: 교원양성과정 국어교육, 영어교육, 수학교육, 중국어교육, 체육교육, 음악교육, 유아교육, 영양교육, 교육심리 및 상담전공	11.10(월)~11.28(금) 17시	(031) 750 - 5034
		석사과정: 재교육과정 영재교육, 교육리더십 및 교육공학전공	2015.1.5(월)~1.30(금) 17시	(031) 750 - 5032
		석사과정: 한국어 교원양성과정	11.10(월)~12.05(금) 17시	(031) 750 - 5031
		석사과정: 행정학과(공공정책, 국가안전관리전공),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상담학전공)	11.10(월)~12.05(금) 17시	(031) 750 - 5482
석사과정: 산업환경공학과(도시계획학, 조경학, 초고층재난관리학, 실내건축학, 건축설비공학, 소방방재공학전공)	11.17(월)~11.28(금) 17시	(031) 750 - 8897		
메디컬캠퍼스 (인천)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의학과, 의과학, 약학과	10.27(월)~11.26(수) 17시	(032) 820 - 4770
		석사과정: 의학과, 의과학, 약학과, 보건학과, 간호학과	11.10(월)~12.05(금) 17시	(032) 820 - 4770
	보건대학원(아진)	석사과정: 보건학과(보건정책 및 역학, 물리치료학, 작업치료학, 방사선학, 응급구조학, 치위생학전공)	11.10(월)~12.05(금) 17시	(032) 820 - 4770

※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가천대학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 메디컬캠퍼스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로 191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가 11일 국회 운영위원장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에서 세월호 보·배상 문제를 상임위서 즉시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나서 손을 잡고 있다. 오른쪽부터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연합

# 與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 의총서 되자

체포동의안 개선 등 당내 반발 커  
일부 수용 입장 문헌해 추인 실패  
“혁신원안 후퇴할것” 관측도 솔솔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제시한 체포동의안 개선 등 혁신안이 당내 의원들의 반발로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데 실패했다. 김문수 혁신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혁신특위가 지난 9월 말 출범 이후 내놓은 혁신안들을 소속 의원들에게 공식 보고했다. 혁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체포동의

안 개선(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 체포동의안 계류 72시간 경과시 자동 가결, 체포동의안·석방요구안 기명투표 전환)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금지 ▲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 추진 ▲내년 의원 세비 동결 ▲의원 겸직금지 대상 확대 추진 및 국회윤리특위 강화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관위 산하에 두는 방안 등 총 9개 안이다. 비공개 의총에서는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 100명 상당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발언에 나선 15명 중 4명을 제외하고는 혁신안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와 내년도 의원 세비 동결, 체포동의안 개선안 등에 불

쾌감을 그대로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의원은 “보수혁신의 진정한 가치를 하나도 담지 못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만 한다면 ‘국회의원 기득권 박탈위원회’라고 하든지 해야지”라고 맹비난했다. 김태흠 의원도 “출판기념회 금지도 위헌이고, 회의 참석 안 했다고 세비 삭감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김 대표의 항공기 이코노미석 탑승 방침과 관련해 서도 일부 의원들이 따갑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안을 수용하자는 입장을 보인 김세연·유재중·신성범·박명재 의원은 당내 반발 기류속에 묻혔다. 김 대표는 의총 마무리 시점에 “혁신을

위한 첫 단계이기 때문에 지켜봐 달라”며 추가 의견수렴을 위해 의총을 계속 개최하기로 했다. 김 혁신위원장은 기자들에게 “혁신은 아픈 것이고 힘든 것이라는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혁신안은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우리 당이 먼저 발의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안 추인이 물 건너간 상황에 따라 혁신안 원안이 후퇴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이날 혁신위의 혁신안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의 1단계 방안이고, 추후 정당과 정치제도 등 큰 틀의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내년 초까지 혁신안을 논의,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 박 대통령 “中 제안 ‘아태자유무역지대’ 적극 지지”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중국이 제안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이징 시내에서 60km 떨어진 휴양지 엔치후(雁栖湖)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세션에서 5분간의 선도발언을 통해 “저는 아태 지역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역내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가속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저는 진행 중인 여러 무역 자유화 노력이 이루어진 FTAAP은 큰 강이라고 비유한 바 있다”며 “이러한 자유화 노력들이 하나로 통합된다면 그 효과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APEC에서 2006년부터 논의돼 온 FTAA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세계 주요 21개

국으로 구성된 APEC의 최종목표이다. 박 대통령의 이번 지지 의사 표명이 새판 짜기 조짐을 보이는 동북아 외교정세나 중국과 미국 사이의 세계 경제 패권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개도국의 FTA 협상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주도의 ‘지역경제통합 역량 강화사업’과 관련, “한국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오전에서 역내 연계성 증진을 위해 ‘APEC 교통카드’ 도입을 제안했고, 정상선언문 부속서인 ‘APEC 연계성 청사진’의 이행보고서에 반영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APEC내 통관시간 및 물류비용 절감 추진 차원에서 관세청이 인정한 무역업체에 대해 통관시 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 혜택을 제공하는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확대를 제안했다. /연합

## 경기·인천 국고지원 예산 줄줄이 증액

광역버스 입석은행 문제등 ‘숨통’을 위해 내년까지 보상비 95% 확보가 필요하다. 이의와 함께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사업이 3천833억원에서 1천417억원이 추가 증액됐으며, 154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 토당-원당간 국대도건설 사업도 80억원을 추가했다. 89억원이 책정된 국도 39호선의 관산-원당간 국대도건설 사업은 150억원이 증액됐고, 148억원이 반영된 국대도 3호선 상패-청산간 국대도 사업도 27억원이 더해져 사업이 순탄하게 됐다. 그러나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사업은 보상민자유치건설보조금으로 1천억원이 책정됐으나 연내 집행가능한 적정규모를 넘었다는 이유로 논란속에 통과되고, 광명-서울간 민자유치건설보조금(100억원)은 노선계획, IC 위치 등 해당 지자체 및 주민들과 협의의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잠정 보류되는 과정을 거쳐 예결특위 심의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광역버스 입석은행 문제등 ‘숨통’을 위해 내년까지 보상비 95% 확보가 필요하다. 이의와 함께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사업이 3천833억원에서 1천417억원이 추가 증액됐으며, 154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 토당-원당간 국대도건설 사업도 80억원을 추가했다. 89억원이 책정된 국도 39호선의 관산-원당간 국대도건설 사업은 150억원이 증액됐고, 148억원이 반영된 국대도 3호선 상패-청산간 국대도 사업도 27억원이 더해져 사업이 순탄하게 됐다. 그러나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사업은 보상민자유치건설보조금으로 1천억원이 책정됐으나 연내 집행가능한 적정규모를 넘었다는 이유로 논란속에 통과되고, 광명-서울간 민자유치건설보조금(100억원)은 노선계획, IC 위치 등 해당 지자체 및 주민들과 협의의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잠정 보류되는 과정을 거쳐 예결특위 심의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한·미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1일 오후 중국 베이징 외곽 엔치후의 ‘국회의원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환담하고 있다. /연합

## 김성기가평군수 새누리 입당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성기 가평군수가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김 군수는 11일 가평을 새누리당 가평연락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 입당 사실을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가평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노력이라도 할 각오가 돼 있다”면서 “지역 현안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당 입당을 결심하게 됐다”고 입당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가평군은 각종 중부규제로 군

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낮은 재정자립도로 독단적인 자체사업은 업두도 낼 수 없는 열악한 현실에 있다”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입당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각종 중첩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 입성해 국회, 중앙정부, 경기도와 연계 중첩 규제를 풀고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여 지역 현안 사항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군민들의 여론을 받아들여 새누리당 입당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 與 당협위원장 인선 경선 도입하나?

경합지역 당원투표 선출 검토  
새누리당이 공석인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을 새로 인선하며 당원 경선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새누리당 이근현 사무총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2일부터 14일까지 위원장이 권위상태인 12곳의 당협 조직위원장 서류접수를 진행한다”며 “17일 자료를 정리해 18일 조강특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모에서 경기지역은 수원갑·수원정·부천원미갑·시흥을 등 4곳이다. 새누리당은 특히 일부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 대해선 당원투표로 당협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무엇보다 다음 총·대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당원협의회 구성을 놓고 김무성 대표와 친박(친박근혜) 주류측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져온 만큼 일부 경합지역은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기

준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조강특위 구성 단계부터 김무성 대표가 당을 장악하기 위해 친박 주류 당협위원장을 대거 교체할 것이라는 설이 나돌며 한 차례 흥풍을 치르는데 조강특위 구성을 놓고 친박 최다선인 사정원 최고위원이 마지막에 반대 의사를 밝혀 막판 명단이 바뀌는 등 우여곡절이 계속됐다. 다음 총선 공천부터 완전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하는 만큼 이번 당협위원장 인선에 경선 방식을 완전 국민경선제의 예비 단계로 볼 수 있다. 도내에서는 벌써 수원갑(장안구)을 놓고 최근 피선거권이 회복된 박종희 전 의원과 비례대표 김성민 의원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간 절치부심하며 안방 자기에 나선 박 전 의원은 과거 지지층 결속에 나선 반면 김 의원은 젊은층이 많이 늘어난 유권자들의 변화 분위기를 강조하며 눈독을 들이고 있다. /정희기자 jei@kyeongin.com

## 여야 세월호법 후속책 논의 즉시 무상복지·연금개혁·국조는 머뭇

여야 원내대표는 11일 세월호특별법 후속 대책과 관련,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즉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 문제는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한 후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 활성화와 관련,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우선 처리하고 이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쟁점 정리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이에 더해 무상복지, 공무원 연금개혁,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국정조사 등의 쟁점은 여야가 의견만 교환한 채 합의사항을 도출하지 못했다. 무상복지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상급식·보육 대책 마련을 위한 TF(태스크포스)팀을 당내 특위로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야당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위의장과 기재위,

복지위, 교문외 간사가 TF를 구성해 여당에게 제안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정조사 문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이날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문제점을 추가 제기하는 등 국조를 거듭 요구했다. ‘MB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홍영표(인천부평)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사업들 중 상당수가 투자비의 추가 납부가 예정돼 있다”며 “오는 2018년까지 31조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 총투자비는 현재까지 투입된 41조원을 포함해 72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현안브리핑을 통해 “단군 이래 최대 국부유출 사건인 해외자원외교의 권력형 비리 의혹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의혹을 낱알이 밝혀 국부유출의 책임자를 찾아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 청구와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순자·송수은기자 islandkim@kyeongin.com

### 경인정가

## ‘연료전지산업 활성화포럼’ 창립



새누리당 전하진(성남 분당을·사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기초 중 하나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연료전지산업 활성화포럼’(이하 연료전지포럼)을 창립한다고 11일 밝혔다. 연료전지포럼은 신재생에너지 및 분산 전원 기초의 확대를 통해 연료 전지를 대형화 안정적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는 모임이다. 포럼 대표인 전 의원은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 원전사고, 송전탑 건설 갈등 등으로 안정적 에너지공급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이러한 환경의 변

화에 따라 고효율 친환경 상시발전이 가능한 연료전지의 합리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포럼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포럼에는 국회와 신학연은 물론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연료전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포럼에는 김경우, 김상훈, 부자현, 이강우, 이원욱, 장윤석, 정두연, 홍영표, 홍익표, 홍지만 의원(기타나 등) 등 국회 산 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의원 10명과 에너지 관리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전기연구원, 서울대와 포항공대 등 굴지의 교수들도 참여한다. /정희기자 jei@kyeongin.com

##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명 철회



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사진) 의원은 11일 국회에 제출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함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명은 지난 5월에 했던 것으로 당시에는 개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없던 시기였으며 순수하게 검토해보자는 취지에서 동참했던 것”이라며 철회의 뜻을 전했다. 친박계인 함 의원의 철회에 앞서 총정 출신의 정우택 의원도 철회한 바 있다. /정희기자 jei@kyeongin.com

함 의원은 “헌 시점은 개헌 논의가 정치쟁점화돼 서명 당시의 취지가 퇴색되었으며 서명 후 6개월이나 경과했는데도 서명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며 “개헌 논의는 적절할 시기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출신의 홍영표(인천남동) 의원은 “이번 결의안에 공동서명한 사실이 없다”며 서명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총 4명이 개헌특위에서 국회에 제출한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의 서명을 철회했다. /정희기자 jei@kyeongin.com

## 정부조직 개편안 재난안전 대응 능력 진단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인천남동갑·사진)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정부조직 개편, 제2의 세월호 참사 막을 수 있나’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며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을 수행할 수 있을지를 진단,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자로 나선 이항수 건국

대 행정학과 교수는 “너무 급한 문책성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며 “이미 개편 방향이 정해지다니 방향이 한정적이어서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반성과 고민없이 개편안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미국의 9·11사태 이후 국토안보부가 신설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과 상반되게 우리는 대국민담화 발표후 불과 10여일만에 개편안이 만들어졌다”며 “컨트롤타워는 세월호 사고와 같이 매우 특수한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으로 일상적인 업무를 다루는 행정조직까지 다 끌어모으려는 발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순자기자 islandkim@kyeongin.com



# 화성산단내 규제 개선 '공장부지 확보'

<손톱 밑 가시뽑기>

민관합동추진단 한달간 21건 발굴  
과중한 도로면적 비율 하향 조정  
공장용지 활용폭 넓어져 애로 해소

삼성전자가 입주한 화성일반산업단지의 도로면적 허용 기준이 완화돼 공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늘어나게 됐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한달간 소상공인과 기업 등이 겪는 '손톱 밑 가시' 규제 총 21건을 발굴해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단지는 통상 규모에 따라 전체 면적 중 일정 비율의 도로 확보율을 의무로 지켜야 하는데, 화성일반산업단의 경우 전체 면적에 대해 8%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산단내 공장 면적에 비해 도로 면적 비율이 과중한데다 삼성전자 한 곳만 입주해 사실상 해당 도로 역시 단일 기업이 사용하는 내부도로로 쓰이는 데도 도로관련 변경 절차에만 6개월 이상의 인·허가 기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로면적 비율을 8%에서 4%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화성산단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했다.

이로써 화성산단은 의무로 확보해야 하는 도로 이외의 내부도로가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공장용지로의 활용 폭이 넓어지는 등 운영상 애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추진단은 이를 포함해 '축적판매 제조·가공식품의 배달 판매 허용'과 '중소기업 졸업기업에 대한 병역특례 지정 보장' 등 기업 관련 규제 10건, 소상공인 관련 규제 6건, 글로벌 규제 5건 등 21건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았다. 추진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발굴한 기업현장 애로 관련 규제는 500건도 넘는 데다"며 "법령 정비 등 개선이 완료되는 대로 매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일반산업단은 사업비 1천500억원이 투입돼 총면적 96만3천㎡ 규모로 조성된다. /신선미기자 ssnmi@kyeongin.com



커브드 TV 국내 누적 판매량 5만대 돌파

삼성전자 커브드(곡면) TV의 국내 누적 판매량이 5만대를 넘어섰다. 삼성전자는 올해 2월 커브드 UHD TV를 세계 최초로 국내 시장에 내놓은 이후 5개월여 만에 7월에 누적 판매 1만대를 넘었고 지난 8월부터 10월 사이에는 한 달에 1만대 이상 팔려 누적 판매량 5만대를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커브드 TV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은 139.7cm 보급형 UHD TV로 월 판매량 3천대를 넘었다. 삼성전자는 커브드 TV 출시 초기에는 고가의 프리미엄 모델로 한정해 시장에 내놓았으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7월 보급형 커브드 UHD 모델까지 라인업을 확대했고 풀HD급 커브드 TV도 연말이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커브드 TV 출시 이후 5개월 걸려던 1만대 판매가 최근에는 한 달 만에 넘어선다는 점에 비해 커브드 TV가 차세대 TV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 하도급 대금 상습체불업체 명단 공개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업체 명단이 공개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상습 체불업체 명단 공표, 저가낙찰공사 공사대금 발주자 직접 지급,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은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국

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공표하게 된다. 상습체불업체로 명단이 공표되면 해당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에도 반영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상습 체불업체의 명단이 공개되면 건설업체들이 상습체불업체와 계약을 기피하게 돼 대금 체불이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공사예정금액의 낙찰가율이 70% 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

할 경우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저가 낙찰공사는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대금 체불 우려가 높았다. 국토부는 "지금까지는 공공공사의 원도급 계약에 대한 정보만 공개가 되고 하도급 계약 정보는 계약 당사자들끼리만 공유돼 원도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저가계약, 이중계약 등을 하도급자에게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웠던 환경이었다"며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 5년만에 흑자... 저축銀 부활 신호탄?

전국 86곳서 190억 당기순이익  
지난 2011년 대규모 부실사태에 빠졌던 저축은행이 5년만에 분기 흑자를 내며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11일 저축은행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

르면 올해 회계연도 1분기(7~9월)에 전국 86개 저축은행이 19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저축은행이 분기 흑자를 낸 것은 지난 2009년 2분기(10~12월)이후 5년만이다. 흑자를 기록한 저축은행 숫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곳이 늘어난 59개사다. 저축은행이 흑자 구조로 돌아서고 있는 것은 각종 경영개선 수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9월말 현재 총자산은 37조1천억 원으로 지난해 6월말보다 4천억원 증가했다. 연체율은 17.4%로 6월말보다 0.2%p 하락했다. 부실 PF 사업장 매각 등으로 기업 대출의 연체율(21.8%)이 0.1%p 떨어졌고, 개

인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의 연체율(10.4%)도 0.4%p 하락했다. 국내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점포 확대 규제 완화와 신용카드 발급 및 방카슈랑스 취급 등 금융중개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축은행의 경영안정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희기자 jhkim@kyeongin.com

## 잡쌀떡보다 힐링... 수능선물 新풍속도

향초·아로마용품 긴장감 완화  
보온도사막·핫팩 필수 아이템

직장인 김모(26)씨는 고3 수험생인 막내 동생에게 줄 '수능 선물'로 아로마향초를 구매했다. 김씨가 수험생이던 시절만 해도 잡쌀떡, 초콜릿, 엿, 휴지, 포크 등 주로 합격이나 응원의 의미를 담은 선물이 인기였지만, 요즘은 긴장감과 불안함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힐링용' 선물이 대세라는 말을 주변 지인들로부터 들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요즘은 찜질팩이나 아로마용품 등 실용적이면서도 긴장을 풀어주는 선물이 인기라고 하더라"며 "잘 풀고 잘 찌고 철썩 합격하라는 등의 의미를 담은 선물들을 주고받던 건 옛날 얘기"라고 말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 힐링용 제품들이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

다보니 관련업계에서 수능을 앞두고 내놓은 제품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양키캔들은 최근 수능을 앞둔 시점에 향초 수요가 폭발하는 점에 착안해 아예 올해 처음으로 수험생을 위한 선물세트 3종을 출시했다.

집중력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 컨디션 조절을 위한 숙면 유도용 등의 기능이 있는 향초를 수능 당일까지 한정 판매하고 있으며 수험생 세트가 매출 신장에도 기여하고 있다는게 업체 측 설명이다. 오픈마켓 11번가도 '마사지 솔트',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 숙면유도 음

약을 들을 수 있는 '꿀전도 베게', '산소생성기' 등이 수능을 앞두고 최대 인기 제품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음이 없고 고사장에 반입이 가능한 특정 브랜드의 일명 '수능시계'와 보온도사막, 핫팩 등도 필수 준비물이 되면서 덩달아 인기다.

11번가 관계자는 "지난해는 공부에 도움이 되는 실용성 상품이 인기를 끌었다면 올해는 심신의 안정을 주거나 집중력을 높여주는 상품이 트렌드"라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snmi@kyeongin.com



## 대출사기는 인천, 피싱사기는 서울 '최다'

타인의 정보를 빼내 돈을 가로채는 피싱사기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출사기는 인천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건당 피해액은 피싱사기 1천130만원, 대출사기 450만원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011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온 피싱사기(7만859건)와 2012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대출사기(1만3천915건)를 분석한 결과를 11일 내놓았다. 피싱사기 피해는 서울이 2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대전(195건), 경기(175건), 제주(174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싱사기 피해는 30대가 전체의 28.2%

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 피싱사기 피해 중 54.3%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파밍·피싱사이드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67.5%)를 방지한 경우가 많았고, 보이스피싱은 개인정보 유출방지(41.2%)나 지인(17.9%), 우편물(16.2%) 등을 방지하거나 사칭했다. 대출사기는 인천에서 17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충남(153건), 강원(15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출사기범들은 전화광고(68.1%)와 문자메시지(28.5%)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희기자 jhkim@kyeongin.com

**청경향 세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왕지사 평생건강 With You

**이전안내**

**11월 17일(월), 오전동으로 이전**  
보다 나은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35번지 우진빌딩 (루이까스텔 건물 4~5층) ▼

← 군포방면 | 1번 국도 ↑ 안양방면

호계삼거리 | 호계e-편안세상아파트 | 새마을금고

(구)유인양행 | 포도원사거리 | 삼신아파트 | 대명구름재아파트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왕지사 (루이까스텔 건물 4~5층) | 모락로삼거리 | 모락구름재아파트 | 의왕초등학교

문의전화 (031)687-0110 | 안림요양병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 의왕지사 | (구)전동소리 | 모락신현대아파트 | 고선육교 | 수원방면

※ 찾아오시는 길  
▷ 버스 : 가구단지입구 정류장 441, 502, 301, 777, 64, 65, 1-2, 10, 5, 5-1, 60-1, 300, 900  
포도원·현대아파트 정류장 441, 502, 301, 777, 64, 65, 1-2, 10, 5, 5-1, 60-1, 300, 900, 22  
▷ 마을버스 : 6-1, 8

h-well 국민건강보험 의왕지사

**Aone MOTEL**

**25개 객실의 현명한 투자전략!**

**에이원 모텔**

**미래가치를 생각하시고 아름다운 곳에서 직접 운영 하실분을 모십니다**

☑ 태안군 도자기 박물관 예정 부지 옆 ☑ 신진도와 안흥항 남쪽 연륙교 결정

**월수입 800만원. 8억원 매매(조정가능). 주인 직접 운영중**

궁금한 점은 전화주세요. **010-9156-8800**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 신진대교길 75-11(신진도리 441번지)

# 한중FTA, 관광업계 설린다

단계적 비자 면제 범위 확대로  
요우커 방문 지속적 증가 기대  
경제계도 “서비스업 혜택 클 듯”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타결되면서 여행과 레저 등 인천지역 관광업계가 기대에 부풀고 있다. 국내 관련 전문가들도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11일 지역 관광업계는 한중 FTA 체결로 단계적 비자 면제 범위가 확대돼 한국을 찾는 요우커(遊客·중국인 관광객)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경제계에서도 한중 FTA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쪽의 혜택이 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초 목표와 달리 관계 철폐 및 완화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여영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한중 FTA 협상의 주요 성과는 성장하는 중국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라고 진단했다. 산업연구원도 최근 발간한 ‘방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요우커는 432만명이었다. 방한한 전체 해외관광객의 36%를 차지하는 절대적인 수치이다. 2위는 일본(23%)이며, 3위는 미국(6%)이었다. 요우커가 지난해 지출한 금액은 7조7천600억원 규모로,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13조3천700억원 수준이었다. 새로 생긴 일자리는 24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을 찾는 여성 요우커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는 부분도 고무적이다. 지난해 여성 요우커는 59%로 절반을 넘어섰다. 쇼핑을 즐기는 여성 요우커의 증가로 쇼핑업종이 호황을 누렸으며 의료와 음식, 항공, 운송, 물류 등으로 수혜가 확대됐다. 지역의 한 관광업체 관계자는 “올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6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인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8~10% 정도가 될 것”이라며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을 비롯한 국내 여행객들의 중국 관광 또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매출 증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준기자 kyi@kyeongin.com

## “VLCC 인천대교 7노트 통과 가능”

<초대형 유조선>

목포해양대 박성현 교수 발표  
항만청 “기준 속도 조정 검토”

적재용량이 30만 t인 초대형 유조선(VLCC)의 인천대교 통과 기준 속도가 7노트까지 높아져도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1일 목포해양대학교 국제해사수송과학부 박성현 교수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진행된 ‘인천대교 선박 통항 안전 속력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천대교와 선박 등의 안전을 고려할 때 VLCC가 적재용량의 절반 수준인 15만 t 정도의 원유를 싣고 운항할 경우 최대 속력을 7

노트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VLCC는 적재용량의 절반 수준인 15만 t 정도의 원유만 싣고 인천항에 입항하고 있다. 인천항만청이 정한 선박통항규칙에는 VLCC의 경우 속도를 6노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해상교통안전공단 VLCC가 인천대교를 통과하면서 주경관과 부딪치더라도 주경관에 설치된 충돌방지공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속도라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VLCC의 운항속도를 6노트에 맞추기 위해 매 항차 인천대교를 통과하기 2km 전부터 예선이 뒤에서 끌어 당겼다. 운항 도중 엔진을 멈춰 속도를 줄일 수 있지

만, 이 경우 VLCC가 조류의 영향으로 항로를 이탈할 수 있고, 다시 엔진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박 교수는 “VLCC가 인천대교를 통과할 때의 적정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쳤다”며 “그 결과 VLCC가 최대 7노트의 속력으로 인천대교의 주경관과 충돌했을 때 충돌방지공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박 교수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대교와 VLCC의 안전을 위한 인천대교의 VLCC 통과 기준 속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용역을 의뢰한 SK해운 관계자도 “VLCC의 인천대교 통과 속도가 상향조정되면 지금보다 원활하게 VLCC를 인천항으로 입항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상운기자 ssy@kyeongin.com

## 포스코 ‘LED·’ 녹색기술 인증

포스코건설은 광전자정밀(주)와 공동으로 개발한 ‘LED 자동 조도조절 시스템’이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외부 햇빛 변화에 따라 LED 조명 조도가 설정해 놓은 밝기로 실시간 자동 조절되고, 대기 전력 소비를 1W 이하로 최소화할 수 있다고 포스코건설은 설명했다. 조도 단계도 기존 10단계에서 4천9단계로 세분화할 수 있게 돼 효율적인 전력 사용이 가능하다. 포스코건설이 해당 기술을 ‘포스코 그린 빌딩’에 적용한 결과, 일반 LED등에 비해 전기에너지가 최대 70%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中企 정보 통합관리 조직 필요”

한은세미나서 지역협의체 강조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11일 본부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관 효율적 자금운용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인하대학교 오준병(경제학과)교수는 “그동안 각 기관에서 해왔던 정량적 정보 이외에 중소기업에 처한 상황과 향후 발전 전망 등 계량화하기 힘든 ‘정성적’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고 이를 통해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를 전달하기 위해 민간과 관, 지역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지역협의체’와 같은 조직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조직은 단순한 지원뿐 아니라 기업에 대한 교육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각 기업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면 지역발전에도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협의체 설립과 관련해 한국은행 인천본부 운영총무팀장은 “경우에 따라 효율성만 중시함으로써 정책자금 본연의 기능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윤기자 iw33@kyeongin.com

# 위상 높아진 ‘로봇도시 인천’

외국학생 글로벌 캠프 성료  
관련 기업들 판매실적 쑥쑥  
市, IT팀 구성 청사진 모색



지난 8월 인천에서 열린 ‘글로벌 로봇캠프’의 모습.

인천이 로봇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다. 처음으로 외국학생들을 초청한 ‘2014 글로벌 로봇캠프’가 지난 8월 성황리에 열렸고, 이 기간 국내 로봇 기업들이 눈에 띄는 판매실적을 올리는 등 ‘로봇도시’ 인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최근 인천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최순영 인천지능형로봇연구소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했다. 진흥원은 태스크포스팀을 중심으로 로봇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과 함께 구체적인 추진내용을 포함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은 그 동안 로봇교실, 로봇캠프, 로봇대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로봇산업과 관련한 경쟁력을 갖춰왔다. 그 결과 지난해 2009년에 국책사업인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유치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그 동안 진행해 왔던 ‘로봇캠프’를 확대해 ‘2014 글로벌 로봇캠프’로 진행했다. 전 세계 19개국의 어린이 3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세계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로봇캠프는 인천의 로봇산업을 알리는 효과와 함께 국내 로봇기업들이 마케팅 측면에서도 성과를 거둔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교육용 로봇기업의 대표주자인 로보트론은 캠프기간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홍콩 등의 기업과 3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며, 내년도 중국에서 주관하는 로봇캠프의 운영을 요청받았다. 지난해 인천에서 창업한 로봇 솔루션 기업인 로보웍스는 중국 기업과 1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고, 해외 타 기업과 10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진행 중이다. 휴마노이드 로봇 전문기업인 미니로봇은 홍콩, 대만 등 해외에서의 로봇 공인 프로그램에 대해 협의 중이다.

올해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로봇마케팅 플랫폼인 ‘로봇벤’은 인천아시아게임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인천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인천에 로봇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천의 특화 분야인 에듀테인먼트 분야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개발된 이동형 로봇 플랫폼인 ‘로봇벤’을 통한 로봇공연을 확대하고, 지역 내 과학관 등과 연계해 정기

적으로 로봇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로봇문화 저변 확대에서 로봇사업 지원까지 단계별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로봇선도도시로 자리잡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천로봇랜드의 공익시설을 2016년까지 완공해 국내 로봇기업들의 해외 진출 전진기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 김상룡 원장은 “인천의 로봇산업은 기계·제조에서 시작한 타 지역과 달리 IT·SW 분야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지능형 로봇을 육성하기에 적합한 산업구조와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며 “인천만의 ‘Only One’ 로봇특화분야를 발굴·육성함으로써 로봇이 인천의 미래먹거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윤기자 iw33@kyeongin.com

광고심의필 : 1039-0100 240 정

**효과 빠른 위장약 신일겔**

소화불량 · 속쓰림 · 위통

효과 빠른 위장약! 신일겔정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자극적 음식 섭취로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는 당신의 위장!

www.sinilpharm.com Tel. 02.2211.6700 SINIL Pharmaceutical Co., Ltd.

## LH, 저소득층 학생 전세임대 100가구 공급

LH인천지역본부가 인천지역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100호를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이 자신이 살 주택을 구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한 가격에 대학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대학생이 부담하는 금액은 임대보증금 100만~200만원, 월 임대료 7만~18만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재학생인 대학 인근 지역내 주택으로 지원한다는 7천500만원이다.

LH는 재학생, 수시 신입생, 정시 신입생으로 구분해 세 차례에 걸쳐 신청을 받는다. 재학생 신청기간은 오는 17~19일이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다.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정,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다. 최초 2년 계약후 2회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문의:LH인천지역본부(032-890-5470) /홍현기자 hhk@kyeongin.com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1012-중-24081호 www.conel.co.kr

## 조루증, 약물로 극복할 수 있다

내원하는 환자들 중에 조루에 대해서 잘스럽게 해결이 되기를 원하고 많은 시도를 하는 남성들이 굉장히 많다. 환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본인의 입장에서 심각한 질환으로 받아들이고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 조루증은 사정장애의 가장 흔한 형태이다. 연령과 관계없이 30~50%의 남성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실은 조루증의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조루증은 남성이 수학적 사정조절이 부족하여 스스로 원하기도 전에 클라이막스에 도달해 사정해버리는 증상으로 성의학에서는 보통 질삽입 후 약 2~3분 이내에 사정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현재 조루의 치료는 수술법과 비수술법이 있고 원인과 상태에 따라 먹는 약을 병행하기도 한다. 수술법의 경우 음경의 감각 신경을 부분적으로 차단하는 간단한 수술이며 이보다 더 간단하게 감각을 둔하게 하는 수술이 약물주입법이다. 약물주입법은 비수술적으로 10분정도 소요되는 간단한 시술로서 절개나 봉합이 없는 비수술적 치료이므로 수술에 비해 부담감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효과가 없으니 한번 더 재 주입해야 하는 부담도 있지만 간단하며 효과적인 시술법이다. ‘실체는 성공의 어머니’라 하지만 조루가 치료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사정시간이 조금 연장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정을 본인 의지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하루빨리 비뇨기와 전문의와의 상담과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더 큰 성기능 장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조루 수술 및 약물주입법 이후 체질에 따라 부종이 생길 수 있으며 염증 반응이 있을 수 있다.

코넬비뇨기과의원  
☎032-423-8270  
인천롯데백화점 뒤편

NAVER 코넬비뇨기과 를 쳐보세요

## 청라국제도시 조경공사 4-3공구 대행개발사업시행자 선정 입찰 공고

**I. 대행개발 사업개요**

- 공 사 명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조경공사 (4-3공구)
- 공사위치 : 인천시 서구 경서동, 연희동, 원창동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
- 설계금액 : 17,528,291천원(부가세 포함)
- 지급자재 : 1,659,658천원(부가세 포함)
- 대행개발사업자 선정방법 : 입찰(제한경쟁입찰, 내역입찰)

**II. 대행개발 공고내용**

1. 현물대상 토지

순위	용도	블록	면적(㎡)	공공금액(천원)	건비율	용적률	층수	토지영양분
1순위	일반상업	C13-1-4	4,469.1	3,616,200	60%	400%	10층	중시
		C14-2-1	1,968.0	5,805,600	60%	800%	-	
2순위	주거장	주16	1,124.7	8,551,400	90%	800%	15층	중시
3순위	주거장	주23	4,469.1	10,413,000	90%	800%	15층	
4순위	중상상업	C3-2-2	2,000.0	7,400,000	50%	800%	10층이상	

2. 현물지급비율

- 1, 2순위 : 지급기성금액의 40% 상계
- 3, 4순위 : 지급기성금액의 30% 상계

3. 입찰일정

구분	일정	장소
입찰참가 신청	1순위 : '14.12.9(화) 10:00~10:50 2순위 : '14.12.9(화) 11:00~11:50 3순위 : '14.12.9(화) 13:00~13:50 4순위 : '14.12.9(화) 14:00~14:50	인천시 서구 중흥대로 715번길13 (경서동 596) LH 청라영종사업본부 사업계획단 ☎ 032-540-1744
입찰(투표) 및 낙찰예정자결정(개찰)	1순위 : '14.12.9(화) 15:00~15:30 2순위 : '14.12.9(화) 15:30~16:00 3순위 : '14.12.9(화) 16:30~17:00 4순위 : '14.12.9(화) 17:00~17:30	본부 2층 회의실

낙찰자결정방법 :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우선순위에별도 현물지급대상토지 매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예정가격 대비 88%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4. 대행개발사업자 선정 : 현물지급대상토지 매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예정가격 대비 88%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5. 참가자격 : (1, 2, 3, 4순위 신청자)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법법」 제9조 규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현물지급대상토지를 공급받고자 하는자로서 입찰 공고일 현재 조정 시공능력평가액이 200억원 이상인 업체

6. 공동도급 가능(인터넷 공고문 참조)

**III. 계약체결**

1. 낙찰자는 아래 기한까지 우리공사와 대행개발 실시협약, 도급공사계약 및 현물지급대상토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체결 기한	계약완료 및 담보부서	연락처
대행개발 실시협약	2014.12.16(화) 17:00	청라영종사업본부 청라사업단 판매보상부	032-540-1784
도급공사계약	2014.12.23(화) 17:00	청라영종사업본부 사업계획단	032-540-1744
용지매매계약	2014.12.23(화) 17:00	청라영종사업본부 청라사업단 판매보상부	032-540-1784

2. 계약체결시 도급공사 계약보증금은 도급공사비의 15%를, 용지매매 계약보증금은 매매대금의 10%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도급공사 계약보증금은 보증서로 납부가능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증액된 경우에는 변경계약과 동시에 차액을 추가 납부)

\* 본 공고문은 기본사항만 기재하였으며 입찰관련 세부사항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12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장

# 장내 유해효소 억제... 말리면 영양 배가



표고탕수

표고볶음골동면

## 제철먹거리 이용한 건강밥상

>20< 표고버섯

아이들은 대부분 버섯을 좋아하지 않지만 표고버섯은 아이들의 장 건강을 유지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어 적절한 요리법을 찾아 먹이는 게 중요하다.

베타닌 성분 면역증강·항암작용

비타민D2 많은 건표고 성장 도움

아이들 입맛엔 표고탕수육 좋아

소면·쇠고기와 볶는 골동면도

### ■ 표고버섯 효능

표고버섯은 참나무, 졸참나무, 너도밤나무 등 활엽수에 기생하는 송이과에 속하는 식용버섯으로 항암작용 등의 약리효과가 있다.

한국식품과학회지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표고버섯 추출물이 유산균의 증식을 유도, 장내 pH를 낮추고 더 나아가서는 장내 세균이 생산하는 유해효소 생산을 억제한다.

게다가 이 연구보고서는 표고버섯 추출물이 대장암 세포의 증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데 보고했는데, 표고버섯에 베타글루칸 성분과 일종인 렌티난(lentinan)을 비롯한 6종의 다당류가 있어 항종양성 및 면역증강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렌티난은 천연의 방어물질인 인터페론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 면역증강 작용 및 항암작용을 하는 게 입증된 바 있다.

### ■ 생표고보다는 건표고

표고버섯의 약효를 보려면 생표고버섯보다는 건표고버섯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생표고버섯은 100g당 단백질 2.0g, 지방 0.3g, 탄수화물 5.4g, 조섬유 0.7g 정도 들어있는데 비해 건표고버섯은 100

g당 단백질 18.1g, 지방 3.1g, 탄수화물 57.0g, 조섬유 6.7g이 들어있어 생표고버섯보다 영양적으로 우수하다.

또 말리는 과정에서 소장에서 칼슘 흡수와 신장에서의 칼슘 재흡수를 증가시키는 비타민D2가 늘어나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건표고버섯이 더 좋다.

건표고버섯은 사용하기 전 미지근한 물에 설탕을 조금 넣고 불려 밀동을 잘라내고 물기를 꼭 짰 후 쓰는데, 이때 표고버섯 불린 물은 버리지 말고 음식에 사용한다.

표고버섯에는 고흡압과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에리타데닌(eritadenine) 성분이 들어있는데, 에리타데닌은 물에 녹는 성질이 있다. 또 잘라낸 밀동도 모아 말렸다가 국물을 낼 때 사용하면 육수가 더 맛 있다.

### ■ 좋은 표고 고르기

생표고버섯은 갓이 완전히 퍼지지 않고 적당한 퍼져 약간 모아진 형태로 안쪽 면이 흰색으로 주름이 몽게지지 않은 것이 좋다. 줄기는 통통하고 짧으며 살은 두둑하고 뽕송뽕송해야 신선하다.

좋은 표고버섯은 건조하면 등이 갈라지고 것이 두꺼우며 조직이 단단하고 육질이

쫄깃한데 크기가 많이 줄어들지 않고 향이 좋다.

따라서 건표고버섯은 표면이 거북이등처럼 갈라진 균열 사이로 흰색 속살이 많이 보일수록, 기계건조보다 햇볕에 말린 것이 영양가가 더 많아 상품 가치가 더 높다.

### ■ 표고탕수

표고버섯을 아이들에게 먹이려면 탕수육 형태도 좋다.

먼저 표고버섯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후춧가루와 소금으로 간을 해 채워둔다. 이후 표고버섯을 녹말가루에 무쳐 노릇하게 튀겨야 하는데, 비닐팩에 표고버섯과 녹말가루를 넣고 흔들면 골고루 묻는다. 기름 온도는 180℃ 정도로 한다.

양파와 당근, 오이를 먹기 좋게 잘라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센불에서 볶다가 냄비에 물을 붓고 설탕(4인분 기준, 1과2분의 큰술), 식초(3큰술), 간장(1큰술), 올리고당(3큰술)을 넣어 끓인다. 국물이 끓어오르면 물녹말(1큰술)과 토마토케첩(3큰술)을 넣어 소스를 만든 후에 표고탕수에 걸들인다.

### ■ 표고볶음골동면

볶음 쌀국수처럼 소면을 표고버섯과 쇠

고기(우둔살)와 함께 볶아 만드는 '표고볶음골동면'도 국물만 내던 표고버섯을 직접 먹을 수 있는 방법이다.

표고버섯과 쇠고기는 채썰어 양념에 20분 정도 재워둔다. 양념은 간장(4인분 기준, 1과2분의 큰술), 설탕(1큰술), 참기름(2작은술), 다진 파(2작은술), 다진마늘(1과2분의 작은술), 깨소금과 후춧가루 약간을 섞어 만든다.

오이는 겉껍질을 깎아 채썰고 소금에 살짝 절였다가 물기를 꼭 짰다. 달걀은 황백 지단을 부쳐 쇠고기와 같은 길이로 채 썰어 준비한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오이, 쇠고기, 표고버섯 순으로 각각 볶는다.

국수는 쫄깃하게 삶아 참기름, 간장, 설탕으로 양념하고 여기에 볶은 오이, 표고버섯, 쇠고기를 넣고 잘 버무린다. 접시에 낼 때는 면을 담고 달걀지단을 얹어 낸면 된다.

글/심기현 교수(숙명여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사진/농협 시사농사팀

운동추진위원회 제공



## 오색빛깔 과일 효과 알고먹자

빨강 항산화·노랑 위장보호 등

농진청, 색깔별 기능 성분 발표

성인병과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한몫하는 과일이 색깔마다 기능성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11일 빨간색, 노란색, 녹색, 보라색, 흰색 등 색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과일의 기능 성분을 발표했다.

우선 빨간색 과일에는 암을 예방할 수 있는 항산화제가 풍부하다.

사과의 붉은 색소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은 지방과 DNA의 산화방지, 면역 시스템에 영향을 주며 대장암과 위암 세포의 증식을 막는다.

또 다른 빨간 과일 체리는 통풍의 원인인 요산과 염증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다음으로 노란색 과일에는 활성산소를 무력화하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고, 베타카로틴은 노란색을 나타내는 색소로 체내에서 비타민A로 전환되거나 전립선암 감소에 영향을 준다.

대표적인 노란 과일은 감귤, 오렌지, 감, 복숭아 등이며 이들 과일은 위장을 보호하고 소화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녹색 과일에는 식물생리활성물질과 비타민C가 풍부하며, 특히 녹색 색소는 조절 효능, 간 기능 회복, 피로 회복과 원활한 신진대사를 돕는다.

참다래, 매실, 올리브 등이 대표적인 녹색 과일이다.

보라색 과일은 세포 손상을 막고 비타민E 함량을 높여 노화 예방에 좋다.

포도의 색소인 플라보노이드는 심장병과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고 노폐물이 혈관 벽에 쌓이는 것을 막는다.

또 블루베리에는 세포 손상과 노화로 인한 기억력 감퇴를 막고 시력을 좋게 하는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 있다.

마지막으로 배와 바나나 등 흰색 과일은 세균과 바이러스의 저항력을 높일 수 있는 안토키산틴 함량이 높아 항염·항균뿐만 아니라 암과 심장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올해는 전반적으로 과일 작황이 좋아 기능성이 풍부한 오색 과일을 저렴한 값에 먹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과일을 섭취하면 스트레스와 불규칙적인 생활로 인한 각종 성인병 발생 위험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 양평 여물리마을 등 경기 4곳 '행복마을 콘테스트' 수상

경기도 양평 여물리마을 등 도내 4개 마을이 정부에서 실시한 '제1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대통령상 등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농협안성캠퍼스에서 열린 '제1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양평 여물리마을이 소득·체형 분야 대통령상 금상과 함께 상금 3천만원을, 문화·복지 분야에서 양평 조현리마을이 대통령상 은상과 함께 상금 2천만원을, 경관·환경 분야에서 안성시 적가마을이 입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함께 상금 400만원을 각각 수상했다.

이 밖에 시·군 부문에서 안성시가 국무총리 동상과 함께 상금 2천만원을 받았다.

양평 여물리마을은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캠핑장, 외국인 농가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새로운 일자리와 마을 소득을 높인 점이 높이 평가 받았다.

조현리마을은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을 주제로 초등학교 학생 수 증가와 보건진료소 유지 등이 좋은 평가를 얻었고, 안성 적가마을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에 의한 마을 정화활동 성과가 우수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안성시는 행정,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거버넌스를 구성한 마을만들기 운영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 시·

군의 마을만들기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마을 단위 3개 분야(문화·복지, 경관·환경, 소득·체형)와 시·군 분야 등 총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콘테스트를 실시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7일 도내 마을 및 시·군을 대상으로 제1회 경기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이들 마을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경기도 대표로 추천했다.

/이경진기자 ikj@kyeongin.com

"모익에서농진 쌀"은 진정 농가와 계약재배 및 냉각 사일로에 보관하고 도정하여 찰질을 연중 균일하게 생산하여 맛있는 쌀을 공급합니다. 국립 호남작물시험장에서 고품질 쌀로 개발된 품종으로 일반 품종에 비해 쌀알이 굵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므로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품질관리기준에 합격한 제품만 출하하는 믿을 수 있는 고품격 쌀입니다.

www.okku.co.kr

# 新

## 모익에서농진 쌀

우수 브랜드쌀·농협인증미 등 품질을 인정 받은 쌀로 싱가포르·호주·독일에 수출하는 믿을 수 있는 고품질 브랜드 쌀

우리 농민의 넉넉한 정을 가득 담은 쌀입니다.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지 않아 밥맛이 좋습니다. 일반 품종에 비해 쌀알이 약 1.3배 굵습니다. 엄격한 생산, 저장, 품질관리를 통해 생산합니다.

농민과 도시의 상생정신을 지키는 옥구농업협동조합 전북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290번지

무료 쌀 주문 전화 **080-471-4471**

글·로·벌·리·더·청·소·년·아·카·데·미·와·함·께·알·찬·겨·울·방·학·을

제18기 글로벌리더 청소년 아카데미



# 2015 중국문화학교

中國文化學校

## "연수단 모집"

2015. 1. 5. (월) ~ 2015. 1. 17. (토) [12박13일]

### 경기·인천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누구나 지원하세요!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과 경인일보사가 주관하고 수원시청소년센터와 인민일보 해외판 한국대표처에서 주최하는 "글로벌리더 청소년 아카데미 '2015 중국문화학교'"에 참가할 미래의 글로벌리더들을 모집합니다. 국내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정평받고 있는 경인일보의 해외문화 체험 및 어학연수는 수준별 중국어연수는 물론 역사유적지를 비롯한 현지 관광지 및 재래시장 방문, 청소년들과의 만남 등 보다 알찬 내용으로 꾸몄습니다. 경기·인천지역 남녀 중·고등학생까지 참가가 가능한 중국 문화체험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접수기간 : 11월 20일(목)

교육 내용

- 북경, 정주, 낙양, 개봉, 상해 등 중국주요도시 체험학습
- 중국어 수업 / 중국노래 배우기 / 노래공연 및 독후감 발표
- 명사초청 글로벌 리더 특강

참가비

- 197만원(연수비용, 왕복항공료, 숙식비, 교재대, 관광지 입장료 일체비용 / 비자발급비용 별도)
- \*수원시 학생은 청소년문화센터에서 1인당 85만원씩 지원

연수 장소

중국 하남성 정주시 정주국제학교

면접

12월 11일(목) 오후 5시, 경인일보 3층 회의실

합격자 발표

12월 12일(금)

오리엔 테이션

12월 19일(금)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수원청소년문화센터 2층 은하수홀)

신청안내 및 연수일정표 등의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 홈페이지 [www.sycc.or.kr](http://www.sycc.or.kr)를 참조하시고, 접수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enffl888@naver.com](mailto:enffl888@naver.com) 또는 팩스 031-218-0419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의: 경인일보 사업국 031-231-5500 수원청소년문화센터 031-218-0415 인민일보해외판한국대표처 031-546-8813

주최



주관



아시아 동화보급 '나눔의 굿샷'

연세대 FCEO 총동문회, 골프대회서 성금 모아
한국아시아우호재단 한국 교육·문화교류 동참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FCEO(이하 연세대FCEO) 총동문회는 지난 10일 열린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FCEO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를 통해 한국아시아우호재단의 '더북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기부행사에 참여했다.

대회에 참가한 연세대 FCEO 동문들은 '더북프로젝트'를 후원하는 신청서도 작성하고 정성스레 성금을 모아 대회가 끝난 후 기부금 전액을 한국아시아우호재단에 전달했다.

'더북프로젝트'는 한국아시아우호재단이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등 아시아 빈국의 초등학교 및 공공도서관, 기관에 한국 전래동화와 사립대상국의 동화를 엮어 보급하는 사업으로 교육과 문화 차원에서 상호간의 문화적 교류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연세대FCEO 6대 총동문회장인 (주)치어스 정한 대표이사는 "이번 기부 이벤트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문들의 모습이 더욱더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동문들의 회사가 더욱 건설해지고 발전해 나눔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웃어라 이천' 행복전파 프로젝트

시온성교회, 사회 참여분위기 탈피 감성 캠페인

포스터부착·배지착용 등 종파 떠나 주민 공감대

이천시 관내 작은 교회에서 시작된 작은 감성 캠페인이 전진한 파장을 일으키며 지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화제다.

장기 불황에 세월호 참사 등으로 경직된 사회적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적 공감대가 이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천 시온성교회(담임목사·임홍수)는 8주 예정의 '웃어라 이천'이란 캐치프레이즈를 건 캠페인을 지난 9월14일 선포식을 갖고 신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신자들의 감동에 포스터와 시내버스 광고 부착 등으로 시작된 캠페인은 종파를 떠나 지역민들의 공감을 얻어내기 시작한 것. '웃어라 이천'이란 말은 요즘 이천에서 익숙한 주민들간에 최대 유행어가 되고 있을 정도다.

최근 교회에서 열린 행사 종료 모임에 초청받은 조병돈 시장은 어두운 사회분위기를 반영한 사회맞춤형 캠페인으로 "캠페인이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지역적 상징으로 자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사회 전반에 걸친 지속적 캠페인이 되길 희망한다"며 캠페인 부활에 힘을 보탤다.

이후 직원들 사이에 상징의 배지를 단 직원들이 눈에 띄면서 캠페인



일러스트/성목회기자 okie@kyeongin.com

인이 본격 탄력을 받는 등 지역에 상징인 사회적 운동으로 자리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 캠페인을 만든 임 목사는 "이천시를 섬기고 시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자는 취지로 만든 캠페인이 세월호 참사 이후 분위기로 침체된 지금의 분위기와 맞아 떨어지면서 행사 종료를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이천/심재호·서인범기자 sjh@kyeongin.com

| 새얼굴 |

"지역발전·시민행복에 온힘"

임태준 새정치민주연합 이천 지역위원장



"이천 발전과 이천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천시 지역위원장에 이천합동법률사무소 임태준(사전) 변호사가 결정됐다.

새지역위원장인 임태준(52·사법연수원30기) 변호사는 이천시 백사면 출생으로 이천시청 고문변호사, 이천 63동문회장 등을 역임하며 각종 지역봉사단체 등에서 활동해왔다.

임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천지역 연합원으로 활약해 승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임태준 명상센터 '행인(幸人)'을 진리통에 개소, 관내 행복바이라는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고 있다.

이천/심재호·서인범기자 sjh@kyeongin.com



조용기 목사, 한세대 명예 문학박사

한세대학교(총장·김성혜)는 11일 음악관 대연주홀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78) 원로목사에게 명예 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영호 목사와 조용기 원로목사의 제자교회 목사 및 한세대 교직원, 학생, 내·외빈 등 5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조 원로목사는 세계적인 목회자 및 선교가로서 국내 복음화와 해외 선교에 크게 이바지하였음은 물론 한국어를 비롯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수많은 저서를 집필하였다.

군포/윤덕희기자 ydhr@kyeongin.com

원경봉씨, 동두천 홍보사진공모 금상

제1회 동두천시 홍보사진 공모전에서 원경봉(동두천)씨의 수변공원이 금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490점 응모작품을 공개심사한 시는 금, 은(2점), 동(3점),佳作(5점), 입선(30점) 등 41점으로 수상작으로 최종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은상은 김정수(양주)씨의 MTB와 이광영(동두천)씨의 별 해는 밤이 선정됐고 서민홍(동두천)씨의 소산, 안근호(의정부)씨의 자재암의 가을, 신은주(군포)씨의 동두천의 문화관광 작품이 동상 수상작으로 뽑혔다. 이밖에 오병석(양주)씨의 하늘높이 달리자 등 5점이佳作로 수상작 대열에 들어섰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육군 26사단 '응급처치 경연' 최우수

육·해·공 의무부대 총 46개팀 경합 뚫고 영예

육군 26사단이 국방부 주관 '전군 응급처치 경연대회'에서 최우수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고 11일 밝혔다.

아전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대비 및 의무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한 이번 대회에는 육·해·공군 의무부대 총 46개팀이 참가해 예선전을 통과한 22개팀이 본선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본선팀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와 외상환자 종합처치 등 아전 종합 상황조치 능력과 충격 및 포탄 공격 등 실전 상황을 가정한 심정지, 신체절단 등 복합적인 응급처치 기량을 확인한 결과, 26사단 응급구조팀이 최우수상에 올랐다.

군외관 관제우 대위는 "평소 생사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주기적 훈련을 지속 실시해 왔다"며 "특히 지난 7월에는 사단장 주관으로 아전 훈련장에



양주/이성현기자 ish@kyeongin.com



광주시 농업인 대회 2천여명 성황

광주시는 11일 곤지암읍 공설운동장에서 제19회 농업인의 날 기념 광주시 농업인 대회를 개최했다.

광주시농민단체협의회(회장·문태철)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조억동 광주시장, 노철래 국회의원, 소미순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도·시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농업 관련 기관·단체 및 농업인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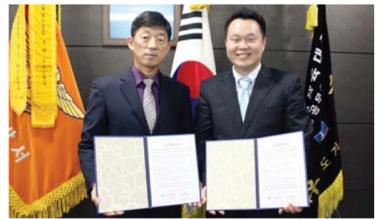


부천 오정경찰서-성모병원 의료지원 맞손

부천오정경찰서(서장·오성환)와 가톨릭대 부천시 모병원(병원장·백민우)은 11일 오정서 직원 및 북한 이탈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양 기관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불규칙한 생활과 잦은 밤샘근무로 건강을 해치는 경찰관들의 복지 향상과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고자 체결했다.

부천/전상현기자 junsch@kyeongin.com



화성소방서-제이엠보트 업무협약

화성소방서(서장·권용성)는 물놀이 사고 등 수난사고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무선조종 구명환 보트제 조업체인 (주)제이엠보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무선조종 구명환 보트란 전기동력 방식의 무선조종 보트와 수난구조용 구명환과 레스큐캔을 결합한 특허제품으로 5~7m/sec의 빠른 스피드로 최대 12명을 동시에 구조할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화성소방서와 (주)제이엠보트는 수난사고 발생 시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게 되며, 화성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수난사고에서 무선조종 구명환 보트를 적극 활용하게 된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호명산 석천사, 저소득층에 장학금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호명산 석천사는 11일 저소득 가정 자녀 2명에게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석천사 동산 주지스님은 그동안 저소득 가정 자녀들의 학업증진과 격려를 위해 매년 장학금과 교복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동산 스님은 "앞으로도 저소득 가정 학생들의 후원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자리 옮겼습니다

- 외교부 △평기담담당사 이상규
인천공항공사 △부사장 겸 경영본부장 이호진 △시카메팅본부장 이광수 △안전보안실장 나도균
서울신문 ◇사업단 △부단장 최용규
아주경제 ◇일간아주중급 △편집국장 김기만 △편집부국장 한중지 △경영지원팀장 김승택 △편집부국장 겸 총괄부국장 조윤선

결혼합니다

▲류재규(경기도의원)·김정희씨 장남 창완군과 심재현·김석희씨 차녀 주연양=15일(토) 오후 2시30분. 한국과학기술회관 SC컨벤션 강남센터(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지하1층 프리미에르. (02)569-7600

삼가 명복을 빕니다

▲조병철(전 세계일보 주필, 서울대 총동창회 논설위원)씨 별세, 구혜정씨 남편상, 조형목(대전지방법원 판사)·은주(롯데백화점 인사담당)씨 부친상=11일 오전 7시. 민소 서울아산병원. 발인: 13일 오전 7시. (02)3010-2000
▲김희영(인천도시공사 투자유치처장)씨 장인상=11일 오전 5시. 민소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해민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3일 오전 7시. (02)2049-9000

본사손님

▲강상석(인천시 안전행정국장) ▲이일희(인천시 건설교통국장) ▲유창근(인천항만공사 사장)씨=인사

하남지역·연성대, 소외이웃에 김장운정



하남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다. (사)아이코리아하남지회회는 지난 10일 향동 두개비농장에서 회원, 시청 공직자 부인, 다문화가정 여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행사를 갖고 직접 담근 김장김치 100여포기를 같은 날 다문화 결혼 가정, 저소득 가정, 시립어린이집 등에 전달했다.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도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사랑봉사단 60여명과 함께 '사랑나눔 가족봉사단 김장담그기 행사'를 열고 김장 200여포기를 담가 독거노인, 장애인단체 등 50여가구에 전달했다.

또 자원봉사센터는 지역내 학원 학생 40여명이 모금한 돈으로 구입한 연탄 1천200장을 구입, 저소득 가정 4세대에 연탄을 전달했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연성대학교(총장·오금혜)는 최근 대학교 교정에서 오금희 총장을 비롯, 이필운 시장, 천진철 시의회의장, 연예인 김한·변희상·손대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양월드휴먼브리지가 주최하고 연성대학교 사회봉사단, 율목종합사회복지관, 안양감리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김장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내 취약계층 가정 등을 돕기 위해 총 4천여포기의 김치를 담갔다.

오 총장은 "앞으로도 연성대는 지역사회와 힘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사랑을 줄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성대는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율목종합사회복지관, 안양월드휴먼브리지 등과 함께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갖고 있다.

안양/이석철·김중현기자 chani@kyeongin.com

목소리 낭랑한 할머니·컴퓨터 교육가 엄마·방송기자 꿈 딸

“3代 하나되어 동영상 만들어요”

남동구 김경애·김로사·채지효 가족 시청자미디어센터 교육 수료 '화제'



컴퓨터 활용 교육 전문가인 엄마는 어느 날 가족에게 미디어 교육 수강을 제안했다. 장래 방송 기자가 꿈인 초등학생 딸, 시와 소설을 소리 내어 읽는 목소리가 좋은 60대 할머니가 함께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동영상 제작 교육을 받으려 어떤겠냐고 했다. 할머니가 교육을 잘 못따라가지 않을까 걱정된 엄마도 수강신청서를 냈다. 한 집에 사는 3대는 이렇게 미디어 교육을 시작해 기초과정, 고급과정, 심화과정 등 3단계를 모두 수료하고 현재 미디어 제작단에 속해 있다.

할머니는 다음 촬영 장소를 선정하는 일을 담당했다. 3대가 함께 들은 교육은 가족을 변화시켰다. 할머니는 아나운싱 수업을 들으며 “내가 낭독을 굉장히 한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초등학생 딸은 현지 방송국 보도국장에게 생생한 실무 교육을 받고 보도국장을 인터뷰하는 기회를 얻었다. 엄마는 “미디어 교육을 통해 우리 셋이 배운 것도 많고, 대화할 수 있는 주제가 생겼다”고 했다.

가르쳐주는 게 좋았다고 지효네 가족은 입을 모았다. 할머니 김경애씨는 “앞으로 녹음 잘 해서 UCC를 올리고 싶어요”라고 했다. 할머니는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대사를 수백번도 더 소리내어 읽었다고 한다. 채지효 양은 “할머니 특유의 옛날 목소리는 듣기에 참 좋다”며 책 읽는 할머니를 소재로 한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싶다고 했다. 논현2동 주민센터, 인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가르치는 김로사씨는 “어르신들이 미디어센터에서 영상 제작 기술을 익힐 것을 권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인천 남동구에 사는 김경애(65)씨, 김로사(40)씨, 채지효(11)양 가족이다. 이들 3대는 지난 9월 ‘기초과정-동영상제작 2기’에서 시작해 ‘고급과정-시민기자’, ‘심화과정-동영상 촬영’을 수료했다. 김경애씨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교육이 어땠는 물음에 “너무 좋아요”라는 말을 반복하고 “제 나이에 특별히 배우고 싶은 의욕도 안 나는데, 여기 오면 편한 마음”이라고 했다. 김경애씨는 가족들과는 따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동영상 제작’을 수강하면서 거의 매일 센터에 나오다시피 했다.

할머니, 엄마, 딸은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교육과 실습에 늘 동행했다. 지난 달 ‘월미공원 벚벚 체험’을 촬영하러 갔을 때 딸은 인터뷰를, 엄마는 촬영을,



재능대 금연성공학학생 111명에 장학금

인천재능대학교(총장·이기우)는 11일 금연 장학금 수여식과 평생 금연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재능대는 금연에 성공한 111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3천300만원을 지급했다. 재능대 학생 369명은 지난 4월부터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이 중 30% 가량인 111명이 담배를 끊어 장학금을 받게 됐다. 재능대 관계자는 “교내 일부 흡연부스를 제외한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정해 학생들의 금연 실천에 총력을 쏟고 있다”며 “장학금 제도로 학생들의 금연 의지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화속노랑고구마 출하협약·품평회

양도농협(조합장·김기석) 고구마 작목반은 11일 고구마작목반 공동선별장에서 농협 강서공판장, 농협 정과사업단, 인천하나로클럽 관계자와 출하 농업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화속노랑고구마 출하협약회 및 품평회’를 개최했다. 양도농협의 속노랑 고구마는 당도가 높고 섬유질이 풍부해 고구마작목반은 강화 속노랑고구마로 3억 8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기도 했다. 양도농협은 올해도 고구마 작황이 좋아 작년대비 10%이상의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웅진군·영흥화력 기상정보공유 협약

인천시 웅진군(군수·조윤길)과 한국남동발전(주) 영흥화력본부(본부장·손광식)는 영흥지역 기상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주고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두 기관은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운영중인 기상정보시스템의 기상정보를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영흥면 진두선착장 입구에 전광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영흥화력본부 관계자는 “기상정보 전광판을 시범 운영하며 주민과 관광객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말연시 '사랑의 연탄 배달'



롯데백화점 35주년행사 대신 나눔

창립 35주년을 맞은 롯데백화점이 창립 기념행사를 대신해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펼쳤다. 롯데백화점 인천점·부평점·중동점 임직원 50여명은 11일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거주하는 불우이웃에게 연탄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롯데백화점은 앞서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1억7천500만원 상당의 연탄 35만장을 기부하기도 했다. 롯데백화점 인천점 관계자는 “지역의 이웃을 위해 롯데백화점 고객들로 구성된 사뮈데봉사단 등과 함께 시설이 노후한 집을 리모델링해주는 프로젝트도 진행할 것이다”고 했다.



북부·서부교육지원청 봉사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직원들과 서부교육지원청 봉사동아리 ‘서부한우리회’ 회원들이 10일 인천연탄은행과 연계해 서구 석남동 일대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연탄 2천장을 구입·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연탄나눔 행사에는 직원들의 자녀도 함께 참여해 직접 연탄을 실은 지게를 지고 언덕길을 지나며 이웃들에게 연탄을 전달했다. 자녀와 함께 참여한 한 직원은 “요즘 자녀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 연탄나눔 봉사를 통해 이웃사랑과 나눔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해서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회물자운송협, 이웃사랑 성금 전달

인천광역시사회물자운송사업협회(이사장·심재선)는 11일 인천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개인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자 인천공동모금회 부회장으로 활동중인 심재선 이사장은 “추위된 날씨에 생계가 곤란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값지게 사용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이웃을 위한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계양구 '숲 가꾸기 1일 체험행사'

인천시 계양구(구청장·박형우)는 10일 효성동에서 ‘숲 가꾸기 1일 체험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작전역에서부터 효성동 노인복지센터까지 1.5km 거리의 녹지대에 비료를 주고 주변 잡목목을 제거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도심 속 숲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심에서 주민들이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녹지를 넓히고, 숲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for the 33rd Jeongin Volunteer Award.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firefighters and a candle. Text includes: '제33회 경인봉사대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경인일보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서 근무하는 일반 공무원, 교육자, 경찰·소방·군·우정공무원 등 분야별 모범 공무원과 주위의 귀감이 될 우수 농업인을 찾습니다. 올해로 33회째를 맞는 경인봉사대상은 지역의 숨은 일꾼을 발굴, 사기와 긍지를 높여주고 봉사의 참 뜻을 되새기게 위한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우리 사회의 참일꾼들을 많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 2014년 11월 18일 (화) 오후 6시까지', '행사개요: 일시: 2014년 12월 4일 (목) 오후 3시, 장소: 경인일보사 3층 대회의실, 시상: 각 부문 본상(상패) 및 시상금 각 1백만원', '시상부문 및 추천기관: 일반공무원 부문: 경기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 인천광역시청 및 각 구청장, 교직원부문: 경기도교육청 및 시·군교육청 /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청, 경찰공무원부문: 경기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청 / 인천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청, 소방공무원부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청 및 소방서청 / 인천광역시 소방재난본부청 및 소방서청, 군 공무원 부문: 제301전군사령부 주관하에 예하 사단청, 연대청, 부대청, 우정공무원 부문: 우정사업본부 경기인천지방우정청청 및 산하 우체국, 지역 봉사 부문: 시장, 군수, 구청장, 시·마을운동 경기·인천지회청, 자원봉사단체 경기·인천지회청 및 기관단체청, 농업인부문: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청', '문의전화\_ 본사 031)231-5511 / 인천본사 032)861-3200'.

| 참성단 |

베이징 '亞太經合組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중국 호장이 '亞太經合組織'이고 22차례의 APEC대회 중 가장 화려하고 요란한 대회가 이번 제22차 베이징 APEC이었다. 10일 밤엔 대회 만찬장에 진입하는 자동차 길까지 붉은 카펫을 깔았고 중앙의 전통악기 연주, 가무(歌舞), 군무(群舞), 발레, 경극(京劇) 문무희(文武戲), 성악, 무술 등 대규모 공연은 화려하고도 역동적이고 환상적이었다. 이번 APEC 준비는 베이징 스모그에 대비한 미소립자상(微粒子狀)물질 PM 2.5대책부터가 그 시작이었다. 차량 2부제는 베이징을 비롯해 주변 텐진(天津시), 허베이(河北省)까지 지난 3일부터 실시됐고 모든 제조공장의 가동 중지여부가 학교도 문을 닫았고 직장까지 5→11일까지 휴가였다. 아·태 21개국 정상회의(領導人峰會) 등 베이징 APEC 비용은 무려 360억(약 4조원)이었고.



성과 또한 다대했다. 한·중 정상회담의 FTA 타결을 비롯해 절리(絶離) 못해 일축 즉발 무력충돌 위험의 중·일 정상이 2년 반 만에 약속, '네 가지 원칙의 공동인식(四項原則共識)'을 도출한 점도 그렇고 한·일, 한·미 정상 회견 또한 그랬다. 무엇보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위세가 하늘을 찌른다. 17일 발매하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표지인물은 그였고 그를 '시황제'로 불렀다.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秦)의 '始皇제' 말고 또 한 사람의 '시(始皇제)가 등극한 것이다. 그만큼 시진핑의 야심은 대단하고 거창하다. 아시아 경제통합 주도권을 쥐시, 베이징-우루무치(烏魯木齊)-타키 이스탄불에 이르는 실크로드 경제 벨트에 44조원을 쏟아 붓는데다가 중국-동남아-인도양-유럽 해상 실크로드의 '중국 몽(夢)'까지 펼친다는 거다. 어제 CCTV 낮 1시 뉴스는 장장 30분간 새 시황제의 중국을 보도했다.

미·중 지구촌 패권 다툼과 제정러시아 '짜르(Tsar:차르→황제)'라 불리는 푸틴의 러시아, 그리고 제국주의 회귀를 꿈꾸는 독불장군 아베의 일본 등 4대 강국에 둘러싸인 게 한반도 땅이다. 이걸 우리 정치 지도자와 정치권이 인식한다면 오금을 못 퍼 잡도 제대로 자지 못할 거다. 남과 북이 답답하다.

오동환 객원논설위원

\*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경인일보** 경인일보 논설위원장 및 기획요강을 준수합니다

회장 이길여 | 발행·편집·인쇄인 송광석 | 편집국장 박현수

**본사**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9 ☎442-702 전화 0312315-114 팩스 232-1231, 223-2662 편집부 2315-339 정취부 2315-350 경제부 2315-351 사회부 2315-360 지역사회부 2315-370 사진부 2315-316 문화체육부 2315-380 교열부 2315-340 디지털뉴스부 2315-375

**인천 본사** 인천시 남구 학익동 684-1 ☎402-041 전화 032861-3200 팩스 861-3206, 3209 정취부 861-3200 경제부 861-3201 사회문화부 861-3202 사진부 861-3203

**서울 본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4 삼보호텔빌딩 801호 ☎150-608 전화 02780-0456 팩스 780-0356 취재부 780-0458 광고부 780-0457

광고문의 수원 0312315-252~9 인천 032861-3204 서울 02780-0456 구독료 월 10,000원 / 1부 500원 구독신청 0312315-503

| 수요광장 |



박 국 앙  
가천대 의학전문대학 원장

심정지후 심폐소생술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뇌기능 회복 위해선

5분을 넘기면 안된다

더욱 중요한건 심정지이전에

심혈관질환 예방이다

| 오늘의 창 |

관례 아닌 진심을...



최 규 원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찬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이 코앞이다. 바쁜 일상에 붓고 노랗게 물든 단풍을 못 보고 지나쳤을지라도 가을은 기다려주지 않은 채 이미 겨울에 바통을 넘길 준비를 마친 모양이다. 사람들도 겨울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겨울옷을 꺼내 입고 두꺼운 이불로 바꾸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내복을 꺼낸다.

겨울 하면 떠오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불우이웃돕기'다. 해마다 이맘때면 연례행사처럼 대기업·공기업은 물론 각종 단체들과 개인들은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자자체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성금 및 성품을 보냈거나 준비하고 있다. 그 동안은 잊고 있었더라도 추운 겨울 어렵게 보낼 이웃들을 생각한다는 마음만으로도 이미 우리네 마음의 온도는 조금 올라갔으리라.

그러나 원론적인 이야기를 꺼내보고자 한다.

삼성 이견희 회장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이견희 삼성회장이 2014년 5월10일 밤에 발생한 심장마비로 심폐소생술을 받은 지 6개월이 됐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워낙 비중이 있는 분야에서 심장전문가의 간에 치료 결과와 과정을 두고 말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심장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주치의들이 이견희 회장의 상태를 모를 리 없었을 텐데 심정지가 올 정도로 심각한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나 역시 사석에서 딱 한번 심장전문가로서 소견을 피력한 것이 이후 소위 '짜리시'성 보도로 카톡에서 공개되는 바람에 조금 당황하기도 했지만 이견희 회장의 쾌유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심장마비와 뇌손상에 대해 의견을 적어본다.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전신으로 혈류가 가지 않는 상황이 때문에 당연히 사망을 초래하지만 현대의 학에서는 심폐소생술을 통해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전신으로 혈류를 보내는 기술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심폐소생술로 보내는 혈류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체외순환보조장치(에크모) 또는 심실보조장치를 삽입하게 되며 본인의 심장이 다시 회복이 되면 이러한 장치는 제거하게 된다. 심장이 멎으면 혈류가 없어지므로 우리 몸의 여

러 장기의 손상을 가져오는데 가장 허혈에 민감한 장기가 뇌다. 간혹 추운 겨울날 얼어붙은 강에 추락한 차에서 한시간만에 구출된 아이가 심폐소생술 후 회복했다는 보도가 있기는 하지만 매우 드문 경우고 대부분의 뇌는 실온에서 5분 이상 혈류가 없으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심정지 시간이 5분이 넘어 더 길어지면 심장·신장·폐·간장 등 다른 장기에도 손상이 초래되며 시간에 비례해서 장기의 손상은 비가역적이 된다. 즉 심장이나 다른 장기의 기능이 회복된다 해도 심정지 기간이 5분이상 길어지면 뇌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이 힘들게 되며 더 길어지면 뇌사에 이른다.

대부분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협착에 의해 심정지가 발생하는데 심정지상태에서는 심박동의 움직임이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심실이 부르르 떠는 심실세동의 상태로 바뀌게 되는데 심실세동이 발생할 때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해주면 다시 심장의 박동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다. 여러 상황으로 보면 이견희 회장의 심장마비 원인은 분명히 심장협착의 협착이다. 즉 심장으로 가는 혈관의 협착이 심해 어느 한계를 넘자 심정지가 견디지 못한 것인데 심장마비가 올 정도면 적어도

90%이상 심장협착의 협착이 진행됐다고 추정된다. 심정지가 발생하고 심폐소생술이 바로 시작됐다고 했는데 사실 정확하게 몇분 동안 심정지가 됐는지 누구도 알 수는 없을 것이다. 순천향병원응급실에 도착해서는 심폐소생술을 바로 실시했을 것이고 곧 효과적인 혈류유지를 위해 에크모(ECMO·체외순환보조장치)를 삽입했다고 하는데 ECMO는 대퇴정맥의 혈류를 심실보조장치로 빼내 산소를 공급한 뒤 대퇴동맥으로 넣어주는 심장을 대신하는 장치다. 심장의 박동이 회복된 이후에는 삼성병원으로 이송해 에크모장치를 제거했고 심정지의 원인이었던 심장협착 협착부위에 스텐트를 삽입했다고 했는데 아마도 현재는 여러 가지 뇌기능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치료중인 것이다. 문제는 맨 처음 심정지 이후 심폐소생술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를 하는 점이다. 뇌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 5분이다. 이 5분을 넘기면 안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심정지가 오기전 예방이다. 이견희 회장은 선대 이병철 회장의 뒤를 이어 한국 경제의 중심에 우뚝 서신 분이다. 하루빨리 침상을 털고 다시 일어나 한국경제의 중심에 서기를 간절히 바란다.

|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 |

反哺之孝  
돌이킬 반 먹일 포 같지 효도 효

반포지효: 도리어 먹이를 물어다주는 (까마귀의) 효성



<출전: 사문유취(事文類聚)>

조순조 구당(久堂) 박장원(朴長遠, 1612~1671)이 홀로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인조에게 지어 올린 시 한편이다.

反哺鳥 까마귀 / 土有親在堂 선비의 어머니 집에 계시지만 / 貧無甘旨羹 가난하여 맛있는 음식을 드릴 수 없네 / 微亦感人 미물인 새도 사람을 감동시키는데 / 淚落林鳥哺 까마귀의 반포[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줌]에 눈물이 떨어지네

이 시를 본 인조는 감동해 그에게 음식과 옷감을 내려주어 어머니를 봉양하게 했다고 한다.

중국에서도 제갈량의 출사표와 더불어 잘 알려진 것이 '진정표(陳情表)'인데 읽다보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글이다. 진정표는 이말(李密, 224~287)이 진(晉) 무제(武帝)가 자신에게 높은 관직을 내리자 어릴 적 자신을 키워준 늙은 할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관직을 사양하면서 임금에게 올린 글이다. 그 글에 까마귀가 어미 새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사사로운 정(鳥鳴私情)으로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날까지만 봉양하게 해 달라고(願乞終養) 했다. 까마귀는 우리에게 죽음을 알리는 전조(前兆)로 여겨지는 새이지만 명대의 학자 이시진(李時珍, 1518~1593)이 쓴 약학서인 '본초강목(本草綱目)'을 보면 효조(孝鳥)다. 그 내용을 보면 까마귀는 처음 세상에 나와서 60일 동안은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 주지만 자라서 60일 동안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니 인자하고 효성스러운 새라는 기록이다. 까마귀 새끼가 크면 거꾸로 새끼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반포(反哺)이고 이렇게 반포의 효를 행하는 까마귀에게 인자하다는 의미에서 자오(慈鳥)라고 한다. '사문유취'에 까마귀는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주는 효성이 있다(鳥有反哺之孝)고 한 것에서 반포지효(反哺之孝란 말이 나왔다. 철산(柘山) 최경준(崔敬準, 동문서숙 대표)

Homepage : www.cint.co.kr

# 중앙아이엔티(주)는 당신의 미래에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자동제어부문 사업분야

- 상하수도시설물 원격감시제어시스템
- 터널관제시스템
- 소각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 빌딩관제시스템
- 수방시설 감시제어시스템
- 자동화 공정관리시스템

**C&T 중앙아이엔티(주)**  
Central Information & Technology co., LTD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9 안양메가밸리 418호  
TEL. 031-381-6200 FAX. 031-420-4429

경인칼럼



이한구 수원대 교수·객원논설위원

고용불안이

경제를

망친다

급년 달력도 마지막 한 장 남았다. 내년도 국내의 경제에 눈길 이 가나 장맛비 전망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지난 4분기 연속 '0%'대의 저성장세를 지속해온 터에 생계형 대출마저 증가하는 추세인데 수출여건도 신동치 못하다. 내외수 성장세가 동반 약화되면서 저성장이 장기화할 우려마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의 올마련 4%성장 호언이 때아리처럼 들린다. 저임금의 비숙련 노동이 주목된다. 마른수건 짜기가 재연될 조짐이 큰 것이다.

비정규직, 8월현재 600만명 넘어서 '사상 최고'

국내의 임금근로자 총수 대비 비정규직의 비중은 32.4%로 약간씩 줄어드는 추세이나 그 숫자는 점차 불어나 올해 8월 현재 사상 최고인 600만명을 넘어섰다. 1년만에 13만명이 증가한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임시직·일용직 등을 포함할 경우 경제활동인구의 30%를 훨씬 능가하는 840만명으로 추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정규직 반드시 해소' 공약에 역행하는 결과여서 눈길 이 간다.

정규직과의 소득격차 확대는 설상가상이다. 고용노동부가 3만천663개 표본사업체 소속 근로자 82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2008년 134만9천원에서 작년 298만5천원으로 5년만에 무려 2배이상 벌어졌다. 2013년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47.0%에 불과했다. 퇴직금과 상여금, 시간외 수당 등은 물론 사회보장 혜택까지 축소중인데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비정규직들의 수입은 더욱 낮아진다. 장기간의 저성장에도 간접노동 확산도 한몫 거들었다.

비정규직문제 양날의 칼로 폭발력 지닌 '시한폭탄'

파견·업무위탁·노무도급·사내하청·외주·분사·근로자공급 등으로 근로자들을 실제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조건 등 일체의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제도적으로 법적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책특권을 누린다. 1998년 IMF사태 이후 비숙련의 상시 저숙업무를 아웃소싱으로 전환하면서 작금 '단기 후려치기'는 예사며 '10년을 일해도 신입사원'들이 양산되고 '비저사장'도 성

업중이다. 지난달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국회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장 3곳중 1곳에서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별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 또한 줄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헛구호일 뿐이다.

정규직으로의 전환율이 매우 낮은 것은 또 다른 주목대상이 다. 지난 10월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영국·독일·프랑스·네덜란드·일본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한 '2013년 비정규직 이동성 국제비교'에서 한국은 정규직 전환율이 선진국중 가장 낮은 국가로 자칫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열악한 일자리의 덫(trap)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1990년대말 버블붕괴를 계기로 평생직장은 빠르게 위축됐다. 기업들은 재무지표 개선이란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한 비정규직이 대량발생하면서 민간소비는 서서히 둔화됐다. 수출에 목을 맨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질됐으나 2008년 미국의 비우량채권사태를 계기로 다시 나락으로

소비부진→저성장→고용불안심화 '빈곤 악순환'

떨어졌다. 고용불안의 망령은 청년들의 자립지 지 위축 내지는 출신층의 확대재생산을 결과해서 고통화를 더 촉진했다. 계층간·세대간 갈등우려는 또 다른 고민이다. 중신고용의 나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이야기다.

비정규직 문제는 양날의 칼로서 가공할 폭발력을 지닌 시한폭탄이다. 비정규직→소비부진→저성장→고용불안 심화 등 빈곤의 악순환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가 현안이나 가격기구를 통한 자율적 해결은 난망이다. 국제공조를 통한 비숙련노동문제 청산을 주문한 미국 미네소타대학의 에단 캅스타인 교수는 "정부는 고용불안 노동자들이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적응하도록 도와줄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다. OECD는 총수요진작을 위해서라도 각국 정부들이 비정규직 축소에 팔을 걷어붙일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 고용불안은 더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어 보인다. 굶는 냄비 속 개구리를 달아가는 것 같아 걱정이.

기고



박명성 인천시 도시디자인추진단장

인천의 꿈, 대한민국 미래 디자인하자

로 단장한 깨끗한 도로와 가로시설물은 물론, 인천만의 다양한 건축물과 생동감 있는 골목길, 지역성을 반영한 테마거리, 조화로운 야간경관 등은 인천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꿔놓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인천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GCF(녹색기후기금) 유치, 세계적 국제공항과 항만, 도로·철도망 확대 등 인천은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용을 갖춰 가고 있다. 내년엔 유네스코 책의 수도, 프레지던트클럽 골프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도 연이어 개최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 대형 공사를 중지하고, 도시홍물을 가리고, 꽃단장만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보기 좋아야 먹기도 좋다'라는 속담처럼 시각적 아름다움은 기본이다. 현대의 도시디자인에 대한 개념은 단순히 보기 좋고 예쁜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시민'과 도시의 다양성을 포용하면서도, 기능성과 효율성·안전성·쾌적성 등의 개념이 도시디자인과 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도시와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단지 독특하고 화려한 장식품에 그치는 디자인은 금방 싫증이 나기 쉽다.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하며, 주변 사람들의 발걸음을 끌어들이고 지역경제와 함께 자생력을 만드는 도시브랜드를 갖춰야 한다.

둘째, 시민과 소통하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미래형 도시디자인은 시민·전문가·행정이 함께 협력하며 우리 삶의 터전을 스스로 격상시키는 한 차원 높은 디자인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은 멀리 마음으로부터 정보를 개방하고 발로 뛰어다니며 주민의 소리를 듣고 또 들어야 한다. 주민들은 자발적인 참여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실현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성디자인이다. 아이·학생·엄마·아내·남편·장애인·노인 등 도시 구성원 모두를 감동하게 해야 한다. 각자의 입장에서 그 수고로움과 바람을 도시디자인에 반영해야 한다. 학교 가정 직장에서 배려하고 이루어져 주고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릴 것이다.

21세기는 감성과 창의성의 시대, 즉 '디자인의 시대'라고 한다. 이는 도시행정에도 영향을 끼쳐 도시디자인·경관디자인·공공디자인 등의 용어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디자인코리아·서울디자인 수도 등 수도권에서부터 일었던 디자인 광풍은 지방자치단체까지 많은 영향을 줬고, 최근에는 안전 분야로도 확산돼 안전디자인·안심디자인·범죄예방디자인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최근 45억 아시아인의 축제 인천아시아·장애인아시아인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과 봉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특히 어려운 재정환경 속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한 경관개선 사업은 인천을 찾는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남기기에 충분했다는 생각이 든다. 시민의 힘으

[사설]

1년도 못 버틴 인천 항공산업 기술센터

급년 4월 전격 개소되었던 '항공산업 기술혁신센터'가 1년도 못 버티고 해체 위기에 처했다. 최근 인천시는 이 센터의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센터는 사실상 존립 기반을 잃었다. 인천시 입장에서 센터가 기대하던 실적을 내지 못했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급년도 시 예산 3억천500만원이 투입되었으나 실제로 계획된 대표 사업들이었던 센터 증장기 발전전략 수립, 항공정비산업 기업수요 조사,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공모 제안 등 어느 하나도 해결되지 못했다. 특히 시급했던 항공산업 기업협의체 및 전문가 협의회 구성은 시작도 못했다. 올해 예정되었던 국제세미나도 오리무중이다. 이 세미나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항공안전기술원'을 인천에 유치하고자 했었다고 알려진다. 이런 실망 속에서 내려진 이번 조치가 항공산업 육성지지를 버린 것인지 아니면 이보전진을 위한 일부후퇴인지 논란이 뜨겁다.

유정복 시장은 취임 후 항공산업 육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유 시장은 지난달 취임 100일을 맞아 "인천시 발전의 기초가 된 8대 전략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공

언하면서 "그 첫째가 항공정비산업의 육성"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렇듯 시장의 의지가 고작 한 달만에 꺾였다면 그건 큰 염려가 아닐 수 없다. 미래형 산업인 항공정비산업을 인천이 주도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국내 경쟁지역인 부산 등에 비해 최대 공학 인프라를 갖고 있어 항공산업의 전·후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가 바로 인천이다.

항공기 부품의 종류는 자동차의 10배에 달한다. 또 항공산업은 뿌리산업에서부터 소재와 첨단정보산업까지 아우르는 융합 산업이다. 이런 산업의 육성을 통해 인천은 많은 연관 기업들을 집적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효과도 얻게 될 것이다. 항공산업의 평균임금은 일반 제조업의 1.5배에 달할 정도로 양질의 일자리다. 이는 또 인천의 남동·주안·부평 산업단지의 전통 기계공업과 협력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점에서 항공산업 육성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기대는 너무도 컸다. 설령 이번엔 항공산업 기술센터를 퇴출시키더라도 본래 항공산업 육성의 뜻은 접지 말아야 한다. 항공산업은 앞으로 인천을 먹여 살릴 산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수색 종료, 상처 아무는 계기되길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다. 장관도, 유가족도, 국민도 쏟아지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 발생 209일 만인 어제 세월호 수색 작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수색 작업을 무리하게 하다가는 또 다른 희생을 부를 수 있어 실종자 수중 수색 작업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은 9명의 실종자를 남겨둔 채 사실상 종료됐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진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중수색 중단을 공식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장관의 발표를 지켜본 10여명의 가족들은 정부의 결정을 눈물로 받아들였다. 이 장관이 담화를 발표하면서 갑자기 말문이 막힌 듯 울먹이자 실종자 가족도 흐느꼈다. 장관도, 유가족도, 담화를 지켜보는 국민도 가슴이 미어졌다. 세월호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잊어서도 안되는 우리 모두의 비극이다. 세월이 가도 세월호 정신을 절대 잊어서는 안되는 이유다.

아직도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가족들의 마음이 어떨지 모르는 국민은 없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수색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지만 저회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할 때 많은 국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다. 유가족들의 고뇌에 찬 수색중단의 결단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런 결단을 내린 실종자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

세월호 참사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이 두달래로 나뉘어졌다. 수색중단으로 분열된 국민이 아물기 바란다. 하지만 선제 인양을 두고 또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다. 인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침몰 지점에 추모비를 건립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모두 전문학적 인양비용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차라리 인양비용을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에게 돌려주는 편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 세월호 참사 초기처럼 정치권이 끼여들지 않도록 하자. 이럴 경우 또다시 국민간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는 인양과 관련해 유가족은 물론 사회 각층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길 바란다. 유가족에게 책임을 떠밀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수색중단 이후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수색이 중단됐다고 세월호 사체가 끝난 것은 아니다. 이제 또 다른 시작이다.

경인일보 NAVER에서 만나자!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쉽게 만나는 경인일보! MY뉴스 설정방법: 부어 상단 '설정' -> '지역' 선택 -> '경인일보' 선택 -> '설정완료' click

노후보장 임대주택 원룸주택관리는 전문가가 책임관리 인천간석오거리역 역세권 대지: 165.3㎡ (50평) 건평: 306.9㎡ (93평) 총매가 6억8천만원 용자금 2억 (승계가능) 보증금 5천7백만원 월세 340만원 실투자 4억2천3백만원 준공년 2010년 8월 ★ 매물특징 ★

<태양광발전시설 희소식> 전국임야소유주님! 임야 소유하고 계신 임야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시면 임야는 잡종지로 지목변경되어 높은 지가 상승을 가져다 줍니다. 2015년부터는 지상(땅)5대지목에 발전시설을 하어도 120%를 가산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건축물 RPS 사용하고 계신 건물·주택·창고·축사·공장·지붕에 설치하면 150%를 가산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DC 2-5V생산으로 인체에는 전혀 감지가 안되고 무제한 미세전류입니다. (설치자금 부족시 용자 알선에 드립니다) 주택 <에너지관리공단 주체 대역사업> 가정용 주택에 무상설치해 드립니다. 매월 350kw이상 월 전기료 7만원 이상 내시는 가정에는 무상설치 이후 월 6만9천원씩 7년간 납부하시는 제도. 7년 후 소비자에게 증여 (신축건물 한정) 경기도 평택시 칠곡동 588-2 010-3891-1724

부동산 임대 소재지: 인천 서구 경서동 363-199 임대구역: 인천 서부산업공단, 내(16블록 14롯트) 임대평수: 500평 (각 100평씩 가능함), 임대가격협의함 임대용도: 제조업,파견물류업 연락처 032-561-4121 부동산 매각 소재지: 서울 구로구 구로동 614-4,614-5, 614-129번지 지역: 구로동 공구상가 뒤 매각평수: 430평, 가격협의함 (현재부동산 임대중임) 지주집적매각 010-5582-4121

최후배당 제척기간 공고 사 건 2003회합4 파산선고 채 무 자 주식회사 서해조선 인천 동구 만석동 2-122 파산관재인 변호사 이덕모 주 문 최후배당에 관한 제척기간을 2014. 11. 28. 까지로 정한다. 이 유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년 11월 7일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파 산 부 재판장 판사 신 광 렬 판사 김 병 진 판사 하 세 용



내년 프로야구 1군에 진출하는 수원 kt위즈의 홈구장인 수원 kt위즈파크가 오는 12월 17일 준공식을 갖는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인 kt위즈파크는 99.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 팬과 거리 좁힌 구장, MLB 부럽지 않다

## 내달 17일 준공식 앞둔 '수원 kt위즈파크' 가보니

**kt wiz**  
수원

'수원kt위즈 파크 위 용을 드러내다'. 11일 오전 수원 kt위즈파크를 찾았다. 경기장 안에는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었다. 경기장 외관 공정률은 99.9%였지만 아직 그라운드 공사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중이다. 외야석에 올라서자 천연잔디가 깔려있는 경기장이 한 눈에 들어왔다. 위즈파크의 외야석은 잔디가 깔려있는 계단식이다. kt 관계자는 "외야에서 경기를 볼때 앞사람에게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설계돼 외야에서

도 경기를 재밌게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외야의 또다른 특징은 한국 야구장 최초로 설치된 스포츠펍(Pub)이다. 외야석 중앙에 위치해 있는 이 곳에서 실내에서 펍을 즐기면서도 경기를 조망할 수도도록 했다. 스포츠펍은 일종의 실내 주점으로 관중들은 이곳에서 가벼운 맥주를 마시면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1루 더그아웃에서 바라본 경기장은 아직까지 파울 라인 바깥쪽과 펜스 공사가 이어졌다. 하지만 선수들을 보다 가까워서 볼 수 있는 익사iting 존이 총 486석 마련됐고, 그라운드 좌·우측엔 kt위즈 조별편 감독이

## 파울펜스 두편 익사iting존 조성

## 외야 관람석 시야 방해도 개선

## 첫 설치실내주점 스포츠펍 눈길

직접 요청한 불펜이 눈에 띄었다. 위즈파크는 후편 관람석도 특징이다. 경기가 가장 잘 보이는 이 곳은 보통 기록실, 전광판실, 심판실 등이 위치해 있었지만 위즈파크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야구장처럼 팬들이 경기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조명은 플라즈마 라이트 시스템으로 눈부심을 최소화해 선수들이 야간 경기를 치

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었다. 총합은 동장내 1천129개의 주차면도 360면을 추가 증설해 내년엔 있을 주차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에서 2차 마무리 훈련에 열중하고 있는 kt 선수단은 11월27일 제주에서 복귀할 예정이며 12월초 위즈파크에서 국내 자율훈련을 계획중이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선수단이 들어오는 12월1일 끝날 예정이며 그라운드는 12월6일 마무리 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 리모델링 공사는 거의 다 완성됐다"면서 "12월17일 준공식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 OK저축은행 유니폼 디자인 공모

2014~2015 V리그 1라운드에서 5승1패로 창단 후 첫 1위에 오른 안산 OK저축은행 행리스앤캐시 프로배구단이 유니폼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모전에는 디자인을 전공하는 전국 대학생과 디자인 관련 종사자는 물론 일반인

도 참여할 수 있다. 응모 마감일은 12월 15일이다. 총상금은 3천400만원이며 일반인 부문 대상에 1천만원, 학생 부문 대상에 500만원의 상금을 각각 준다. 응모 방법 등은 배구단 홈페이지(www.oksavingsbankkrush-nca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 부천 하나외환 용병 해리스 영입

여자프로농구 부천 하나외환이 외국인 선수 엠버 해리스(26·194cm)를 영입했다. 하나외환은 전체 1순위 외국인 선수인 엘리사 토마스(22·185cm)가 지난 8일 구리 KDB생명과의 경기 도중 오른쪽 발목을 다쳐 전지 3주 진단을 받음에 따라 해리스를

약 1개월간 대체 선수로 기용하기로 했다. 해리스는 2012~2013 용인 삼성에서 뛰었으며 당시 평균 20점, 11.2리바운드의 성적을 냈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 KDB생명 동주여고 안혜지 1순위 지명

## 여자농구연맹 신인선수 선발회



여자 프로농구 구리 KDB생명이 포인트가드 안혜지(17·동주여고)를 지명했다. KDB생명은 11일 서울 여의도동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5년 여자농구연맹 신인선수 선발회에서 1라운드 1순위 안혜지를 선택했다. 163cm의 단신인 안혜지는 예리한 패스,



11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5년 여자농구 신인선수 선발회에서 전체 1순위로 구리 KDB생명에 지명된 안혜지(부산 동주여고)가 안혜지 감독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BL

## 국내 여고 최고 포인트가드 평가

## 세계·야 선수권 청소년대표 활약

## 신한銀 김연희·삼성 황승미 뽑아

안정된 드리블, 탁월한 공간 감각을 자랑하는 국내 여고 최고 포인트가드로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안혜지는 올해 17세 이하 세계선수권대회, 18세 이하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청소년 대표로 활약했다. 안혜지 KDB생명 감독은 "농구는 신장이 아니라 심장으로 한다. 안혜지가 키가 작지만 돌파력과 담력이 일품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다음달 5일부터 시작되는 올 시즌 3라운드에 곧바로 안혜지를 기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순위의 영예는 '특점기계'로 명성을 떨친 전지 3주 선발회 출신인 김진영(18·송의여

고)이 청구 국민은행으로부터 지명을 받았고, 부천 하나외환은 키 183cm의 골밑 요원인 이하은(18·성남 분당경영고)을 선택했다. 이하은은 큰 키에 스피드와 기술을 겸비한 포워드 겸 센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 신한은행은 3순위로 센터 김연희(선일여고), 용인 삼성은 4순위로 센터 황승미(청주여고)를 각각 골랐다. 1라운드 마지막 지명권을 획득한 춘천 우리은행은 과거 트레이드 계약에 따라 지명권을 KDB생명에 양도했다. KDB생명은 포워드 홍소리(수원여고)를 뽑았다. 이날 신인 선발회에선 지원자 22명 가운데 13명이 입단에 성공했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 창단 5년만에 불링 명문고 우뚝

## 화제의 팀 | 전국체전 금4·은1·동1 양주 백석고 불링부

양주 백석고 불링부가 제95회 전국체전에서 창단 5년만에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불링 명문고로 떠올랐다. 경기도 대표로 이번 체전에 참가한 백석고 불링부는 금 4개와 은 1개, 동 1개를 획득했다. | 사진 장련경(3년)과 김수경(2년)은 여자 5인조전에서 합작으로 금메달을 따냈고, 장련경은 2인조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해 2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김정태(2년)는 남자 3인조와 2인조전에서 각각 금·은메달을, 김지호(2년)는 남자 2인조전에서 동메달을 각각 목에 걸었다. 특히 지난 2010년에 창단한 백석고 불링부는 역대 체전 출전 사상 최고의 성적을 올리는 등 국내 불링의 신예 명문고임을 다시



한번 입증시켰다. 최영하 감독은 "물심 양면으로 지원해 준 학교와 양주시, 양주시의회 덕분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번 성적을 바탕으로 내년 강원체전에서도 선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남한 노총각과 북한 꽃미녀의 예측불허 결혼일기

# 남남 남남 南男

# 북북 북녀 北女

매주 금요일 밤 11시

박수홍

양준혁

박수애

김은아

애정통일!

양은 커를

# 11월 11일, 1·1·1·1 역사를 쓰다

<2011> <2012> <2013> <2014>



11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6차전 넥센 히어로즈-삼성 라이온즈 경기. 11대1로 우승한 삼성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 ‘한국시리즈 제패’ 삼성, 프로야구 첫 4년 연속 통합우승

홈런 등 불붙은 타선 11점 뽑아

넥센 큰경기 경험부족 준우승

삼성 라이온즈가 한국 프로야구 사상 첫 4년 연속 통합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삼성은 11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한국시리즈(7전 4선승제) 6차전에서 넥센 히어로즈를

11-1로 꺾었다. 2차전과 3차전에서 승리한 뒤 전날 5차전에서 9회말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던 삼성은 이날 승리로 시리즈 전적 4승2패를 마크하며 한국시리즈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로써 삼성은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처음으로 4년 연속 통합 우승이라는 위업을 달

성했다. 반면 창단후 처음으로 한국시리즈에 진출한 넥센은 큰 무대에서 경기 부진을 드러내며 아쉽게 준우승에 만족해야만 했다. 삼성의 선발 투수 윤성환은 6이닝동안 89개의 공을 던지며 1실점으로 완벽에 가까운 투구를 펼쳤다. 윤성환은 안타는 3개만

을 허용했고 삼진 4개를 걸었다. 반면 넥센 선발 오재영은 2.1이닝동안 60개의 공을 던지며 볼넷 2개와 4실점(3자책)으로 무너졌다. 이날 경기에서 삼성은 그동안 침체됐던 타선이 폭발하며 승기를 잡았다. 최형우와 채태인이 각각 2타점을 만들어냈고 삼성 나

바로는 6회 왼쪽 담장을 넘기는 3점 홈런을 포함, 5타점을 때려내며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넥센은 선발 투수 오재영의 실책과 더불어 유한준, 박병호, 강정호가 부진하며 득점 찬스에서 번번이 점수를 내지 못하며 무너졌다.

/이원근기자 hwg33@kyeongin.com

## 경기도생활체육회 지도자

### 응급처치법 일반과정 수료

경기도 생활체육회 지도자들이 ‘생활체육 지도자 응급처치법 일반과정 교육’을 수료했다.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고 경기도생활체육회(회장·이원성)가 주관하는 이 교육 과정은 수원 경기도체육회관에서 10~11일 이틀간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만났을 때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 상처·골절 처치 등 다양한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또 수업에 참여한 지도자들은 12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해 대한적십자사의 응급처치 수료증을 받게 됐다.

/이원근기자 hwg33@kyeongin.com

## | 스포츠 로그아웃 |

### 정현 ATP챌린저단식 2회전 진출

정현(180위·수원 삼일공고)이 남자프로테니스(ATP) 게이오 챌린저대회(총상금 5만 달러) 단식 2회전에 올랐다. 정현은 11일 일본 요코하미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단식 본선 1회전에서 세키구치 슈이치(459위·일본)를 2-0(6-0 6-0)으로 완파했다.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복식 금메달리스트 정현은 조던 톱스(270위·호주)와 8강 진출을 다룬다.

### 창단 20돌 수원삼성 명예기자 모집

내년 시즌 창단 20주년을 맞는 수원삼성 이 12일부터 2015 블루윙스미디어 명예기자단을 모집한다. 취재와 중계, 그리고 디자인 등 3개 분야에서 활동할 명예기자단은 내년 시즌 팬들과 구단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블루윙스미디어는 지난해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구단 홈페이지와 SNS의 각종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세부 사항은 구단 홈페이지(www.bluewings.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집 마감은 21일 까이다. /이원근기자 hwg33@kyeongin.com

# 경기대 씨름을 두번째 모래판 포효

## 회장기이어 3년만에 최강전 정상

‘대학씨름 최강팀’ 경기대가 2014 전국 대학장사씨름 최강전에서 3년만에 정상에 올랐다.

김준태 부장, 홍상태 감독이 이끄는 경기대는 11일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단체전 결승전(7전4선승제)에서 경남대를 전전끝에 4-3으로 물리쳤다. 1 사진 이로써 경기대는 지난 2011년 대회 우승 이후 3년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올해는 회장기대회 우승에 이어 2번째 대회를 석권했다.

반면, 지난 대회 우승팀 경남대는 2연패를 노렸지만 막판 위기를 넘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경기대는 매번 결승 문턱에서 좌절을 맞



봤지만 이번 대회만큼은 달랐다.

8강에서 울산대를, 4강에서 용인대를 차례로 누른 경기대는 결승에서 작년 우승팀

경남대를 만났다.

경기대는 첫째판(경장급·75kg이하)에서 박권익이 잡채기와 발다리로 상대 박종길

을 가법계 제압했지만, 둘째판(소장급·80kg이하)에서 양진영이 경남대 이만수에 1-2로 저 동점을 허용했다.

경기대는 셋째판(정장급·85kg이하)에서 이정훈이 안다리와 들배지기로 상대 김원호를 무너트린 뒤 넷째판(용장급·90kg이하)에서도 김기선이 밀어치기와 판독승으로 이태형을 제압, 3-1로 점수차를 벌려 승기를 잡는 듯했지만, 다섯째판(용사급·95kg이하)과 여섯째판(역사급·110kg이하)에서 박준욱과 남성운이 잇따라 상대에게 저 3-3 동점을 허용,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경기대는 장사급(150kg 이하)의 임진원이 있었다. 임진원은 경남대 강규식을 상대로 밀어치기로 잇따라 상대를 모래판에 눕혀 우승의 마침표를 찍었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 여자핸드볼 최강 인천시청

### 드래프트 1R 송지는 선택

한국 여자핸드볼 전국 최강의 실력을 자랑하는 인천시청이 2015 여자 실업핸드볼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송지은(의정부 여고)을 선택했다.

인천시청은 11일 서울 송파구 SK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린 드래프트 행사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김성은(인천비즈니스고)은 2라운드에서 연고팀인 인천시청의 부름을 받았다. 또 인천 고교 선수 중에는 강경민(인천비즈니스고)이 전체 2순위로 광주도 시공사의 지명을 받았고, 송지영(인천비즈니스고)은 서울시청에 동지를 들었다. 올해 고교 경기에서 평균 12.7골을 넣은 기대주 최지현(인천여고)도 부산시청관리공단에 지명됐다. 여자핸드볼 간판스타인 ‘류은희’(인천시청)를 잇는 재목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박준희(천안공고)는 전체 1순위로 부산시청관리공단 유니폼을 입게 됐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 MLB 낮은 포스팅 금액에 김광현 ‘고민’

### SK 와이번스 결정 따르기로



‘자존심이나, 꿈의 무대나.’ 프로야구 인선 SK와 이번스 ‘에이스’ 김광현(26)의 미국 메이저리그(MLB) 도전이 시작부터 커다란 암초를 만났다. SK는 김광현 영입을 희망한 MLB 구단의 포스팅 최고 금액이 기대보다 낮아 크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오늘(11일) 오전 미국 메이저리그 사무국으로부터 김광현에 대한 포스팅 결과(최고 응찰액, 구단 미동보)를 전달받고 이를 소속 구단인 SK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SK는 이날 포스팅 금액을 확인한 뒤 임원진 등이 회의를 가졌지만 기대보다 낮은

포스팅 금액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메이저리그 진출을 간절히 희망했던 김광현은 포스팅 금액을 통보받은 뒤 이렇다할 입찰 없이 구단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SK는 14일 오후 6시까지 포스팅 금액을 수용할지 말지를 정해 KBO에 통보하게 된다. 포스팅 시스템은 MLB 구단이 비공개 입찰을 거쳐 교섭권을 얻는 제도로 김광현에게 리브콜을 보낸 구단이 어디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SK는 단지 포스팅 최고 응찰액을 통보받아 합당한 대우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SK가 응찰액을 수용하면 김광현은 교섭권을 얻은 해당 구단과 한 달 동안 연봉 협상에 들어간다.

SK 관계자는 “오늘중으로 입장을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 현대건설, KGC인삼공사에 ‘홈패배 설욕’ 2위로

### 세트 3-0승... 폴리 맹활약



수원 현대건설이 대전 KGC인삼공사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시즌 첫 대결에서 당한 패배를 설욕했다.

현대건설은 11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2014~2015 NH농협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원정경기에서 인삼공사를 세트스코어 3-0(28-26 25-18 25-20)으로 물리쳤다. 현대건설은 지난 2일 수원에서 치른 홈경기에서 인삼공사에 1-3으로 졌지만 이날 깨끗하게 설욕하며 2라운드를 기분 좋게 시작했다.

1라운드에서 여자부 최우수선수(MVP)로 뽑힌 현대건설 폴리는 이날 60%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며 26득점을 올려 팀의 승리를 도왔다.

이날 승리로 현대건설은 4승2패 승점 11

을 기록해 선두 흥국생명(4승1패)과 승점은 같지만 세트득실률에서 밀려 2위에 위치했다.

현대건설은 첫 세트에서 26-26 듀스 상황에서 인삼공사 조이스의 실책과 양효진의 블로킹으로 28점을 선점하며 1세트를 따냈다. 분위기를 가져온 현대건설은 2세트에서도 선전했다.

폴리가 9점, 양효진이 6점을 올렸고 김세영의 블로킹도 가세, 2세트도 가져왔다. 승기를 잡은 현대건설은 3세트에서도 전의를 잃은 인삼공사를 향해 8점차까지 벌리며 승리했다.

/이원근기자 hwg33@kyeongin.com

## OK저축은행 시몬·현대건설 폴리 1R MVP 선정

안산 OK저축은행 시몬과 수원 현대건설 폴리 1라운드 최우수선수(MVP)에 선

정됐다. 한국배구연맹은 11일 NH농협 2014~2015 V리그 1라운드 MVP 기자단 투

표에서 안산 OK저축은행 시몬이 2표 중 총 26표를 얻어 MVP에 뽑혔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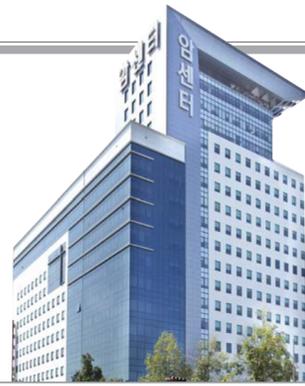
지난해 1라운드 MVP였던 삼성화재 레오와 지난해 신인상을 받은 전광민은 각각 1표씩을 받았다. /이원근기자 hwg33@kyeongin.com

### 인천지역암센터와 함께 알아보는 **비만과 암**

>상< 대장암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다. 고혈압과 당뇨는 물론 각종 암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대장암과 유방암은 비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돼 있다. 인천의 비만율은 25.8%로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다. 이렇게 비만율은 높은 반면 인천 시민들의 국가암검진 수검률은 전국 평균 36.83%에도 못 미치는 35.6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인일보는 인천 시민들의 암 예방과 치료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인천지역암센터와 함께 2차례에 걸쳐 비만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대장암과 유방암에 대해 알아보고 예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점점 불러오는 배 슬슬 다가오는 암

동물성지방 과다 섭취·운동부족 등 원인  
복부 비만일때 발생 위험 1.5~3.7배 증가  
증세 놓치기쉬워 검진 통한 조기발견 중요  
금연·금주 등 생활습관 개선시 예방 가능

그라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라아트

■ 비만 환자의 경계대상 1호 대장암  
최근 70대 노인이 부풀어 오른 배를 움켜 쥐고 기천대 길병원 인천지역암센터 백정흠 교수를 찾아왔다. 가족의 부족을 받아야 할 만큼 상태가 심각했는데, 환자는 수개월 전부터 변비가 심해지고 항문에서 피가 나왔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약국에서 산 약만 복용해 왔다고 했다. 시간이 지나자 배 통증이 더 심해졌고 복부가 점점 부풀어 오르더니 참을 수 없을 만큼의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은 것이다. 환자는 폐쇄성 허부 직장암으로 진단받았고 곧바로 응급 수술을 진행했다.

인 건강진단을 받아 조기에 이런 것들을 발견했다더라면 간단한 수술을 통해 완치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대장암의 주요 원인은 포화 지방산인 동물성 지방의 과다 섭취와 과도한 열량 섭취, 운동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육류 중에서도 붉은색을 띤 고기를 많이 먹으면 간에서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이 많이 분비되는데, 대장 내 세균들이 담즙산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독성대사산물을 만들고 이것이 대장세포를 파괴시켜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복부 비만일 경우 대장암 발생 위험이 1.5~3.7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대장암의 약 5%는 유전성으로 분류되며 15%는

가족력을 갖는다. 또한 직계 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있는 경우 발생 위험도는 2~8배 증가한다.  
■ 대장암 증상과 치료  
대장암은 위와 같은 상부 소화기관과 달리 증세가 늦게 나타나며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단순 변비나 치질로 오인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우선 조기(1~2기)에 발견해 수술만 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에는 절개를 하지 않고 배에 작은 구멍을 내어 수술하는 복강경 대장암 수술도 보편화되고 있다. 복벽이나 방광, 요관 등 주변 장기로 전이되지 않은 경우 복강경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수술은 환자의 빠른 회복은 물론 통증의 감소, 수술 후 입원기간 단축, 큰 흉터를 예방하는 미용적 효과 등 일석이조의 장점이 있다.  
대장암은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병이다. 금연과 금주,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해 대장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예방법이다.  
대장암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은 만 50세 이상이면 1년 간격으로 분변잠혈검사를 하고,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김명희기자 boq79@kyeongin.com

### 1 아침식사는 '반드시' 2 영양소 섭취도 도움 3 당분·카페인 피해야 4 배 조금 고프 상태로

#### 수능 당일 최상의 컨디션 유지 4가지 건강정보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남았다. 수험생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학습내용을 총정리하는 것보다 내일 수능시험장에서 최고의 지적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수능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4가지 건강정보를 전한다.  
첫째, 수능 당일 아침식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아침식사는 위장을 보호하며 수능의 언어영역이 시작되는 오전시간에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과식과 탄수화물에 편중된 식사는 도리어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등 집중력을 깨는 '독'이 된다. 단백질은 비롯한 각종 영양소가 고르게 함유된 식사를 추천한다. 식사는 평소 즐겨 먹는 식단으로 하며 밤이 부담스럽다면 소화기 빠른 죽이 좋다.  
둘째, 두뇌 회전과 집중력을 높이는 영양소가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뇌에 좋은 영양소로는 레시틴, 비타민 B군 등이 있으며 레시틴은 우유, 달걀, 두부, 호두, 땅 등에 많이 들어있다. 비타민 B군은 소고기, 돼지고기, 콩, 잡곡, 현미 등에 풍부하다. 또 시험을 앞둔 불안한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칼

슘은 우유나 멸치 등에 많이 포함돼 있다. 스트레스 해소에는 비타민C가 많이 든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 9시간 동안 시험지와 맞서야 하는 수험생들의 눈 건강을 위해 비타민A가 풍부한 당근, 케일 등 녹황색 채소를 섭취하자. 결명자, 구기자차도 눈의 피로 회복에 효과가 좋다.  
셋째, 과도한 당분, 카페인 등 인스턴트 식품 섭취를 피하길 바란다. 과도한 당분은 신경과민 및 스트레스를 일으킨다. 특히 인공첨가물은 뇌 기능을 떨어뜨린다. 커피, 홍차, 콜라 등 카페인이 많이 든 음식은 뇌 중추 신경을 교란시키므로 시험 당일 음료 섭취시 과일주스 또는 카페인이 없는 차류를 마시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 식사를 가볍게 하는 것이 좋다. 배가 조금 고프게 할 때 대뇌피질을 자극해 뇌세포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학습이나 기억,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포만감이 들 정도의 식사를 피하고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먹는 것이 좋은 방지와 시험 당일 컨디션에 큰 도움이 된다.  
다음날/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은총기자 yooec86@kyeongin.com

### "20~30대 몸무게 폭증, 혈관질환 위험성 높여" 분당서울대병원 임수 교수·영양학자 세계 첫 입증



교수와 영구 클레그스우 심혈관센터 사타 교수 연구진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를 내원한 1천724명의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20대 때의 체중, 일생 최대 체중 및 당시 나이, 당뇨병 진단 당시 체중과 나이를 조사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연구결과 20세 때 체중이 많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그 증가속도가 빠를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졌다.  
20세 때 체중 증가속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눈 보면 1년에 1.3kg씩 증가해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그룹에서는 50% 이상 관상동맥이 좁아진 유병률이 14.4%로, 증가

속도가 가장 느린 그룹(1년에 0.15kg씩 증가)의 9.5%보다 높았다. 또 같은 조건에서 두 개 이상의 심혈관질환을 침범한 경우도 10.2%와 4.7%로 큰 차이를 보였다.  
심혈관질환 발생과 직결되는 동맥경화반은 체중 증가속도가 빠른 사람의 24.3%에서 동맥경화성 플라크(찌꺼기)가 존재한 반면, 체중 증가속도가 느린 사람의 경우는 14.9%로 10%포인트의 큰 차이를 나타냈다.  
임수 교수는 "특정 시기의 체중 증가속도가 당뇨병 진단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세계최초로 입증한 결과"라며 "청소년시기부터 고지방, 고칼로리로 대표되는 서구화 식습관을 줄이고, 신체 활동량을 증가시켜 20~30대에 체중이 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당뇨병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임상당뇨병학회(Diabetes Care) 2014년 최근호에 게재됐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siggie@kyeongin.com

**www.꽃다지.com**

소중한 내 가족을 위한 건강선물

지리산 흰민들레 동충개진액

술자리가 많으세요? 이유없이 피곤하세요?  
365일 간(肝)건강 든든하게!

햇개나무 효능

순채해소, 구취제거 및 간해독, 변비에 도움  
오장을 조화롭게 유지하고 치질에 도움  
알콜중독, 지방간, 황달, 간경화에 도움

창립10주년 한정판매  
2BOX 가격 22만원에 3BOX 드립니다!  
\* 상품 수령 후 상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100% 교환해드립니다.

지리산 흰민들레 햇개진액

주문 문의 서울 02) 508-2800  
경기 031) 613-2801  
입금계좌 : 하나 139-910182-96707 (예금주:이택찬)

# 가장 완벽한 '겨울나그네'가 온다



마크 패드모어(오른쪽)와 피아니스트 폴 루이스

사진/ Marco Borggreve

## '감성테너' 마크 패드모어, 리사이틀 내달 11일 고양아람누리

슈베르트곡 유명 반주자와 호흡

청아한 발성, 우아한 음색, 탁월한 해석으로 전 세계 성악 무대에서 환영받는 감성테너 마크 패드모어(Mark Padmore)가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내 첫 가곡 리사이틀을 선보인다.

마크 패드모어는 클라리넷을 전공하다가 뒤늦게 성악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영국 합창음악의 자존심으로 일컬어지는 '더 식스틴(The Sixteen)'의 일원으로 르네상스 합창음악을 하던 그는, 바로크 음악의 거장 윌리엄 크리스티에 의해 라모의 오페라 '이폴리이트와 아르시에'(Hippolyte

et Arcie)의 주역으로 전격 발탁돼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바로크 오페라와 종교음악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바흐 칸타타의 빼어난 복음사가로, 라모의 음악비극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유연하고 스타일리시한 오토코트르(하이테너)로, 헨델 오페라와 오라토리오에서는 언제나 좋은 취향을 보여주는 이상적인 해석자로 평가받으며 오늘날 최고의 에반젤리스트(복음사가) 자리에 올랐다.

그는 지난 2008년, 계몽시대 오케스트라와 함께 한 첫 내한 무대에서 바흐의 '요한 수난곡'을 노래해, 현존하는 최고의 에반젤리스트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이번 첫 단독 공연에서는 슈베르트 연가곡 '겨울 나그네( Op.89, D.9110)'를 들려준다. 이 작품은 모두 24곡의 노래로 이뤄졌으며, 이중 다섯번째 곡인 '보리수'는 우리 음악 교과서에 실려있어 특히 친숙하다.

반주자로 한 무대에 서는 피아니스트 폴 루이스는 2010년 그라모폰 베스트 솔로 보컬상 등 세계 주요 음반상을 휩쓴 명반 '겨울 나그네'의 파트너로, 그 역시 최고의 슈베르트 해석자로 정평이 나있다.

'테너 마크 패드모어 리사이틀'은 12월 11일 오후 8시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하이든홀)에서 열린다.

티켓 R석 8만원, S6만원, A 4만원, B 2만원. 문의:1577-7766/ www.artgy.or.kr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 경기문화재단 4본부체제 조직 개편

내년부터 산하 8개 기관장 선발 공모제로 변경

경기문화재단이 연말 현재의 사무처를 폐지하고 본부체제로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의 한 관계자는 11일 "지난 2012년부터 재단 내부에서 조직재편이 논의됐다"며 "최근 사무처 중심의 단선적 체제를 4본부체제로 전환해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 조직개편 보고서가 작성돼 경영진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직개편 보고서에는 문예창작센터 및

문예진흥사업을 담당하는 '문예진흥본부', 재단문화사업 경영을 담당하는 '경영지원본부', 재단 소속 박물관과 미술관을 통합운영하는 '뮤지엄 운영본부', 현 경기문화재단연구원의 기능을 수행할 '문화유산본부' 등 4개 본부를 신설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창희 재단 대표이사는 최근 "현재의 재단 조직을 개편해 창의력을 발휘하고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본부체제로 교체할 필

요성이 있다"고 조직 개편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기문화재단은 또 내년부터 경기도박물관을 비롯한 재단 산하 8개 기관장에 대해 현재의 대표 임명제를 공모제로 바꿔 기관장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재직 중인 8개 기관장 중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은 경기도미술관장을 비롯해 5명이며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의 경우 현재 단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재단은 내외부 인사 17명으로 구성된 '경기개발 발전 TF팀'을 만들어 11월부터 공식활동에 들어갔다. TF팀은 재단사업 혁신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유은총기자 yooec86@kyeongin.com

# 김탄사 절로나는 **역척가**

1인 15역·해외 호평·논문 발표... 14·15일 하남문화회관 무대

젊은 소리꾼 이자람의 '역척가'가 오는 14일 오후 8시, 15일 오후 7시 이틀간 하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김탄사 무대에 오른다.

이자람이 독일의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희곡 '사천의 선인'을 판소리로 각색해 2011년 초연한 '역척가'는 한국뿐 아니라 프랑스, 브라질, 우루과이, 루마니아 등에서 호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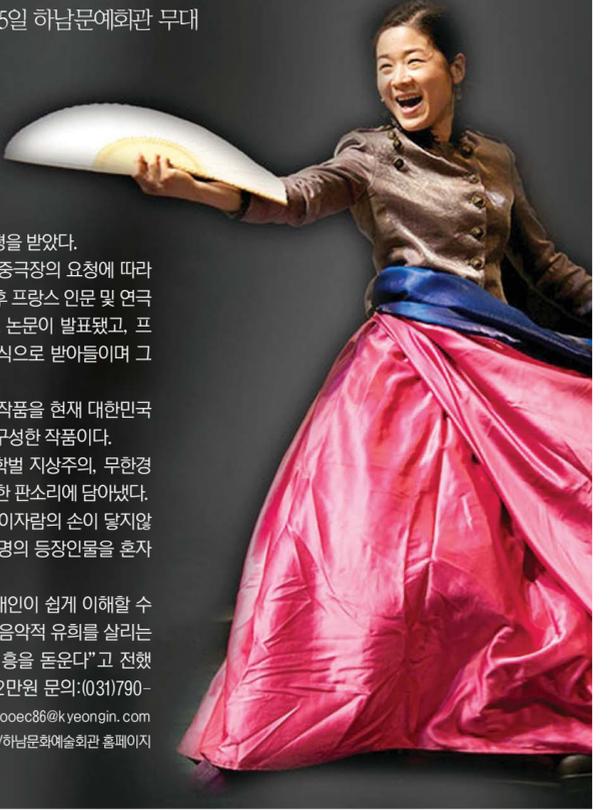
지난해 프랑스 초연 이후에는 프랑스 국립민중극장의 요청에 따라 지난 5월 재방문해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후 프랑스 언론 및 연극 학계에 반향을 일으키며 '사천가'와 '역척가'로 논문이 발표됐고, 프랑스 공연계에서는 판소리를 새로운 극작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며 그녀와의 협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판소리 '역척가'는 브레히트가 1943년에 쓴 작품을 현재 대한민국 사천시에 사는 똥뚱한 처녀 순덕의 이야기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외모 지상주의, 학벌 지상주의, 무한 경쟁 등 사회적 병폐를 풍자와 해학이 흐르는 경쾌한 판소리에 담아냈다.

'역척가'는 작품의 대본에서 작창, 연기까지 이자람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아울러 주인공 순덕을 비롯한 15명의 등장인물을 혼자 소화하며 공연을 진행한다.

공연 관계자는 "역척가는 전통 판소리를 현대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내면서도 판소리가 갖고 있는 음악적 유희를 살리는 동시에 다채로운 리듬악기를 사용해 관객들의 흥을 돋운다"고 전했다. 가격:R석 4만원, S석 3만5천원, A석(2층) 2만원 문의:(031)790-7979 /유은총기자 yooec86@kyeongin.com



소리꾼 이자람 이미지 출처/하남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 가을밤, 가곡·아리아 낭만속으로

새얼문화재단 21일 무료초청 공연... 국악인 오정해등 출연

새얼문화재단이 오는 2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31회 새얼 가곡과 아리아의 밤' 공연을 갖는다.

이경구 인천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가 지휘자로 나서며 성악가 이강호와 양송미, 류정필, 오미선, 김동규와 국악인 오정해가 함께 이번 무대에 선다.

새얼 가곡과 아리아의 밤은 1984년 1회 음악회를 개최한 이래 매년 인천시민을 감동시키는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공연 1부 첫 무대는 바리톤 이강호의 '산촌'과 '나는 이 거리의 일인자'로 시작한다.

이어 메조소프라노 양송미가 '가고파'와

'하버네라'를, 테너 류정필은 '박연폭포'와 '그라나다'를 연주한다.

인천 출신으로 국제 무대를 누비는 소프라노 오미선이 '아리 아리랑'과 '주여 평화를 주소서'를 열창하며 1부 공연 마지막 순서로 오미선과 양송미, 류정필, 이강호가 4중창 '오 나의 태양'을 선보인다.

2부는 성악가와 국악인의 만남으로 꾸며지는 순서다. 먼저 바리톤 김동규가 오페라 카르멘의 '투우사의 노래'와 '후회 없는 인생'으로 무대를 연다.

서편제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오정해는 '진도아리랑'과 '너영나영'을 선보이며 오정해와 김동규 인천연합창단이 '홀로 아



오정해

김동규

리랑'을 함께 연주한다.

이번 공연의 백미는 단연 합창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시립합창단과 인천연합창단은 '영광의 탈출'과 '경복궁 타령'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새얼 가곡과 아리아의 밤은 새얼문화재단 후원회원을 대상으로 한 무료초청 공연이다. 21일 오후 7시 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문의:(032)885-3611~4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www.tbroad.com

1 t-broad

티브로드가 세계최초로 개발한 HTML5 기반 새로운 **스마트TV**를 **천원에 만나보세요!**

월 1,000원이면 우리집 TV가 스마트 TV로 변신합니다.

**스마트TV의 스마트한 기능**

- 음성인식 & 모션포인팅 리모콘
- TV속 인터넷 검색
- 다양한 TV앱
- TV속 SNS

1877-7000 NAVER 티브로드 검색

# 조선왕실 화려한 예복... 장인들의 숨겨진 이야기

## 영화 '상의원' 내달 개봉

오는 12월 개봉을 앞둔 영화 '상의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사극처럼 역사적 위인의 등장이나 정치적 암투가 아닌 조선왕실의 궁중의상을 담당하던 '상의원' 장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개봉 전부터 관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관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기관인 '상의원'에 대한 정보를 소개한다.

### 역사적 고증 현대적 세련미 가미

### 명품 출연진에 흥행 감독 시너지

### 신선한 소재 완성도 높아 기대감

#### ■ '상의원'

국내 최초로 영화의 소재가 된 '상의원'은 조선시대 왕실의 의복과 재화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왕실의 보물창고로 불리던 곳이다. 6명의 관료와 600명에 달하는 장인들이 오직 왕실을 위한 의복을 제작하던 장소다. 이곳은 왕이 입었던 용포를 비롯해 왕실가족이 입는 궁중예복의 금사, 은사에서 시작해 비단을 염색해 재단에 이르는 전 과정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또 우리에게 천재과학자로 알려진 장영실도 상의원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친민과 왕이 직접 대면할 수 있던 유일한 공간이다.

#### ■ 화려한 '궁중의상'

영화 '상의원'이 관객들로부터 주목받는 이유는 아름답고 화려한 궁중의상의 향연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에서 등장하는 궁중복식은 역사적 고증을 기반으로 제작된 전통의상에 현대적인 세련미를 가미해 만들어졌다.

전통 염색 기법을 통해 오감의 고운 빛갈



왕실 최고 어침장 '돌석' 한석규

과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수놓은 명품 궁중예복을 만나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영화에는 영화 '후궁'에서 의상을 담당했던 조상경 의상 디자이너와 영화 '방자전'에서 의상과 어울리는 소품을 배제한 유청 소품 디자이너가 합류해 스크린에 왕실의 옷장을 그대로 옮겨 놓을 것으로 보인다.

#### ■ 명품 출연진과 흥행 제작진의 만남

영화 '상의원'은 연기력으로 다져진 명



돌석과 의상대결을 펼치는 '공진' 고수

품출연진이 만든 작품이다. SBS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와 '비밀의 문: 의궤살인사건'에서 명연기를 선보였던 한석규가 왕실 최고 어침장 '돌석'을 연기한다. 또 돌석과 의상대결을 펼치는 젊은 의상디자이너 '공진'역에 젊은 연기파 배우 고수가 분한다.

20대에 어울리지 않는 조숙한 연기로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박신혜가 사랑에 목마른 '중진'을 연기한다. 박신혜와 함께 상의원의 이야기를 함께 이끄는



완벽한 사랑을 꿈꾸는 '왕' 유연석

인물인 왕 역할에 tvN드라마 '응답하라 1994'로 대세 배우 대열에 오른 유연석이 출연한다.

각기 다른 매력과 갖고 있는 배우들과 함께 흥행작을 제작했던 연출진과 촬영팀이 합류하며 영화의 높은 완성도를 선보일 예정이다.

'추격자', '음란사생'의 제작자였던 (주)영화사 비단길에 참여하고, 영화 '라스트 스탠드'로 할리우드에 진출한 김지용 촬영



사랑에 목마른 '중진' 박신혜

감독이 합세했다. 또 '수상한 그녀'의 조규영 조영 감독과 채경선 미술 감독 등 이름만으로도 이목을 집중시키는 스태프들이 이번 영화에 참여했다.

영화 '상의원'은 그동안 볼 수 없던 새로운 소재와 명품 출연진과 베테랑 제작진이 손을 잡고면서 완성도 높은 작품을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유은총기자 yooec86@kyeongin.com

사진/주영화사 비단길 제공

## 울랄라세션 정규 두번째 타이틀

## 발라드 '지금 우리는 사람들' 공개

울랄라세션이 정규 1집 앨범 공개에 앞서 이번 앨범의 두번째 타이틀곡 '지금 우리는 사람들'이라는 발라드 곡을 지난 11일 선공개했다.

선공개 곡 '지금 우리는 사람들'은 자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노랫말을 통해 자신들처럼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 있다.

울랄라세션 멤버들은 선공개 된 노래에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된 슬픔의 씨앗을 진정한 사랑과 희망이 담긴 노래로 승화시켰다.

울랄라세션은 '지금 우리는 사람들'을 공개하며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별 앞에서 눈물짓는 것 밖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슬픈 시간을 견고 있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 4분 25초의 짧은 노래가 부디 긴 여운과 사랑으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매번 최고의 퍼포먼스로 관객들을 만났던 울랄라세션은 이번 선공개 곡을 시작으로 오는 19일에 정규 1집 '리조이스'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유은총기자 yooec86@kyeongin.com

신간각 인터리어로  
새롭게 태어난 수림공원 웨딩홀

## 수림공원 웨딩홀·부페

\* 결혼식  
\* 뷔페  
\* 회갑  
\* 각종모임

문의전화 (032) 434-3000

## TV 프로그램 12일(수)

경인일보를 CJ헬로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안내: CJ헬로TV 데이터방송 메인 → 게임&오이 채널 → TV신문

KBS 1	KBS 2	MBC	SBS	OBS	채널 A
5:00 KBS 뉴스 5:10 내고향 스페셜 6:00 KBS 뉴스경쟁 7:50 인간극장	6:00 굿모닝 대한민국	5:00 MBC 뉴스 6:00 MBC 뉴스투데이 - 1, 2부 7:50 (8) 폭풍의 여자	5:00 SBS 5 뉴스 5:10 굿모닝 510 6:00 모닝와이드 - 1, 2, 3부	6:00 OBS 뉴스 6:15 디규월드 6:45 OBS 뉴스 645 7:00 아이돌 리모컨 7:15 독특한 연예뉴스 (재)	5:30 내조의 여왕 (재) 6:40 굿모닝 A
8:25 아침드라마 9:30 KBS 뉴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8:40 자쿠초 뉴스 9:00 TV소셜 일민인성 민들레 9:40 여유만민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30 MBC 생활뉴스 9:55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	8:00 제12차 미래한국리포트 9:40 SBS 뉴스	8:00 건강요리대백과 마법의 식탁 8:30 기(氣)천 차병원 (재) 9:30 TV 주치의 9:45 OBS 뉴스 945	8:00 골든타임 9: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10:00 2014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	10:40 한국인의 밤상 (재) 11:40 가족의 품격 풀하우스 (재)	12:00 MBC 정오뉴스 12:20 수목미나리즈 <미스터 백> (재)	10:00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	10:05 드라마 극장 <발호 가족> 11:15 Music & Movie 11:45 OBS 뉴스 <경인투데이>	10:20 시사 인사이드 11:30 이제 만나러 갑니다 (재)
12:00 KBS 뉴스 12 12:55 바르셀론 고운발 1:00 제55회 한국민속예술축제	1:00 생생정보통 플러스	2:00 KBS 뉴스타임 2:10 역사저널 그날 (재) 3:00 키오카 (재) 3:30 자동차부채상 위키	12:00 SBS 12뉴스 12:45 미래한국리포트 특집 SBS 스페셜 1:45 날씨와 생활 1:50 문화가 중계 (재)	12:05 여왕차 바다뽀	12:40 채널 A 뉴스 특보 1:40 뉴스특급
2:50 KBS 피라미드 플러스 (재) 3:00 KBS 뉴스 3:10 생생 최전선 (재)	2:00 KBS 뉴스타임 2:10 역사저널 그날 (재) 3:00 키오카 (재) 3:30 자동차부채상 위키	2:30 나 혼자 산다 스페셜 3:00 MBC 경제뉴스 3:10 용가 쇼스타 3:40 헬로즈 놀라운 자연이야기	3:00 미래한국리포트 특집 SBS 이슈 인사이드	2:05 OBS 에너디 2:45 OBS 뉴스245 3:05 푸르기 TV 3:45 인생열전 <살 맛 나는 세상>	2:50 직간직설
4:00 시사저널 4:55 트윈생애 (재) 5:00 KBS 뉴스 5 5:20 동물의 세계 5:40 세상은 보인다	4:00 TV유치원 풍다공 4:30 마법 천자문 5:00 꼬마기자 추추 5:20 인간극장 스페셜 (재)	4:30 목? 뭇 키즈스쿨 5:00 MBC 이브뉴스	4:00 바이블로즈 4:30 푸르기 탐구생활 5:00 SBS 뉴스퍼레이드 5:30 내마음의 크레파스	4:45 OBS 뉴스 & 이슈 5:45 드라마극장 <발호 가족>	4:00 정영관의 시사방법 5:00 허준대의 레드노마
6:00 6시 내고향 6: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 세상 7:00 KBS 뉴스 7 7:30 영미의 인생	6:00 KBS 글로벌 24 6:30 생생정보통 7:50 (8) 달콤한 비밀	6:20 특선다큐멘터리 허균으로 민간은 중국 <맛의 전승> 7:15 (8) 소원을 말해봐 7:55 MBC 뉴스데스크	6:00 생방송 투데이 7:20 (8) 사랑만 할래	6:55 글로벌 비전 7:45 OBS 뉴스 M	6:00 박정호의 뉴스 TOP10 7:20 헬리 투 시월드 (재)
8:25 (8) 고강이는 있다 9:00 KBS 뉴스 9	8:30 생생정보통 플러스 8:50 비바리 9:50 수목드라마 <이연인 맨>	8:55 (8) 알구정 백야 9:30 리얼스토리 논	8:00 SBS 8 뉴스 8:55 한밤의 TV연예	8:25 오늘의 월드뉴스 8:55 독특한 연예뉴스 9:45 리얼 대담형	8:20 권한카메라, 24시간 9:30 채널 A 종합뉴스
10:00 생로병사의 비밀 10:55 TV동화 빨간머리 스페셜(재) 11:00 KBS 뉴스라인 11:40 KBS특선 쌀의 변신	11:00 유적재민 인 멕시코	10:00 수목미나리즈 <미스터 백> 11: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0:00 드라마 스페셜 <미스터 백> 11:15 일대일	10:40 OBS 京IN 뉴스라인 11:05 기(氣)천 차병원	10:50 채널 A 스포츠 뉴스 11:00 내조의 여왕
12:30 넷드위크 기하 문화과학 1:10 생활의 발견 2:00 KBS결정선 <싱글파는 열애중>(재) 3:00 KBS네트웍스 이야기(재) 있는 풍경	12:50 세상의 모든 다큐 1:40 KBS 피노키오 (재)	12:35 MBC 뉴스24 12:55 스포츠 다이아리 1:10 함께 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눈행복 2:15 2014-2015 프로농구 <전지전승> SK	12:35 나이트라인 1:05 제12차 미래한국리포트 하이라이트 2:25 SBS 결자결립 3:25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12:05 나는 전설이다 1:05 Music & Movie (재) 1:35 인생열전 <살맛나는 세상> (재)	12:40 덕더 지.비.고 1:40 신대중어지도 (재) 2:50 길디 까지 가보자 (재)

## EBS 종합평생채널·케이블·위성

EBS	JTBC	캐시온	스포츠 원
6:10 세계의 눈 7:45 로보카 폴리 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2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35 락비 루 10:10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40 최고의 요리비결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2:00 EBS 정오 뉴스 10 EBS 초대석 13:05 자취사냥 e 14:45 미앤아이로봇 16:00 일등생 유치원 20 버블버블 마린 17:1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30 로보카 폴리 18:00 생방송 특 특 보-나하니 1 20 생방송 특 특 보-나하니 2 20:50 세계 테마 가맹 21:30 한국가행 23: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5:10 고부스캔들 7:20 아침 & 8:50 유익의 거리 10:00 유자식 생활자 11:30 덕더의 승부 12:45 히든싱어 3 14:45 3시 생방송 시간변장 15:55 뉴스현장 17:00 정치부 회의 18:30 삼림의 신 시즌 3 19:40 영공복권 520 55 JTBC 뉴스룸 21:40 유자식 생활자 23:00 남과 함께 24:30 비정상의 파오파오 1:50 전설속의 괴상명체 3:50 상상의 과학	9:00 산타의매직크리스마스3D 11:15 다이애나 13:10 친구2 15:15 마녀사냥꾼 17:15 메이크유어부브 19:10 조선미남총사 21:05 파이오니아 23:00 가시(K)	10:00 TV생각 건강백세의 비결 14:00 덕더에게 물어보시오 15:00 여자 3쿠션 한일교류전 18:00 The Lesson 20:00 G밸리 50주년 기념 직간직설 당구대회 22:00 여자 3쿠션 한일교류전 23:00 The Lesson
TV조선	MBN	MBC 드라마넷	복지TV
5:50 낭만과 논리가 있는 토크쇼 낭만논쟁 6:50 TV조선 뉴스 7 8:30 TV조선 뉴스 9 9:30 김광필의 신동방송 10:30 TV조선 뉴스 11:50 데스크 360° 13:00 TV조선 뉴스 1 14:15 돌아온 자력수사 15:30 TV조선 뉴스 4 16:30 장성민의 시사토크 18:10 정혜진 이봉규 강영석의 황금편지 19:20 애정충돌 남남부터 20:20 코리아한티 21:40 TV조선 뉴스쇼 '판' 23:00 원자의 세상 23:00 강자들 24:30 건강한 여행 휴 1:30 내 몸 사용 설명서 3:00 TV로봇 법대법	4:50 소나무 5:50 나는 자연인이다 6:50 굿모닝 MBN 8:00 아침의 첫 열매경쟁 9:30 뉴스 공감 10:30 속물야소 동치미 11:40 고수의 비밀 황금알 13:00 신세계 14:20 MBN 뉴스2 15:30 시사마이크 16:20 뉴스 & 이슈 17:30 MBN 뉴스와이드 18:40 최불암의 이야기 숲 어울림 19:40 MBN 뉴스 8 20:20 코리아한티 22:00 휴먼다큐 사이라면 23:00 원자의 세상 24:40 고수의 비밀 황금알 1:40 휴먼다큐 사이라면 2:40 미녀의 탄생 3:30 현장로 특종세상	8:40 슈퍼맨이 돌아왔다 11:20 일민인성 민들레 13:20 가족가리 웨이러 16:00 백구기 동지 18:00 고강이는 있다 19:20 1박일 시즌3 22:00 슈퍼맨이 돌아왔다 생방송 24:00 백구기 동지	8:00 M morning 9:00 슈퍼 아이돌 투트쇼 11:00 Mnet Music Twit 12:00 믹스앤믹스 16:10 Daily Music Talk 19:00 믹스앤믹스 20:00 Live on M 22:00 슈퍼스타K6
SBS 드라마 플러스	투니버스	32세	32세
5:20 러닝맨 8:30 미녀의 탄생 11:20 청담동 스캔들 13:30 사랑만 할래 15:40 폭풍의 여자 19:20 슈퍼주니어의 게스트하우스 20:40 미녀의 탄생 22:00 청담동 스캔들	7:30 오야귀 9:00 마이리틀루키 2 11:00 뽀빠이 14:00 누가 내 궁디 좀 밀러줘 15:40 안방 주사님 18:00 농자만 정산술 21:00 농자만 정산술	32세 공은 화살이 바로 날아가는 법이니 마음은 바르던 결과도 좋고, 50세 이등문제고 고민하나 투자는 불리하니 경솔하지말기를, 61세 주변정리 확실 하 하지 않으면 골치아픈일 생기기 강하게, 73세 버릴 것은 버려야 채워지는 것이니 과도한 욕심은 자제.	32세 사소한 이익 때문에 남에게 피해 주는일 조심하는 것이 좋고, 44세 남의 것을 탐하면 관재구설 생기기 진실한 마음갖도록, 56세 미련은 남으나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좋으니 망설이지 말고, 68세 죽기살기로 싸워 이기는 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님을 알아야.

### 김나인의 오늘의 운세 12일 (음 윤 9월 20일丁亥)

<p><b>31세</b> 상생의길 가는것이 이로우니 이익 앞에서 너무 내색하지말기를, 43세 가 아할 길이라면 누가 뭐라해도 움직이는 것이 마음편한 길, 55세 길이 멀어도 안전한 길 가는것이 이로우니 확실 갖도록, 67세 불만있더라도 절대 내색하지 말고 주어진일 최선을다하도록.</p>	<p><b>30세</b> 낯선 사람과의 거래 위험하니 마음 중심 잡고 출행하도록, 42세 새로운 길 원하니 투자등은 불리하니 취업의 길 가는것이 유리, 54세 앞뒤 분간 못하고 서두르면 낭패보게되니 조심하도록, 66세 거래는 확실해 해두는 것이 좋으니 장문화하는 것이 이롭고.</p>	<p><b>29세</b> 지나간 일은 다 잊고 새로운 세상 적응하는일이 우선이고, 41세 잔술한 마음고 출발하면 목적 달성하게되니 힘차게 출발을, 53세 운기 서서히 회복되니 신념고 김나인서면 만사 길, 65세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등문제는 능력위에서 해결을.</p>	<p><b>28세</b> 황색수 있으니 음주운전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40세 지나친 스트레스 건강에 해로우니 잠시 쉬면서 휴식을, 52세 남의 말 함부로 하면 구설나게되니 입조심하도록, 64세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니 낯선 사람과의 거래 신중히하도록.</p>
<p><b>37세</b> 절차수사하면 흥한일 생기기 절대 앞서는일 없도록 주의, 49세 직업이 동문제로 고민하나 투자는 불리하니 경솔하지말기를, 61세 주변정리 확실 하 하지 않으면 골치아픈일 생기기 강하게, 73세 버릴 것은 버려야 채워지는 것이니 과도한 욕심은 자제.</p>	<p><b>36세</b> 혼자 힘으로 주변사람 협조받아야 하는일이 이로우니 적극적으로, 48세 과거에 미련두지 말고 자신의 길 가는것이 가족 모두를 위한 길이고, 60세 억지로 행하면 일만 힘들어지니 바로 정리하도록, 72세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한길 가는일 좋은인연 만드는 길이고.</p>	<p><b>35세</b> 가족간에 신뢰를 잃으면 집안이 시끄러워지니 조심하고, 47세 두갈래 길에서 고민하나 새로운길은 불리하니 서두르지말기를, 59세 더 이상 오를곳이 없으니 물러서는 것이 도리이고, 71세 말만듣고 남의 가슴에 못박는 일은 절대 하지말기를.</p>	<p><b>34세</b> 무거운 짐 벗어던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출행하는 것이 좋고, 46세 닦아 시도때도없이 우는 형상이니 신념에 불평한 일 잊도록, 58세 타인의 도움도 지나치면 병이 되니 큰 기대하지말기를, 70세 수하자 위해 양보하는 것이 상생의 길이니 바로 이행하도록.</p>

한국역리연구소 (031)237-0693

<p><b>애정 무난</b> 건강 무난 재물 무난</p>	<p><b>애정 무난</b> 건강 무난 재물 하라</p>	<p><b>애정 무난</b> 건강 무난 재물 무난</p>	<p><b>애정 무난</b> 건강 무난 재물 무난</p>
<p><b>애정 무난</b> 건강 무난 재물 하라</p>	<p><b>애정 무난</b> 건강 무난 재물 무난</p>	<p><b>애정 무난</b> 건강 무난 재물 무난</p>	<p><b>애정 무난</b> 건강 무난 재물 무난</p>

# 18개국 회원 봉사정신 드높인다



### 라이온스 인천지구

내일부터 4일간 동남아대회

관용 주제 2만5천여명 참가

이여령 강연·청소년 세미나

제53차 인천 동양·동남아 라이온스 대회(OEAL FORUM·이하 동남아대회)가 13일부터 16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4-F(인천)지구(총재·권용성)가 주최하고, 제53차 동남아대회 조직위

원회(위원장·김태영)가 주관한다. '관용(寬容·Tolerance)'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아시아 18개국 2만5천여명의 라이온스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봉사 정신을 공유하고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다. 참가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대만,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다.

김태영 조직위원장은 "동남아대회는 국제라이온스협회 제5회관장 지역 동양 및 동남아 회원국 회원들이 협회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모이는 자리다"라며 "봉사를 이념으로 한 라이온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자리가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 기간 참가 회원과 상호간 이해증진

과 교류협력의 확대, 국내·외 봉사 정보 교환도 이번 행사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개회식이 열리는 14일에는 '관용'을 주제로 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고, 대회 시작을 알리는 타종행사가 열린다. 또 한류 문화공연 등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명사초청 특별 세미나에서는 이여령 박사가 관용에 대한 강연을 한다. 행사장에는 한복을 입어보거나 한국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한국문화관이 마련된다. 향토 특산물 판매와 기념품 코너를 비롯해 한국의 맛과 멋을 알리는 푸드페스티벌도 열린다. 15일에는 '리틀 라이온'이라고 할 수 있는 레오(청소년 회원) 세미나가 열린다. 전국 100여명의 레오가 한자리에 모여 차세대 라이온스 회원

으로서 면모를 가다듬는 자리를 갖는다. 주제세미나 등은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등 동시통역이 준비되어 있어 참가자라면 누구나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인천 동남아대회는 최근 성공적으로 개최된 인천아시아인 게임·장애인아시아인 게임에 이어 한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국제행사"라며 "한국은 물론 인천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인천에서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1천23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 지난 9월 기준 7만8천명이 라이온스 회원으로 등록돼 국내·외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 농업인의 날 맞아 기념식

### 표창 수여... 현장 견학도

인천시는 11일 제19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인천 교통연수원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농업인의 날은 농업이 국민 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1996년부터 정부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검단 사물놀이패의 축하 공연과 모범 농업인 표창 수여 등이 진행됐다. 기념식을 마친 후에는 최근 쌀 관세화, 한·중 FTA 협상 등 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불안감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농업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행사에 참석한 조명우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여름 3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면서 농민들의 피해가 많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인천지역은 농업인의 철저한 대비로 큰 피해가 없었다"며 "인천시에서도 농업인들을 위한 많은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를 주관한 인천시 농업인단체연합회에서는 축하용으로 접수된 150포대 쌀을 대한적십자사 인천시지사에 전달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 '도농교류' 농촌인력은행 운영

### 강화군, 읍·면 장구 설치... 희망 단체 신청 받아

인천 강화군은 농촌인력은행을 연중 운영해 농촌 노동력 감소와 노령화로 적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일손돕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 강화군은 농촌인력은행 장구를 군과 읍·면에 설치하고 일손돕기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기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작업내용, 작업량, 작업시간, 소요인력 등을 고려해 적절하게 농가와 연계시켜 지원할 방침이다.

군은 일손돕기 붐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기관·단체와 국내 100대 기업에 지원협조 서한문을 발송하고, 일손돕기 자원봉사 접수를 받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에서는 군청과 읍·면에 설치된 농촌인력은행 장구에 시, 인력 등을 접수하면 된다. | 사진 농촌인력은행 연중 운영 사업은 기업체의 참여로 도시와 농촌이 하나가 되는 도농간 활발한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 인천앞바다 갈수록 수질 악화

### 지난해보다 WQI지수 2p ↑ 아라뱃길·매립지 등 오염원 강화 연안해역 한단계 개선

인천 앞바다 수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당국은 하지만 오염원이 무엇인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1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내놓은 '연안지역 해양오염도 조사'에 따르면 올해 인천 연안해역(24지점) 수질평가지수(WQI)는 3등급(보통)에

해당하는 40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38(3등급)보다 2포인트 올라간 결과로 수치가 높을수록 수질이 나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인천 연안해역 수질평가지수는 2012년 2등급(중음)에 속하는 32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 기준 가운데 하나인 수질평가지수는 적조현상 지표인 클로로필a, 용존무기질소(DIN), 용존무기인(DIP), 저층산소포화도 등을 종합해 산출한다.

인하대 해양과학과 최정기 교수

는 "인천 앞바다 오염원으로는 수질 상태가 좋지않은 경인아라뱃길,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남동산업단지, 인천항 북항쪽 유류 관련 시설 등을 꼽을 수 있다"며 "오염원을 정확히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 연안해역(10지점) 수질평가지수는 지난해 5등급(68-아주 나쁨)에서 올해 4등급(57-나쁨)으로 한 단계 올랐다. 강화 연안해역으로 흘러드는 한강, 임진강 등의 수질이 개선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백경호기자 pkhh@kyeongin.com

## 외국인도 이용 "편해오"

### 남동구, 홈페이지 개편

인천시 남동구는 주민 소통과 민원인 중심의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구청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강화와 이용자 중심의 디자인으로 편의성 증진에 공을 기울인 것이다.

구는 홈페이지가 주민 소통과 참여의 중심점이 될 수 있도록 구에서 운영중인 페이스북, 장석현 구청장의 개인 페이스북 등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배치했다. 이와 함께 남동구 주민은 물론 관광객, 외국인 등이 간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메뉴를 제공하고 문자 중심의 기존 홈페이지에서 내용이 미리 보이는 콘텐츠 중심으로 바꿨다. 남동구 홈페이지는 월평균 6만3천명이 이용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SNS 시대에 발맞춰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 국제청소년연합 경인지부 영어말하기 '경연'

### 2등상까지 전국결선 출전

(사)국제청소년연합(IYF) 경인지부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14회 IYF 전국 중·고·대 학생 영어말하기대회' 경인지역 본선대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회 대상과 1·2등상 수상자는 오는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영어말하기대회 전국 결선에 출전해 다시 한번 실력을 겨룬다.

지난 1일과 8일 두차례에 걸쳐 열린 이번 대회에는 대학부·고등부·중등부 등 130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문학성, 발표력, 독창력을 기준으로

인천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장학사가 심사를 맡았다. | 사진 국제청소년연합 경인지부 관계자는 "14년째를 맞은 IYF 영어말하기 대회 참가자들의 수준이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이 대회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결선은 오는 15일 오전 9시 서울 인제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자세한 사항은 국제청소년연합 경인지부(070-4618-6012) 또는 국제청소년연합 홈페이지(www.iyf.or.kr)를 참고하면 된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 인천문화예회관 수험생 할인

### 콘서트·연극 등 4개 공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대학수험생에게 관람료를 50% 할인해 준다고 11일 밝혔다.

수험생 할인 공연은 오는 14일 열리는 록밴드 '갤럭시 익스프레스'의

밴드데이 X 공연을 비롯해 12월 5~6일 막을 여는 연극 '칼로막베스', 12월 6일 펼쳐지는 바이올리니스트와 피아니스트의 협연 '익스트림 듀오', 12월 17일 펼쳐지는 재즈파크밴드 밴드의 스윙스 등 4개 공연이다.

이들 공연을 관람하는 수험생들은 50% 할인 혜택을 받아 7천~2만5천원에 볼 수 있다.

할인 혜택을 원하는 수험생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나 전화(1588-2341)로 '수험생 할인' 이메일을 한후 공연 당일 수험표 또는 수시합격증을 지참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032-420-2736-9)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 흥륜사 정토원

도심 속 천혜의 자연환경과 고품격 보안시설을 자랑하는 흥륜사 정토원 봉안당!!

- ◆ 신뢰할 수 있는 운영과 관리
- ◆ 흥륜사와 영구히 존재
- ◆ 다양한 부대시설과 편의시설
- ◆ 가까운 곳, 편리한 교통

☎ 이(개)장 관련, 장례/화장 절차에서 안치/봉안까지 24시간 상담 가능!!

24시간 상담문의 (032)834-1131/832-1131  
www.jungtowan.co.kr / 인천광역시 연수구 둔촌동 806-12



# 서해안 힐링캠프

오시는 길  
선내바위 해변  
서해안 힐링캠프  
← 신실부뚜막 서해수산연구소 →  
용유 동사무소 (인천, 서해)

최고의 상품을 최저가로 모십니다!

▲ 조개 : 大-20,000원 특대-30,000 ▲ 광어 : 25,000원 ▲ 농어 : 32,000원  
▲ 가을제철품목(양식장 직접운영) 새우소금구이 및 전어 선물용 포장 판매

예약문의 032-751-7797  
인천광역시 중구 선내바위로 70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678-179)  
어플주소 : 공영화의 힐링캠프  
블로그주소 : blog.naver.com.psg621001

# 오산 서울대병원 부지 전통공예 체험시설로

### 시, 관광테마복합단지 검토 ‘용인민속촌과 차별화’ 지적

오산시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오산 서울대병원 부지(경인일보 11월7일자 21면 보도)와 관련, 전통공예 체험시설로의 활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오산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대병원에 이어 경기도청사 유지를 추진했던 오산시 내삼미동 12만3천521㎡ 부지를 한옥마을과 무형문화재 등 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관광테마형 복합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시는 이곳에 한옥마을을 만들어 국내 흠여져있는 무형문화재 장인들이 생활하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활용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복안이다.

내삼미동은 인근에 세교신도시는 물론 동탄신도시가 위치해 있고, 전국을 사통팔달로 있는 고속도로가 접해 있어 관광객 유치에 유리한 입지다. 하지만 용인민속촌이 가까이 에 자리해 있어 보다 특화된 전통체험 단지를 조성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설문조사를 벌여 유치 무산된 서울대병원 대안으로 나온 11개 기준안과 6개 신규안의 적합성 검토를 거쳐 소방전문병원·산업단지·유통시설 등 3개안을 중점 검토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전 부지에 전통공예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 일부분 활용할 예정으로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준비단계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오산/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 양평 모꼬지마을

### 농촌 관광 1등급

#### 농어촌공, 4개 부문 평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실시한 '2014 농촌 관광 우수마을 등급' 평가에서 양평 모꼬지마을이 1등급을 받았다.

모꼬지마을은 농어촌공사가 지난 6월 전국 농촌 관광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촌체험휴양마을경관·서비스·체형, 숙박, 음식 4개 부문평가에서 모두 높은 점수로 1등급을 차지했다.

한편 지난 10일 농촌관광 우수마을 1등급 표지판 현판식(사진)이 열



양평/서민기자 sib@kyeongin.com

## 물놀이·스키 “수험생은 공짜”

### 부천 웅진플레이도시, 13~16일 수능 이벤트

도심형 스포츠&레저 테마파크 부천 웅진플레이도시는 '2015년 대학 수험능력시험' 수험생을 대상으로 수능탈출 특별 이벤트, '수험생 공짜!'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수능 당일인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4일간 수험표를 지참하고 웅진플레이도시를 방문하는 수험생은 누구나 워터파크&스파(종일권), 또는 스키&보드(1타임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따뜻한 실내 워터파크에서 7종의 다양한 슬라이드를 타거나 친환경자재로 꾸며진 힐링스파를 이용할 수 있다. 스노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수험생에게는 13일부터 30일까지 스키·보드 의류 및 장비 대여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특히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는 수험생을 위한 '만원의 행복' 이벤트를 진행한다. 수험생 본인과 동반 1인까지 워터파크&스파(종일권), 또는 스키&보드(1타임권)를 1인당 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현장 매표소에 수험표를 제시하면 입장 가능하다.

한편, 웅진플레이도시는 11월 한달동안 생일을 맞은 고객은 생일 당일 워터파크&스파, 또는 실내 스키장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본인과 동반 1인까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웅진플레이도시 관계자는 “레저활동을 즐기며 수험 스트레스를 풀라는 취지에서 이벤트를 마련하게 됐다”며 “수험생 모두 좋은 성과 거두기를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부천/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 화성 1천억대 관급공사 ‘황금알 잡아라’

<음식물처리·생활폐기물자원화시설>

화성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따내기 위해 관련업체가 숨바꼭질하고 있다. 특히 화성시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등 사업수행자 공모에 나서자 6개사가 몰려들어 치열한 각축전을 펼치고 있다.



시는 이번주말께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거쳐 최종 용역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에는 (주)건화, (주)선진, 동부엔지니어링(주), (주)도화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주), 박산엔지니어링(주) 등 6개사가 컨소시엄(공동도급) 대표 주진사로 참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굴지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대부분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련 업체들은 이번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는 4억원에 불과하지만 턴키방식의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억원 대를 웃돌 것으로 전망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사업수주전에 뛰어든다고 했다.

타당성조사 등 용역공모에 굴지의 설계업체 6곳 몰려

### 시 “주말께 최종 선정 방침”

### 본공사에도 건설업계 눈독

### 수주반 가동 흐름 예의주시

여기에 본공사를 겨냥한 건설업계도 군침을 흘리고 있다. 공사비가 1천억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공사를 수주하면 관행적으로 시운전후 운영권까지 쥌 수 있는 메리트는 놓치지 않기 위해 정보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도급액 상위

20위권내 업체들은 미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내년중 반개 니올 본공사의 수주반을 가동하며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말께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며 “100만평시대 음식물 처리와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시설로 공명정대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우정읍 주곡리 161의 361원 4필지(16만8천533㎡)에 사업비 1천100여억원을 들여 음식물 처리시설(지하·150t/1일), 적환시설(240t/1일), 재활용선별시설(100t/1일) 등을 건설, 오는 2017년 12월 준공예정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 춘의·도당·여월동 땅 거래규제 풀려

### 부천 GTX 부지 0.69㎢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부천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 이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GTX) 예정 부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

제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은 2012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춘의·도당·여월동 일대 0.69㎢다.

이번 해제조치로 부천시내 전체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절차 없이 거래가 가능하며, 기존 토지거래허가에 부여된 5년 이하의 토지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시는 투기적 토지거래 및 지가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

제구역에 대한 가격변동과 거래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이상 징후 발생 시 투기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김태동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치로 토지소유자와 실수요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부동산경기 활성화 및 세입증대 효과 등 부천시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천/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 특성화고 재학·대졸 예정자

### 65명 선발 14일 취업박람회

안양시는 오는 14일 시청 별관 2층 홍보홀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과 대학졸업예정자를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기업 22곳이 참여하는 이날 취업박람회에서는 기술영업 및 생산관리 32개 분야 6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시는 취업박람회장을 찾는 구직자를 위해 이력서사진 촬영, 입사지원서 컨설팅 및 이미지메이킹, 취업관련 특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시가 개최한 취업박람회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200여명의 구직자들이 취업에 성공했다”며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 역시 이번 취업박람회를 통해 본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양/김중천기자 chani@kyeongin.com

### 주민세 체납 일제 조사

### 성남시, 내달 19일까지

성남시는 오는 12월 19일까지를 ‘주민세 미납자 일제조사기간’으로 정하고 주민세(균등분) 체납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다.

조사대상 주민세 체납액은 7천877건 5억1천만원이며 이는 지난 8월 개인사업자·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한 주민세 전체 금액의 21%에 달한다. 시는 과세기준일(8월1일) 현재 주민세 미납자의 휴·폐업 등 사업소멸 여부와 이전 현황을 지방세정보시스템·사업자등록 현황 자료 등과 연계해 조사한다.

조사결과 사실상 사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에 부과된 체납액은 취소하고, 내년도 정기본부터 비교세하기로 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수원과학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과와 글로벌한식조리과 교직원과 학생들이 ‘음식과 공간, 콜라보레이션’ 졸업작품 페스티벌 커팅을 하고 있다.

## ‘한식 세계화’ 콜라보로 새 지평

### 수원과학대, 실내건축·조리과 졸업작품展

### 뉴욕·런던·강남·북촌 타깃 오감소통 선택

수원과학대학교(총장·박철수)는 11일 신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실내건축디자인과와 글로벌한식조리과가 함께 융합·소통을 주제로 ‘음식과 공간, 콜라보레이션’ 졸업작품 페스티벌을 열었다.

한식 세계화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한식개발과 그에 걸맞은

획기적인 한국적 공간 디자인을 목표로 내세운 글로벌한식조리과와 실내건축디자인과 졸업생들은 뉴욕·런던·강남·북촌 등 네곳의 인기 도시를 타깃으로 삼았다. 이번 작품전은 오감을 통해 공감각적으로 한식과 소통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한식 세계화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학과간의 연계전시, 즉 콜라보레이션이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 각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철수 총장은 “학과별 졸업작품

전시회가 이제는 전교학생 및 교직원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의미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융합과 소통을 바탕으로 동반성장하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는 시점에서 수원과학대학교가 앞장서고 있다”고 격려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추천축제와 함께 즐기는 **와우페스티벌**

“대한민국 모든 축제정보를 한눈에!”

**1년 365일**  
대한민국 전국 축제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와우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의 생생한 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축제에 참여하시고 축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www.wowfestival.net

# 대한전선, 안양 본사건물 신축부지 매각 '먹튀' 논란

<평촌스마트스퀘어 첨단산단내>

‘경영난 이유’ 당초계획 변경  
일반공장단지, 산업단지 지정  
시세 2배이상↑ 막대한 이득

대한전선이 옛 대한전선 안양공장 부지에 조성중인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내에 본사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경영악화를 이유로 변경, 용지매각에 나서면서 먹튀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대한전선은 지난 8월 말 대한전선 본사 입주 예정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매각 협의를 안양시에 제출했다.

매각 대상용지는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S1-3블록) 3

천815㎡로, 용도는 1·2종 근생, 업무시설 등이다. 매각 예정가격은 190억7천여만원에 달한다. 대한전선측은 건물신축 대신 임대형식으로 본사 및 계열사를 안양시에 이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자 대한전선의 용지매각을 놓고 일각에서 먹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공장단지가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통상 최소 2배 이상 시세가 상승해 막대한 이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08년 6월 발표된 대한전선 공시를 보면 대한전선측은 안양공장 부지 사업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ALT제1차PFV)에 안양공장 부지 26만㎡를 5천500억원에 매각하고, 47%의 법인지분을 확보했다.

또 지난 2012년 평촌스마트스퀘어 산업단지 개발이 확정되자 대한전선의 1천200억원대 우발채무가 250억원으로 대폭 낮춰져 950억원대의 반사이익을 봤으며, 같은해 12월 시의 용도변경에 따라 아파트건립마저 가능하게 돼 나머지 250억원의 우발채무도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전선측 관계자는 “경영 악화로 인해 오너일가에서 경영권을 포기하고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해 새로운 대주주가 되면서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회사매각이 진행중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육을 건립하는 등의 신규투자는 도저히 불가능해 용지매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양/이석철·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 분당~수서 별말 지하구간 공원화사업 내년 3월 착공

분당~수서 도시고속도로 매송~별말 구간의 지상공원화(조감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성남시는 방음터널을 설치하던 분당~수서 도로간 별말지하차도 구간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공원으로 확대 조성하기로 하고 내년 3월 착공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별말지하차도 구간에 공원이 조

성되면 기존 계획보다 녹지공간이 늘어나 8만3천㎡의 지상 공원이 들어서게 된다. 사업비는 1천500여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18년6월 준공 예정이다.

공원화 확대 결정에는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했다. 시는 주민 제언의 날 등을 통해 분당~수서 도로 공원화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



렴했으며 별말지하차도 구간 공원화도 다수 주민이 의견을 제안함에 따라 성사됐다.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소음과 분

진으로 인한 피해를 감내해야 했던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 시화MTV ‘쫄개기 난립’ 부작용

제한규정 없는 규제완화 원인  
356개업체중 임차 78개 달해  
슬럼화로 침단·친환경 이미지  
기반시설도 모자라 불편 예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첨단·친환경 산업단지로 개발해 올해 6월 분양에 나선 시화 ‘MTV’에 정부의 공장설립규모 규제완화로 ‘쫄개기’ 현상이 빚어지면서 임대공장 등 공장수호가 늘어나 이미지 저하는 물론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이 예고되고 있다.

11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기준 MTV 입주 업체(분양)수는 모두 356개로, 이 중 임차가 78개 업체에 달한다. 시흥시의 경우 182

개 업체 중 현재 33개 업체가 임차받아 공장을 설립했다.

분양받은 업체가 일명 ‘쫄개기’를 하면서 임차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국가산단의 규제완화 조치 등 현행법상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법에는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한 후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임대 가능하다. 특히 임대사업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입주계약변경 후 산단 입주업체 및 공장 등으로 임대할 수 있다.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도 1천650㎡에서 900㎡로 규제가 완화됐다.

임차업체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단지 슬럼화로 침단·친환경 단지 이미지를 저하하고,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등) 부족에 따른 분양·임차업체의 불만 가중은 물론 취업파로 인한 미스매칭 초래 등 산업단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시흥시와 안산시·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제도개선에 나섰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동으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 기본계획상 임대 제한(일정면적 이내 등) 규정 신설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임대제한 규정 복원은 전 국가산단을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화 MTV내 임차업체가 늘고 있다”며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기존 산업단지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상습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전국적으로 실시된 11일 오전 수원 시내의 한 주차장에서 영통구청 세무과 직원들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하태환기자 hath@kyeongin.com

## “김포공항 골프장 건설계획 철회를”

부천시민연대, 전면중단 촉구  
“김포공항습지 골프장 건설을 위한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하고 골프장 사업 추진을 철회하라.”

부천YMCA 등 부천시민연대회의는 11일 김포공항 골프장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04년부터 부천 오정, 서울강서 일원에 27홀(서울 18홀·부천 9홀) 규모로 계획된 김포공항 골프장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당초 김포공항 골프장 예정부지 99만5천896㎡를 포함한 127만7천143㎡가 법정보호종만 31종이 서식하는 생명의 땅으로 변화한 만큼 수의만을 목적으로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7월31일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인서울 27 골프클럽(주)’이 의뢰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현장조사는 사업자 선정 이전에 대부분 이뤄진 내용으로 사전에 짜인 각본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 취소를 주문했다.

이들은 또 4계절을 면밀히 조사해야 할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엔 2·7월 두 계절만 조사한 내용이 포함된다. 인근 농지와 주변 습지대가 배제된 채 수질만 한정적으로 평가한 만큼 부실한 짜맞추기 조사라고 비판했다.

부천/전성천기자 junsch@kyeongin.com

‘상습 결빙’ 하남 은고개에  
원격제설방재시스템 설치

하남시는 겨울철 상습 결빙지역인 상산곡동 은고개 500m 구간에 원격제설방재시스템 ‘스마트제설’ 설치를 완료하고 오는 12월 가동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스마트제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제설지점을 선택하면 저장탱크의 제설제가 노즐을 통해 살포되는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이 출장이나 퇴근 후에도 제설예보·특보 발생 시 신속한 제설 작업이 가능하다. 제설제로 친환경액상제를 사용, 환경 오염 및 도로 파손 등의 문제점이 있는 염화칼슘의 단점도 보완했다.

시는 이번 시스템의 제설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효과가 검증되면 연차적으로 설해 취약지역인 팔당대교·배알미대교 등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 “이필운시장 선거캠프 출신 채용 안돼”

FC안양 서포터스 반대 성명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이하 FC안양)의 공식 서포터스인 안양서포터즈 연합이 최근 낙산 인사 의혹(경인일보 10월 30일자 20면 보도)이 일고 있는 이필운 시장 선거캠프 출신에 대한 채용반대 성명서를 발표

해 FC안양 직원 채용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안양서포터즈연합은 11일 FC안양 낙산 인사 의혹에 대한 축구팬들의 공식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측은 성명서를 통해 “FC안양은 지난 2004년 LG차타스 축구단 연신에 대한 채용반대 성명서를 발표

다함과 열광 끝에 탄생한 시민의 축구단이며 창단 2년만에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승격을 목표로 둔 구단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는 선수단의 임금체불 문제와 더불어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이 시장의 측근을 사무국의 요직에 앉히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FC안양 축구팬은 물론 지역정치권까지 나서 시측에 진심어린 해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인사권자인 이 시장은 묵

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혹의 중심에 선 내정자들은 공공연히 구단 사무실을 방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측은 “만약 시가 축구팬들의 입장을 무시한채 낙산 인사를 강행한다면 시즌권을 비롯한 구단의 모든상품 구매를 거부하고, 경기 관람 역시 보이콧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양/이석철·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 25,000원

고객님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시작

## 완벽한 보안을 위한 최고의 선택

# 남인천방송 CCTV

고객님의 안전지킴이 남인천방송

1544-0777 / www.nibtv.co.kr

# “도대체 몇 명을 죽여야 살인죄인가”

## 세월호 유가족들의 ‘잔혹한 하루’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수색중단 요청 발표에 애써 슬픔을 억눌렀지만 승무원 신고를 보고는 분노를 폭발했다.

11일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마련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판결을 지켜보던 유가족 22명은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일부 유가족은 “말도 안 된다. 그럼 우리 애들은 누가 죽인 거냐”며 “대체 몇 명을 죽여야 살인죄냐”며 오열했고, 일부 유가족들은 자리를 박차고 법정 밖으로 나가며 거세게 항의했다.

## “잠수사에 감사” 수색중단요청하며 억눌렀던 감정 “모두 재판이 아니라 살인자 변호” 법정 안팎 폭발 소식들은 단원고 재학생도 “배신당한 기분” 분노

몇몇 유가족들은 “실망스러운 판결이다. 왜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되냐”며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살인자를 애써 변호하려는 것만 같았다”고 울부짖었다.

실종자 가족들은 이날 오전 11시께 전체 수색중단 요청 때만 해도 “우리의 영웅 잠수사에 감사하다”며 애써 슬픔을 억눌렀다. 하지만 재판에서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들에게 살인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자 억누른 슬픔이 분노와 오열로 바뀌었다. 단원고 희생자 지상준(17)군의 아버지 지용준씨는 “선장이 생명을

방치한 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살인이 아니냐”며 “항소를 통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반발했다.

유가족들은 재판이 끝나자마자 안산 하늘공원으로 향했다. 이날 하늘공원을 찾은 단원고 이승민(17)군의 어머니 이은숙씨는 아들이 잠들어 있던 낱알당의 벽을 붙잡고 무릎을 꿇은 채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사고 전 아들과 단 둘이 살았던 터라 사이가 남달랐던 모자간이었다. 이씨는 “우리 아들 어떡하니, 재판에서 살인죄가 아니라, 누가 내 아



“누가 내 아이를 죽였나...” 법원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한 11일 오후, 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이 안치된 안산 하늘공원을 찾은 유가족이 사고로 희생된 자녀의 사진을 어른마시고 있다. /하태형기자 hath@kyeongin.com

들을 죽인 거냐”라며 “아이들을 죽인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하니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오열했다.

뒤늦게 재판 결과를 전해들은 단원고 재학생들도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선체 수색 중단 발표 때만 해도 비

교적 차분하게 수업에 임했던 학생들은 재판 소식이 전해지자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 학생은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 그럼 우리 친구들은 누가 죽인 거냐”고 분통을 터트렸고, 몇몇 학생들은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듯 흐느끼

기 시작했다.

단원고 3학년 백모(18)군은 “아무도 우리 후배들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지 않는다”며 “엄중한 법의 판단을 기대했는데 배신당한 기분이다”고 성토했다. /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

# 304명 꽃 같은 생명 희생 누구도 ‘책임’ 묻지 않았다

## 세월호 사고 1심 결과 의미

세월호 침몰사고로 304명의 꽃 같은 생명이 희생됐지만, 누구도 그 죽음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사고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됐던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는 무죄로 판결났고,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역시 무죄판결을 받았다.

살인죄 성립의 핵심은 ‘이씨가 퇴선명령을 했느냐’는 것이다.

이씨는 검찰조사에서 지속적으로 “해경의 구조정이 도착했을 무렵, 조타실에 함께 있던 2등 항해사인 김영호에게 퇴선시킬 것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김씨도 “선장의 퇴선명령을 양대호 사무국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3등 항해사 박한결은 “이준석의 퇴선지시가 없었고 김영호도 이를 사무국에 전달한 바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함께 조타실에 있었던 필리핀 여가수가 “박씨가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재판부는 박씨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또한 이씨가 강원식, 김영호 등과 허위진술을 모의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탈출 직후 이들이 함께 있지 않았다는 점과 퇴선명령의 시기, 경로

등 세부적인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지적하며 퇴선명령을 했다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더불어 재판부는 이씨 등이 ‘조타실에서 승객들보다 먼저 나가야 살 수 있다는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필리핀 여가수가 당시 이들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고의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도 세월호처럼 조난 선박에 탄 승무원들이 수난구호를 해야 하는 의무자가 아니라, 사고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 선박 승무원에게 적용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난구호법 해당 조항을 전제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검찰이 이 선장의 주요 죄명인 살인이 무죄로 인정될 때를 대비해 1차 예비적으로 적용된 특가법 위반 혐의가 차례로 무죄 판결이 나오자 2차 예비적 혐의로 적용된 유기치사·상이 간신죄도 인정됐다. /공지영·김영훈기자 jyg@kyeongin.com

소중한 사람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 2014 경인일보 송년디너쇼

2014.12.15(월)~17(수) 오후 6시 30분  
 과천경마공원 럭키빌 6F 컨벤션센터

백지영, 신유, 정수라, 제이투엠 (MC\_황기순)의 화려한 무대와 최고의 특선디너코스

다시 오지 않을 2014년 12월의 아름다운 밤 - **Adieu~2014!**  
 그 행복한 시간을 가장 소중한 분들과 함께 영원히 잊지 못할 뜻깊은 추억으로 간직하실 절호의 기회!

주최 **경인일보** 후원 세계적 호텔 **백류하이엔드호텔** (주)경인항공여행사 **한국대표**

예약 및 문의전화 : 경인일보 사업부 **031\_231\_5511**

## 갈길 먼 아빠들의 육아휴직

경기지역 신청 늘었지만 여성 대비 5%도 안돼

최근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6만4천646명 중 남성은 2천798명으로 여성 6만1천848명에 비해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은 지난해 같은 기간 1천871명에 비해서는 늘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인천지역의 경우 육아 휴직을 사

용한 여성 근로자가 3천4명(9%)인 반면 남성 근로자는 132명(4%)에 그쳤다.

경기지역은 여성 육아휴직이 1만6천630명(95%), 남성은 809명(5%)이었다.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을 다니 근로자들이 1년 이내에서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신청 대상은 남·여 구분이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육아휴직은 여

성이 쓰는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보니 일선에 있는 직장 근로자들은 사용하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4살과 3살된 자매를 두고 있다는 아빠 직장인 지모(25)씨는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어떻게 신청해서 쓸 수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눈치가 보여 육아휴직을 잘 쓰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적극 나서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승(통상임금 40%~60% 상향) 등 남성들의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윤철기자 say@kyeongin.com

## 교직원 성범죄 절반, 학교 안에서 일어나

박승원 도의원 행감자료

최근 3년간 경기도내 교직원들이 저지른 성범죄중 절반가량이 교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도교육청이 도의회 박승원(새정치민주연합·광명3) 의원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3년간 도내 공립 초·중·고교 교사와 행정직원 등 교직원이 저지른 성범죄는 모두 43건이며, 이중 절반가량인 21건이 학교내에서 발생했다.

또 43건중 10건은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9건, 중학교 7건, 고등학교 17건으로 초등학교 교원의 성범죄가 가장 많았다.

지난 2012년 A초교 교감은 여학생 9명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같은해 B중학교 교사는 제자를 본인의 승용차안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또 도내 C고교 교사는 제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내는 등의 성희롱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이날 올 상반기 비위행위가 적발된 교직원 25명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중에는 음주 운전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계관리 소홀 4명, 회계질서 문란 2명,

미성년자 추행 1명, 공금횡령 1명,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1명, 직무관련 골프 접대 1명, 모욕죄 1명, 무단 결근 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대현·공지영기자 kimdh@kyeongin.com

날씨 | 12일 수요일 (음력 윤 9월 20일)

이른아침 빗소리 알람 비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 6~7도, 낮 최고기온 8~11도의 분포가 되겠다.

인천	미물 07:44 20:11 샘물 01:59 13:55	해동 07:07 달빛 22:10	해침 17:24 달침 11:30
----	----------------------------------	----------------------	----------------------

백령도 7/8    파주 6/9    의정부 7/9  
 강화 7/9    서울 7/9    양평 6/11  
 인천 7/9    수원 7/10    평택 7/10

**강수량**  
 오전 수원 100%    인천 100%    서울 100%    강화 100%    대전 100%    전주 100%    광주 100%    대구 100%    부산 100%    제주 100%  
 오후 수원 100%    인천 100%    서울 100%    강화 100%    대전 100%    전주 100%    광주 100%    대구 100%    부산 100%    제주 100%

**바다날씨**  
 풍향 풍속 파고  
 서해 서~북서 8~16 1.0~3.0    남해 서~북서 7~14 0.5~2.5    동해 남서~서 7~16 0.5~3.0  
 내일 이후 날씨  
 13일(목) 14일(금) 13일(목) 14일(금)  
 인천 ☂ -1/4    서울 ☂ 1/10    수원 ☂ -3/5    양평 ☂ 0/11  
 서울 ☂ -2/5    의정부 ☂ -2/5    파주 ☂ -2/5    백령도 ☂ -2/5    제주 ☂ 1/11

# 유씨일가 범죄수익 추징은 말뿐?

### 검찰, 기소전 5차례나 재산 1천200억 동결 불구

### 유대균 구형맨 '침묵'... '보여주기식' 인정할 풀

### 부패재산 피해회사 반환에 정부 환수도 어려워

검찰이 유병연(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범죄수익을 추징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추징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씨 일가 계열사 자금 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된 대균씨에 대한 범죄수익 추징을 재판부에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균씨는 상표권 사용료,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청해

진해운 등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앞서 5차례에 걸쳐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숨진 유씨를 비롯한 대균씨, 차남 학기(42)씨, 장녀 심나(46)씨 등의 재산 1천200여억원을 동결 조치했다. 당시 검찰은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세월호 피해 회복을 위한 책임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보전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유씨 일가에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유씨 일가 중 유일하게 붙잡은 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을 뿐 정작 범죄수익 추징은 요구하지 않았다.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신청을 인용했던 법원도 검찰의 요구가 따로 없어 추징을 명령하지 못한 상황이다.

관련 법에는 횡령·배임죄로 얻은 부패재산에 대한 추징금은 국가가 아닌 피해 회사에 돌아가도록 돼 있다. 대균씨의 횡령 범죄 피해회사는 청해진해운(횡령액 35억원)을 제외하고는 세월호 참사와 직접 연관이 없는 계열사이기 때문에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해 다시 환수해가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검찰이 동결해 놓은 유씨 일가 재산 중 상당수는 정부가 구상권

은 재산과 겹쳐 선불리 추징조치를 하지 못한 이유로 작용했다.

검찰은 이 문제를 놓고 법무부 등과 법률 검토를 가진 다음 항소심 재판에서 추징을 요청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은 '보여주기식'으로 유씨 일가 재산을 묶어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셈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기소 전 추징 조치가 마치 세월호 책임재산 확보에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됐지만, 실상 국가는 실익이 없다"며 "횡령·배임 사건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을 법원에 신청한 것 자체부터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밝혔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 월세 밀린 음식점 주인

### 법원 강제집행에 '양심'

### 집주인 부부 흥기 폭행

인천시 연수구 주택가 인근의 식당 주인이 법원의 강제집행을 당하던 중 식당 앞에 있던 채권자 부부를 차로 치고 흥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인천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동춘동의 고깃집 앞에서 이 식당 주인 이모(51)씨가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으로 박모(62·여)씨를 치어 넘어뜨리고, 길이 12cm의 흥기로 박씨의 남편 정모(62)씨의 가슴 등을 두 차례 찔렀다. 이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피해자 부부는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8월에 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0만원에 이 건물을 계약했다. 월세가 몇 개월 밀리자 집 주인이 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법원의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경찰은 이씨가 강제집행에 불만을 품고 채권자 부부에게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 연수구의의회 '행동강령' 또 보류

### 직무관련 위원회 참여금지

### 의정활동 제약우려 의견에

### 다음 정기회때 올리기로

구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공무원 등에게 경조사 통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동 강령 조례안을 연수구 의회가 또다시 보류시켰다.

이 조례는 지난 6대 의회에서 2012년 8월 이후 5차례 심사 안전에 올랐지만 모두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으로, 올해 출범한 7대 의회 의원들에 의해 다시 보류된 것이다.

인천 연수구의의회는 제184회 임시회에 올랐던 '연수구의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안'을 보류하고 11일 회기를 마쳤다.

이 조례안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준식(옥련 1·2동, 동춘 2·3동), 정현배(선학동, 연수 2·3동, 청학동)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7조), '공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11조), '경조사 통지와 경조 공품 수수 제한'(17조), '성희롱 금지'(18조) 등을 규정한 행동 강령을 위반한 의원을 누구든지 시의회 의장,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게 한 내용이다.

연수구의의회는 이번 회기에 올라온 행동 강령 조례를 보류하고 다음 정례회 때 다루기로 했다.

연수구의의회 김선석 운영전문위

원은 "행동강령 내용이 너무 (의정 활동을) 제약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신중하게 보자는 취지로 안건이 보류됐다"며 "이 안건을 좀더 깊이 보고, 다음 정기회 때 올리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인천 광역·기초 의회 중 행동 강령 조례를 제정한 곳은 계양구(2011년 10월), 남구(2013년 5월 제정), 강화군(2013년 10월), 남동구(2013년 11월), 부평구(2013년 11월), 용진군(2013년 12월) 등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 10월 집계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 의회 중 78개 의회가 행동 강령 조례를 제정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 구청 공익요원, 공무원 둔기로 때리고 도주

인천시 서구 공익요원이 함께 일하는 직원을 둔기로 때리고 달아나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다.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

전 8시45분께 서구청 지하 사무실에서 공익요원 박모(34)씨가 화장실을 다녀오던 직원 조모(44·무기계약직)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5차례 때리고

달아났다. 사건 직후 조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문서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은 이 곳에서 10개월째 단둘이 근무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주영기자 kij88@kyeongin.com

### 인천해광학교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감동의 무대'



11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종합문화예술관에서 '인천해광학교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열린 리허설에서 학생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장애이긴 천사 '희망을 연주하다'

### 약보없이 모두 외워서 공연

### 지휘자 목소리 이어폰 전달

### 곡 끝날 때마다 '박수' 화답

50여명의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은 희망을 연주했고 1천300여명의 청중은 감동을 선물로 받았다.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인천해광학교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1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평소에 받는 데 익숙했던 시각장애 단원들은 이날만큼은 배푸는 입장이 됐다.

이들 연주자 앞에는 악보가 없다. 보이지 않으니 다 외워서 연주한다. 바이올린 연주자 고주형(4학년)군은 "악보도 다 외웠고, 연습을 많이 해 자신있다"며 "나 때문에 함께 바이

올린을 공부한 누나와 매일 학교에 데려다 준 부모님에게 멋진 공연을 선물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지휘자는 무대 뒤편 한 구석에서 벽을 보며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다. 핀 마이크를 통해 모든 단원이 귀에 끼고 있는 이어폰에 전달되면 그 소리에 맞춰 연주가 진행됐다.

이날 오케스트라에서는 목소리가 바로 지휘봉이었고, 악보는 이미 단원들의 머릿속에 있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과 귀에 익숙한 동요메들리 아리랑과 애국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편곡해 첫선을 보인 통일의 노래까지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공연은 모든 이에게 희망과 감동을 안겨줬다. 한국 한곡이 끝날 때마다 청중들은 아낌없는 박수로 화답했다.

박기화 상임지휘자는 "평소 도움만 받아오던 장애인들이 오늘날만큼

비장애인에게 감동의 선물을 주는 날"이라며 "프로 연주자는 아니지만 모두의 노력과 열정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아름다운 무대가 됐다"고 말했다.

/김성희기자 ksh96@kyeongin.com

미스터 달팽이 (1638) 이공명

한기도 애고... 무당떡

삼시세끼를 공짜로

세금이 아깝다

36년째

**무선랜의 절대강자! 루커스!**

특허 받은 안테나기술을 적용한 강력한 무선 송수신 능력 - SMART Wi-Fi

Ruckuswireless Indoor & Outdoor, Controller, NMS 제품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1459-2 텔레트론빌딩 6층

**세계 WLAN 제품 판매 TOP 1!**  
전세계 2,500개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WLAN 시장 브랜드 1위 제품 - 루커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에서 2004년에 설립한 루커스는 순수 무선 기업으로 2010년 4년 만에 1,146% 성장하였으며 2010년을 기준, Carrier Wi-Fi Market의 4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사제품  
Radio와 Antenna  
1:1 관계

VS

Zoneflex  
Radio와 Antenna  
1:다(多) 관계

**Smart Antenna**  
커버리지 확대 / 성능 및 신뢰성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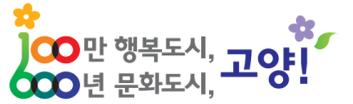
**Smart Mesh**  
스스로 최적화 되는 무선 메시

**Smart Sec**  
단순·안전한 WLAN 접속

**Smart Cast**  
어플리케이션 및 사용자 인식 QoS

**제품문의**  
TEL : 031-340-7000  
Mobile : 010-8975-8677

FAX : 031-340-7199  
E-Mail : sales@teletron.co.kr



제 5회 고양시 수험생 & 청소년을 위한

# 2014 DREAM CONCERT



진행 박요한

## crayon POP



# 크 레 용 팝



### 출연진

진행 박요한

1부(동아리 그룹)  
스태디 파이어 (댄스)  
TOT (신앙비즈니스고)  
FoR (백석고)  
스파크 (경기영상고학교)  
특별출연  
넛드 (부천 원미고)

2부(호형가수)

A4

크레용팝

## 2014. 11. 28(금) 오후 2시 30분

###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Goyang Aram Nuri

Aram Concert Hall

주최 : 고양시 주관 : 고양필하모닉오케스트라 경인일보

후원 : 고양문화재단 동물체험 박물관 테마동물원 ZooZoo NH 농업고양하니클럽 일산아이네트안경.콘택트

전석 무료 공연문의 031-971-5970 (고양필하모닉오케스트라)